朝鮮日報 夕刊 二十九日(水) 本紙夕刊十二面

國境의滿蒙兩國軍 衝突不可避形勢
實力을發動하야國境線確定
關東軍에서重大決意

【新京廿八日發電通】去二十三日 最後的警告를 發하야 外蒙側의 反省과 그軍隊의 完全 撤退를 要求한 滿洲國은 그後 外蒙側의 態度를 監視하고잇는바 依然 그의 積極的不法越境射擊事件이 不絶하야 廿六日 오라호도카大部隊의滿洲領侵犯事件을 惹起하엿는데 外蒙의 國境攪亂部隊의 根據는 헤룰렌及 오라호도카南地點에잇서 外蒙軍隊는 相當한 大部隊를 準備하고잇는 事實이 窺破되며 이미 그後方 中心地點인 탐스크로부터 大部隊의 國境附近에로의 移動集結이 終了된모양으로 機會를 기다려 一大攻擊을 加하려하는 姿勢를 取하게 되엿다 이때문에 滿洲國側에서도 日滿共同軍은 滿境線確保와 領土保全의 自衛的立場에서 이에 對應하야 萬全을 期하고잇는데 外蒙側에서 此際 日滿側의 警告에 不應하고 撤退치안는限 兩國軍의 衝突交戰은 免치못할 危機에 直面하여잇다

【新京二十八日發電通】警備軍의 報告에 依하면 二十八日 午前三時 約百名의 外蒙兵이 滿洲國 오라호도카監視所를 攻擊하엿슴으로 同監視所는 直時 應戰에 努力하엿스나 衆寡不敵하야 約三十分後 後退하엿다 外蒙兵은陣地를 構築하야 約二十名을 殘留케하고 主力은 外蒙內로後退한듯하다 호룬데스及 오라호도카附近에는 外蒙斥候兵이 出沒하고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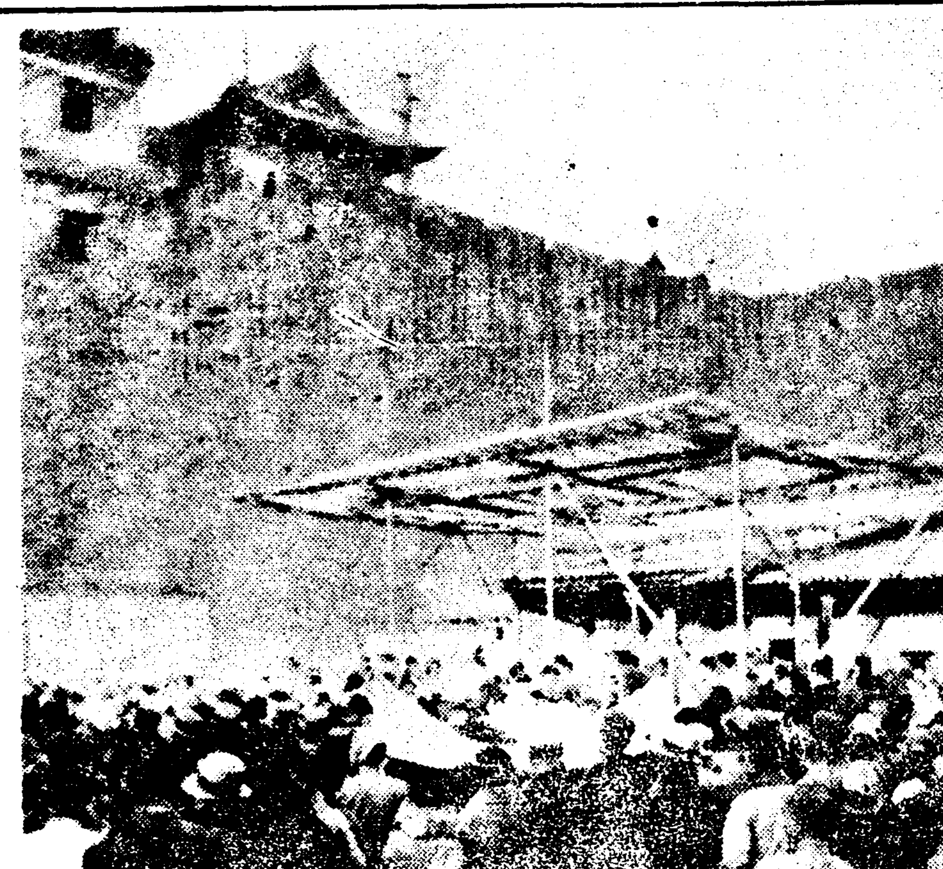
【新京二十八日發同盟】關東軍에서는 滿蒙國境에잇서 頻發하는 滿蒙兩國部隊의 衝突紛爭事件에 對하야 外蒙側이 反省치안코 挑戰行爲를 反復할時는 滿洲國側은 獨自의立場에서 實力으로써 滿蒙兩國國境確定에 邁進할수박게 업다하야 滿洲當局과함께 重大決意를 鞏固히한 模樣이다

河北省의南部에 싸베트政府成立
討伐갓든宋、萬軍一營加擔
英、北中赤化工作默認

【天津二十八日發同盟】河北省南部順德東方 兵縣 鉅鹿 廣宗을 中心으로 最近 冀南싸비에-트臨時政府가 成立되여 漸次 河南 山西 山東省境으로 擴大되려하고잇다 이에 赤化防衛에 赴한 宋哲元軍의 一營及 萬福麟軍의 第二營은 赤軍에 合流케되엿다 該方面은 黃河氾濫으로 避難民이 蝟集하여잇는 關係上 赤化의 擴大는 자못 容易하고 더욱 英國은 蘇聯의 北中赤化工作에 對하야 暗默의 諒解를 與한 模樣으로 天津 英租界에 共産黨員養成을 目的으로한 蘇聯의 中央政治學校가 設立되게 되엿다 冀察政務委員會에서는 自省의 赤化에 驚愕하야 近近 積極的對策을 講究할려이다

赤化防止軍事協定 宋哲元氏考慮
◇日本側에對하야

【天津廿八日發同盟】河北省南部 敷縣은 最近 急激히 赤化하야드디여 冀南싸베트臨時政府까지 樹立되엿는데 宋哲元軍、萬福麟軍의 一部討伐隊는 赤化하야 共産軍에 合流하게 되엿다 冀察政權은 右討伐에 對하야 對策을 考究中인데 다시 宋哲元氏는 日本側에 赤化防止의 軍事協定締結을 考慮中인데 冀南의 如斯한形勢는 右協定成立의 時期를 促進하리라하야 그推移가 注目된다



◇北平朝陽門外에몰려든各大學生團의反自治運動示威群

商震氏赤軍討伐計畫

【天津二十八日發同盟】冀南싸베트政府樹立에 依한 赤化擴大를 防止키 爲하야 宋哲元、萬福麟 … 南軍部隊 若干은 그討伐에 赴한 채로 行方不明이되여 赤軍에投降한것이라고 함으로 商震氏는 目下 討伐을 計劃中이다

定例閣議經過

【東京電話同盟】二十八日의 定例閣議는 午後一時四十分 首相官邸에서 開會하고 岡田首相以下 各閣僚가 出席하야 爲先雜談的으로 마츰내 總選擧도 實戰期에 들어갓슴으로 各閣僚의 遊說과 選擧肅正講演을 爲한閣僚의 日程等에關하야 協議하고 內田鐵相은 二十八日夜 東京市內의 遊說을 始初로 三十日부터 二月三日까지 東北地方에 遊說、選擧肅正講演을 爲하야 後藤內相은 二月一日부터 同樣으로 新潟縣에 赴하겟다는 旨를 報告한다음 廣田外相으로부터 對中問題에 關하야 報告가잇슨後 午後三時散會하엿다

千餘中國學生集合
廟行鎭戰場에서悲憤慷慨한演說하고
隊伍지어停車場占領

【上海廿八日發電通】二十八日午前十一時 總商會에 集合한 中國人男女學生約 八百名은 上海事件記念日集會를 行하고 例에依하야 激烈悲憤慷慨한 演說을行하고 午後二時隊伍를 지어 廟行鎭戰場에赴하야 同所의 無名戰死者墓前에集合하야 近郊學生約六百名과 合體하야 墓前에서 記念集會를 行한後 再次 大擧上海에 歸來하야 北停車場 方面으로부터 租界內로 入하려하엿스나 이情勢를 察知한 租界當局은 中國街와의間의鐵門을 閉鎖하고 彼等의進入을 阻止하엿다 이때문에學生等은 北停車場에 闖入하야 同所를 占領하고 不穩한 形勢를示現하엿는데 中國公安局의彈壓에依하야 午後十時지나 解散되엿슴으로 念慮되든 有吉大使의南京行은 可能하게되엿다

英空軍機의 訪日飛行日程決定

【新嘉坡二十八日發同盟】新嘉坡英國極東空軍의 日本訪問飛行은 마츰내 二月十日을 期하야 決行하기로 되엿다 使用飛行機三臺는 모다 英國二〇五號飛行艇隊에 屬하는 大型海軍機로 크로드中佐가 編隊長에 任命되엿다 그리고 往訪日 日程은 左와如하다

二月十日 新嘉坡로부터 쿠칭까지 十日、十一日 쿠칭發 쿠다르着 十二日 쿠다르發 마닐라着 十五日마닐라發 香港着 十六日香港發 廈門發 二十三日上海發 二十五日鹿兒島着 歸路는 三月一日 鹿兒島出發豫定

有吉大使南京着
張外交部長訪問
蔣氏와는三十日會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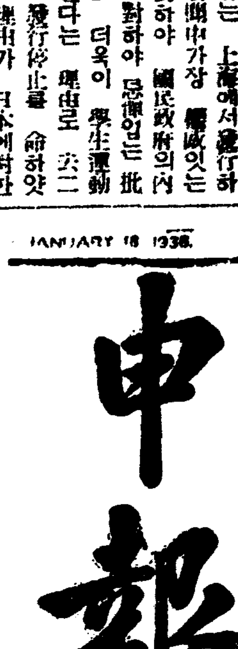
【南京二十九日發同盟】有吉大使는 若杉參事官 堀內、有野兩書記官을同伴하고 二十日午前七時 南京着 卽時 總領事館에入하야 須磨總領事로부터 現地狀況報告를 詳細聽取하고 同日午後外交部長張群氏와 會見하야歸國인 사를 述하는同時에 國民政府外交部의 廣田外相의 議會演說에 關한 認識問題、南京會議問題等에 關하야 國民政府의 眞意를 質問할터이다 그리고 有吉大使와 蔣介石氏와의 會見은 明三十日에 擧行할模樣이다(寫眞은有吉大使)

伊宣傳省에서 東阿戰捷을發表

【羅馬二十八日發同盟】新聞宣傳省은 二十八日正午 콤뮤니케로써 東阿戰況에關하야 左와如히發表하엿다
伊太利軍一個縱隊는 다우아바리아河로부터 네게리까지의地帶의 戰線整理를 完了하엿다 그라찌-니將軍으로부터온 報告에依하면 伊太利軍은 가나-레·도리아戰鬪에서 善戰하야 드듸어 大捷을 博하엿다

話題解說
『申報』

◇國民政府는 上海에서發行하는 中國新聞中가장 權威잇는『申報』에對하야 國民政府의內治外交에 對하야 忌憚업는批判을加하고 더욱이 學生運動을 煽動한다는 理由로 去二十七日에 發行停止를 命하얏다한다。그理由가 日本에對한外交的제스추어인지 또는 眞心으로 申報의 論調를 國府가嫌忌한까닭인지 그眞相은斷言할수가업스나 申報가 最近뿐만아니라 滿洲事變、上海事變을 通하야 恒常 對日强硬論을 主張하며 最近의 學生運動에 對하야도 處音에는 慫恿鼓舞하라는態度로나오다가 近日에와서는 오히려學生運動을 리-드하는傾向을 띄엿든것은 事實이엿다 또한 再昨年에 大申報의 社說을 最近 五六年間 獨擔하여서 써 네려오든 優秀한 論說記者 陳彬龢氏(現在 日本硏究者)…事實은 記憶할만한일이다。



◇申報는 中國에잇서 自他가 共認하는 最高 最大의 新聞이니 그 創刊은 距今 六十二年前 淸朝의 同治의 十一年(一八七二年)…人(메-저)氏엿다。그後에 여러 變遷을 거거 最近 二十年間은 史量才氏가 그 專權한 經營手腕과 人才登用으로 斷然 中國新聞界의 王座를 占하게 되엿든것이다。史量才氏가 昨年에 作故한 後에는 張蘊和氏가 經營의 責任을 지고잇다。申報의 全發行部數는 約二百萬元 每年 營業額이 二百餘萬元에 達하는바 그中廣告收入이 百五十萬元 發行收入이 五十萬元이라는 好成績으로 支出을 除하고 年年 約五十萬元의 收益이잇섯다。全中國新聞中 이에 匹敵하는 公稱發行部數는 十五萬部로서 發行部數를 가진것은 米紙大陸報(China Press)의 共同經營者 董顯光氏가 經營하는 …가잇슬뿐이다

◇申報는 그 發行地 上海에잇서서는 恒常 어데까지 獨自의 立場을 取하여 온것이 그의今日이잇게한바이엿섯스나、上海事變當時 中央黨部의 … 機關紙가 된 後에는 傍系機關紙와가티 一般 優秀한 記者들이 되어면서도 恒常 國民政府의 制限된 言論의 테두리를 버서나서 健筆을 내두르기때문에、말성을이르키것은 한두번이 아니다。申報는 每日發行頁數는 十二頁、때로는 十八頁 또滿報를發行하고 雜誌 月刊申報를發行하는同時에 傍系通信機關으로 申時電訊社가잇다。

獨伊政治協定을 伊首相이提案?

【羅馬二十八日發同盟】무솔리니首相은 駐伊獨逸大使 하셀氏를 首相官邸에 招致하고 會談을 遂하엿다 會談後 何等 特히 콤뮤니케等을 發表치안코 當局도 沈默을 守하고잇는데 一部에서는 二十八日 會談席上 무솔리니首相은 獨伊政治協定案을 提出하야 히틀러總統의 意見을 求한것이라고 解釋되고 또 무솔리니首相은 獨伊協定이 成立되면 더나아가 英國 其他 各國에 對하야 同樣의 提案을 提出할 意圖라고 稱하는바 그推移는 자못 注目되여잇다

에리트리아戰線에잇서 伊太利部隊는 强力한敵軍에 遭遇하야 戰鬪四時間에 亘하엿는데 마츰내 此를擊退潰走케하엿다

八面鋒

◇日本脫退、그後의倫敦會議、實에서 虛으로 再轉向。

◇一九四二年一月一日까지 七千五百噸、備砲六吋以上 艦船建造를 中止하자는休日案이 나올모양。

◇但 協定안한第三國이 自由建造하는때에는 不在此限이라하니、장님의눈 감으나따나。

◇英國先帝大葬을 機會로 歐洲의七個國元首와 全世界三十餘國首腦者가 倫敦에參集。

◇이機會에 國際政局을 打開할무슨 協議나잇지아니할가하야 여기저기서注目。

◇되기만한다면 고마운일일지도 모르나、될가바念慮하는空氣속에서는 無用의杞憂。

鹽稅及鐵道收入 兩政權分配決定
冀東政權側에서不滿

【北平二十八日發電通】全額二千萬元에 達하는 北平鹽稅收入 及 年額六百萬元에 達하는 北寧鐵道收入을 中心으로 冀察、冀東兩政權의 分轄接收問題는 過般來天津에서 兩政權代表間에 接觸交涉中이든바 左와如한 分配額의 協定이 成立되엿다

鹽稅、全收入二千萬元中 四國借款擔保二百五十萬元을除한 一千七百五十萬元이 從來 中央과 地方行政費에 充當되엿는데 그中 三百萬元을 冀東政權에 千四百五十萬元을 冀察政權에 歸케함

北寧鐵路收入、月額五十萬元中 冀東政權管轄內收入은 三十五萬元이다 그中 十萬元이 冀東政權에 四十萬元을 冀察政權에 歸케함

그리고 鹽稅收入의 全區域은 冀東政權管轄內에 잇고 또 北寧線의 三分之二는 同地區에 잇슴으로 그協定額에對하야 冀東政權은 자못 不滿하는模樣이다 그러나 宋哲元政權은 鹽稅、鐵道收入을 中央으로부터 全分離接收할것을 標榜하고잇스나 東三月一日의 實行期에 際하야 此를實行할수잇슬는지 注目되다

000183

總督府新規採用 例年과無差異

總督府가 明年度에 잇서 各學校卒業生 新規採用豫定數는 各般事務의 自然膨脹에도 不拘하고 前年과 大差업서 高文合格者約十名으로 三月中旬京城과 東京에서 採用試驗을 施行할터인데 雇員은 各局自由採用으로 試驗을行하지안코나 大體新規採用은 合計六、七十名으로 達할 豫定이다

人事·集會

▲故阿部充家氏追悼會 京城日報京城新聞協會等諸團體主催로二月四日午後四時長沙洞妙心寺에서

▲李吉用氏(東亞日報記者)二十九日午前零時三十分城北洞五六番地自宅에서遭外艱

佛新外相渡英을機會로 三十億法의借款提議?

【倫敦二十八日發同盟】佛國外相 플랑당氏는 英國皇帝御大喪으로 渡英한機會에 朝鮮한法國의危機에備하야 經濟破局을 打開할目的으로 모리스財團에 四十億法의借款提議를 交涉하엿다고 傳한다 現在 佛國銀行의 金準備高는 激減의一途를거러 사로-잇는데 倫敦財界의 空氣는 對佛借款에는 難色이不少하야 어느程度까지 具體的協議가 進捗될는지 甚히 疑問視되여잇다

英國先帝御大葬
沿途에百萬의國民이餞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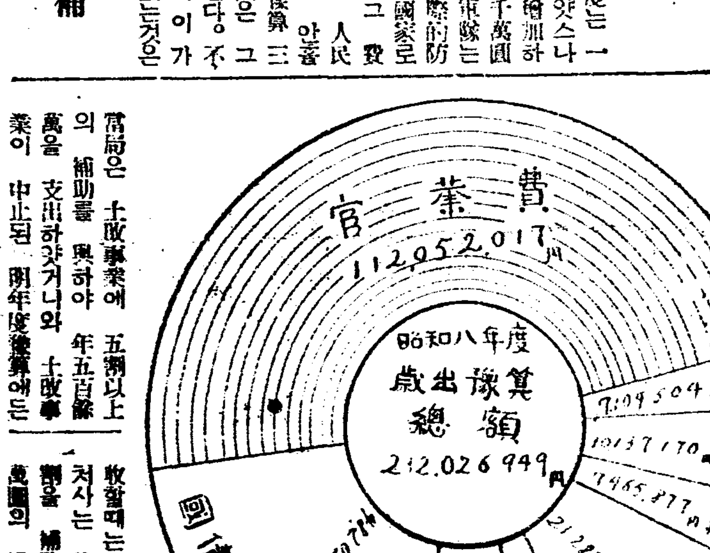
【倫敦二十八日發電通】英國先帝조-지五世陛下의 御大葬은 同二十八日午前九時四十五分(日本時間午後六時四十五分)웨스트민스터-敎會御發靷으로서 開始되엇다 當日 하늘도 廣帝의 御最後를 悲痛하는듯 시나리든 夜來의 降雨도 깨끗이개여 御發靷時에는 定例의 午前九時四十五分 御靈柩는 特히 選拔된 水兵五十名에 依하야 嚴肅히 御發靷、웨스트민스터寺院의 鐘은 悲壯한 弔鐘을 울리고 砲架前에는 全國各聯隊에서 選拔한 軍樂隊가 悲壯한曲을 奏하면서 前衛의 任務를다하고잇다 御靈柩後에는 新帝에드워드八世陛下께서 玉步를 옴기시고 數步뒤에 直系御皇弟諸公各殿下 宮中各高官 各國國王皇族이 徒步로 따르시고 뒤이어 皇太后陛下 諸威皇后陛下 메리內親王殿下가 搭乘하신 御馬車와 各國特派使節이 이에따르시엿다 御葬列은 約一哩에亘하고 參加人員은 一萬으로 推算되고 또沿道에는 約百萬의國民이 肅然히 正襟하고 最後의 行幸을 餞送하엿다 이리하야 御葬列은 四哩의길을 嚴肅히 行進하야 倫敦市西端 패딩톤驛에 到着하야 午後零時三十五分御到着 윈자驛에 1지大禮拜堂에 奉移하고 司祭칸타베리-大僧正以下 奉仕下에 午後一時十五分(日本時間午後十時十五分)最後의 御式을擧行하엿다

明年度(十一年度)總督府豫算批判
(三) 咸尙勳

七、警察費의過多

明年度 歲出豫算項目에 잇서서 가장 注目을 끄는것은 國營事業으로서의 鐵道作業費 二千八千萬圓과 專賣局費 三千二百萬圓、遞信費 一千五百萬圓 外에 國債整理基金特別會計繰入 三千一百萬圓、地方廳費 二千七百萬圓、補助及獎勵費 二千四百萬圓、鐵道建設及改良費 二千七百萬圓、土木費 一千二百萬圓이다。國營事業及 公債에 對해서는 이미 昨日에 論한바어니와 地方廳費와補助及獎勵費와 土木費의 膨大한데는 一驚치안흘수업다。그러나 地方廳費라는것은 모든 行政費를 包含한것이매 詳細치 안타。그리하야 使途別로 分類한 歲入內容을 알기 위하야 일부러 時日이 經過한 昭和八年度 歲出豫算을 揭示하자。(이것은 筆者의 責任이 아니오、當局이 몃해後가 用途別 歲出內容을 發表치 안는 때문이다。)이表에 依하면 總歲出 二億三千萬圓中 官業의 一億一千二百萬圓이 首位요 國債費 二千四百萬圓이 次位며 警務費 一千九百萬圓이 三位요 勸業費 一千八百萬圓이 四位요 土木費 一千百萬圓이 五位다。警察費는 大正九年度에 一千六百萬圓이란 劃時期的 膨脹을 본以來 年年增加하야 昭和六年年末까지는 二千萬圓을 不下하다가 昭和七、八年度는 一千九百萬圓臺를 彷徨하얏스나 最近 數年以來 다시 增加하기 始作하야 다시 二千萬圓臺를 넘엇다。警察과 軍隊는 國內治安의 維持와 國際的防禦에 必要한 存在다。國家로서 업슬수 업는바나 그 用이 程度를 지나치면 人民負擔의 過重으로 되지 안흘수 업다。朝鮮의 歲出豫算 二億二千萬圓中 二千萬圓은 그 十六分의 一에 該當한다。不生産的 消費的 方面에 이 가튼 膨大한 費用을 쓰는것은 考慮할問題다。

八、大企業에의補助過度



當局은 土改事業에 五割以上의 補助를 與하야 年五百餘萬圓을 支出하얏거니와 土改事業이 中止된 明年度豫算에는 收益때는 高價의 利潤을 부쳐사는 私鐵에도 建設費의六割을 補助하야 年四百三十餘萬圓의 補助費를 計上한것이다 그러나 生産的 積極的 方面이라 할지라도 이미 成長하야 大規模의 事業이 되엇다 할진대 이에 助成的 資金을 만히줄것은 업다。從來 不良水組整理補助費等의 名目으로 土木費補助五百萬圓을 勸業費補助에 三百萬圓을 計上하얏다。그뿐아니라 利益을 相當히 엇고잇고 國家에서 買… 라든지 大汽船會社에 航路補助費로서 八十餘萬圓을 計上한것은 資本偏護의 批難을 免치 안흘가。

九、加俸不撤廢

人件費로서 名目에 들어나지 안흔 加俸一千五百萬圓의 存在도 斷然 反對하는바다。現在의 滿洲라든가 南洋과가티 氣候 風土가 日本內地와 顯著히 다르고 治安이 維持되지 안헛스며 交通、敎育、衛生施設의 不備한 곳이라면 모르거니와 朝鮮의 京城、平壤、釜山、大邱等과 가티 文化上의 어느 都會보다도 떠러지지안코 物價低廉한 都市人에게도 植民地 特別加俸과 舍宅料를 支拂하는것은 아무런 蓄積家가 나온다 할지라도 不公平을 庇護함에 不過한것이다。吾人은 官吏의 俸給의 적은것을 認定한다。그러하면 官吏一般에게 給料를 올릴시언정 無用한 加俸制度는 撤廢할것이다。(續)

(寫眞은昭和八年度 歲出豫算의 使途別 圖表)

自由黨이首位를獲得 共産黨도十五名
復辟後最初의希臘總選擧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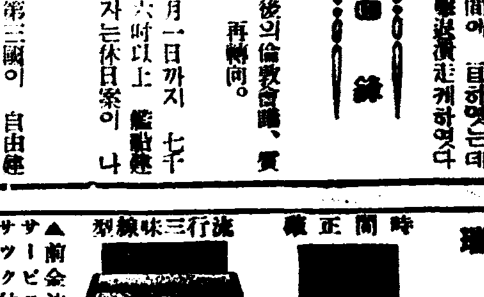
【아테네廿八日發同盟】復辟後最初의 希臘總選擧는 二十六日全國에亘하야 一齊히 擧行되엿는데 二十八日午後 開票한結果左와如한成績이 發表되엿다

自由黨派	一四二
反베니젤로스派 保守黨聯合	一四三
共産黨	一五
計	三〇〇

그리하야 自由、保守兩派의 對立이 激化할 境遇에는 極左의 共産黨이 必然的으로 政局은 左右하게될것인바 兩派間에는 二十七日來 頻繁한 折衝을 遂하엿든바 漸次聯携의 形勢가 濃厚하게되여 그結果 議席一二七을 擁하고 第一黨의地位를 獲得한自由黨首 조포리스氏가 後繼內閣의首班에 任命될것은 거이 確實하다고보는바 保守黨으로부터 차르다리스氏等의巨頭가 參加하야 擧國一致强力內閣이 成立되리라고 期待되다

各派立候補者數

【東京電話同盟】午後八時半現在各派立候補者數는 左와如하다 政友會二七四 民政黨二三七 昭和會三六 國民同盟二六 社大黨二五 地方無産九 其他諸派一七 中立六三 合計六八三 內二十八日屆出分二四〇 新二七三 前三三四 元八〇

現行市價의 分の一 投賣急告 (クローム側中時計 クロームクサリ付)

西瑞 特製 時間正確 流行三味線型
石田商會 時計部 東京市江戶川區小岩町二ノ二五 振替東京六一七八一番

利益만흔 確實한商品 잘팔리고 버리되는!
東京下谷區御徒町三丁目 伊藤萬藏商店 電話下谷
곳申込하시요

はれやか 그러데 힘드는 問題도 술적술적 마음대로 ¥0.30 ¥0.50 ¥1.00 ¥2.00 (頭腦의榮養劑)

好職業 大阪天王寺區堂ヶ芝町 福榮本舖

암혼痔에는 오세로 疾藥 ¥0.30 ¥0.50 全國各藥店에잇소

金銀特別高價買入 吉武金銀店 電話一六四六番

速히낫는 淋疾藥 루-베리 特製 竹村製藥所

朝鮮劇場 ◎그후의李道令 ◎白い友情 ◎昨日の女今日の女

☆…깨고시픈 ☆…冬眠…☆ 昨日漢江에서

늙은漁港의새煩悶
元山繁榮에S·O·S
元山里漁港이年年메꾸어저
民間五團體道에呼訴

【咸興】 원산어업조합장(元山漁業組合長) 한괴주(韓魂株)외원산시내사개단체대표등오명은 지난이십팔일 함남도 토목과에 대하여 원산에 잇서서 당면한초미급무인 원산리(元山里)해안준첩(浚渫)공사긔공을 진정하여왓는데 그내용을보면 동원산리해안은 십여년전에 매립(埋立)공사를하고 축방(築防)을완성하여 군소어선이 전부출입하게되여 극히은성하든바 해가감에 따라황파(荒波)가 침래하는한편 상류로부터 토석이흘러내려 해면에 퇴적하여 물이극히 여터젓슴으로 지금은 조그마선박은 물론 발동긔선은 조곰도 정박(碇泊)할수업슴으로 인제와서는 어항(漁港)으로서의 가치를 완전히 일엇슴으로 어항은 지극히 한산(閑散)한 상태에빠저 원산(元山)에미치는영향이 막대하여실로원산 오만부민의 사활문제에 이르고잇다는것인데 이에대하여 도토목과에서는 금년칠월부터원산부(元山府)에서 준첩선(浚渫船)을 사용하여 준첩공사를하기로되엿다고한다

百貨店窃盜被捕

이십팔일 오후 한시경에 시내종로(鍾路)일정목을 배회하는 시외 아현리(阿峴里)오백칠십일번지 박형주(朴亨周)(二□)를 소관종로서원이 인치하야 취조한결과 그는 본정(本町) 삼중정(三中井)백화점에서 시가 오십원짜리 여호목도리를 절취한외에 이래 버젓한의복을입고 손님처럼꾸민후 시내 각백화점을 전문으로 출입하면서 수십건의절도를 범행하엿는데 그피해액이 상천원에 달한다고한다

遭難船夫救助

지난 이십일일 오후일곱시경에 시흥군자면월곶리(始興郡君子面月串里)의 김순봉(金順鳳)안중옥(安重玉) 유치명(兪致命)등이탄 범선(帆船)이 시흥군항월관리(項月串里)에서 류빙(流氷)에밀려서 조난하엿섯는데 이십팔일 인천월미도(仁川月尾島)부근에서 인천서(仁川署) 수원서(水原署)등의 협력에 의하야 세사람은모다 무사구조되엿스며 선체는파손되엿다고 한다

물길러 간할아범
意外、路傍의屍體
死因에疑惑품고警察嚴探中

【永登浦】 노량진본동리(鷺梁津本洞里)사백구십번지 최영완(崔榮玩)의집에 세를드러잇는 리덕선(李德善)(六□)은 이십팔일오후일곱시경에 물길러 나간다고하고나간것이 여덜시반이 되도록 도라오지아니하야 그안해가 차저떠낫는데 마츰한집에잇는 김동이(金東伊)가바로 본동리 사백구십삼번지 조천룡(趙天龍)의집문전에서 리덕선이가 피를 함빡흘리고 죽은것을 발견하고달려와서 그안해에게 일럿다

이급보를바든 영등포경찰서에서는 곳서원이 현장에 달려가서 검시하엿는데 아직타살의혐의는 완전히 나타나지안헛스나 출혈이 하도심하므로 죽은원인에 대하야 매우수상하게 여기고 더욱 여러방면으로 조사중이라한다

과와 양복등속을 훔치다가 발각되여 지금 엄중한 취조를밧든중 근일 정주로 호송되리라한다

長箭燈臺에 危機信號!

강원도고성군 장전등대(高城郡長箭燈臺)는 일월이십삼일부터전등의점멸긔(點滅器)가 고장이생겨당분간 보통전등을 켜두기로되엿슴으로 이부근을 항행하는 선방은 특별히 주의할 조켓다고한다

薔花紅蓮傳 장화홍련전 發聲映畵 封切 一月三十一日★陰正月八日 朝鮮劇場

制限의金城果然鐵壁
渡航者五萬激減(昨年中)
新渡航者와歸還者는各相半
密航뿌로커乘機跋扈

조선으로부터 현해탄(玄海灘)을건너 일본내지에 도항한자가작년중에는 그전년보다 실로오만명이 격감하엿다한다 자세한수자는 아즉경무국에서 집계(集計)하는중이나 대체의 수자를보면 작년중에 도항한총수는 약십만명이나 이것으로부터 귀환(歸還)한 사람을제하면 새로건너간 사람은 도리혀건너온 조선사람보다 적은 상태이라한다 이것은 최근이삼년이래 총독부의조선인 도항자에대한 취체가 거이 금지적제한을 하고잇는실상임으로 사실에 잇서서는 밀항(密航)자와 밀항뿌로카-」의발호가 격증하고도항자는 오만명의 격감을 보게되엇이다 물론이와가티 도항자가 격감하게되엇이은 조선내의 로동이민의 실시또는 농촌진흥운동의전면적 전개(展開)에도 잇겟지만「그것은 구우일모(九牛一毛)」격에 하고 무엇보다도 중대한원인은 조선인도항자에대한 당국의취체가 거의금지적 제한이라는수준에 잇나는것인데 금후도 과연 취체기강회되어가며 따라서 도항자는 격감할는지 주목되는현상이다

流氷의障害로 龍塘浦에 滯貨가山積

황해도룡당포(龍塘浦)항은물이쌀때에 어름이어렷다가 물이밀때는 어름짱이 해면에떠올려 선박이 자유로운입하지못하야 그동안화물이 산뎜이가티 밀렷슴으로 방금각관계회사에서 내용을조사중인데 아마이만돈 가량은밀렷슬것으로보고잇다

僻村의喜悅! 夜學學藝會盛況

【公州】 충남공주군 계룡면 양화리(公州郡鷄龍面陽化里)는 순소작인이 사는빈촌으로 아동교육기관이 업슴을 유감이여기든 유지 우성종(禹成鍾)박우동(朴雨東)씨등은 그동리 무산아동문맹퇴치를 목적하고 교수중작년가을 부터 남녀아동 팔십오명을 수용하야 강사제씨의 열심으로 교수하여오든바 교실신축의 긔념으로 지난 이십사일 오후칠시경의 당교실에서 학례회를 성대히 개최하야 관남자이 [illegible] 넘도 [illegible]

街頭"에"비"친"『夫唱婦隨』
內外共演武勇傳
◇때못닷난비녀도적

이십팔일 오후 두시경에 시내서대문정(西大門町)이정목 전차정류장에서 승객이 혼잡한틈을타서 시외신당리문화촌(新堂里文化村) 사십일번지의 박두병(朴斗炳)(三□)이가 돌연종로(鍾路)륙정목십륙번지의 사호전복득(全福得)이라는 젊은 녀자의 금비녀를 홈켜빼아서 가지고 도망하는것을 가치가던그녀자의 남편 손회집(孫熙楫)이 용맹을 다하야 이를 추격하야 시내정동(貞洞)부근에서 [illegible] 범인을제포하야 차조로 서대문서에 범인을 넘기엇다

科學智識普及會 理事會決議

과학지식보급회(科學知識普及會)에서는 지난이십팔일 오후다섯시부터 시내관철동(貫鐵洞)백합원(百合園)에서 제사회 리사회(理事會)와위원회(委員會)를 열고 부회장(副會長)리인(李仁) [illegible] 을 결의하엿다한다

決議

今年四月十九日을 前後하야擧行할第三回科學데이를 例年보다 좀더其規模를 擴大하야大大的으로 擧行하기로하되『포스타』와『삐라』의宣傳『라듸오』放送 自動車旅行列、講演會開催、見學團組織、科學活動寫眞公開、科學書及座談會開催等은 勿論이며特히『삐라』는 飛行機를 利用하야市內에 [illegible] 撒布하며少年의 [illegible] 旗行列參加

現在의民曆에서
陰曆을"낙크·아웃"
當局二重過歲를廢止하고
曆書도陽曆으로統一?

조선에서 음력과세와 양력과세의 두번과세를 하기때문에 여러가지 폐해가만허 민간식자간에 이중과세의 청산을도모하야 음력과세의 폐지와 양력과세로 [illegible] 그런데 이 이중과세문제에대하야 이십구일의 총독부 정례(定例)국장회의에서 우원(宇垣)총독은 이중과세의 폐해를 지적하고 양력과세로 통일케하라 [illegible] 학무국에서 발간하는 민력은 [illegible] 연 발간치안케함이 조타 또혹 발간한다하여도 음력을 취할필요가업다하야 학무국장에게 주의를환기하엿다한다

또조선에서는 농가의수확기가 일으기때문에 량력정초전에 농가의결산은 전 [illegible] 로 양력과세로함이 무방하다는것이다 그리하야 총독부에서는 결국민력의발간은 폐지하고 양력과세로의 통일책을 구체화식히게할터이라한다

舊正의悲劇또하나 窮母가窃盜질

【宣川】 선천군 선천읍 천남동(宣川郡宣川邑川南洞)에사는 주확실(朱確實)(三□)이라는 녀자는 근근히 그날 그날의 생활을 혼차하여왓스나 구력세말을 당하매 그동안 어린아희들과가치 따뜻한 밥한그릇과 국한사발을어들길이업서 생각다 못한끄테 지난 이십일 읍내각처로 엿장사로 가장하고 도라다니며 유

無常한봄의숨바곱질
天候는七面鳥인가?
날세는또變節햇다!

한동안 지속된 모진추위뒤에 지난이십팔일부터 갑작이수은주(水銀柱)가 내려뛰여 서울거리바닥의 어름도 소리업시 녹기시작하야 마치촉촉히내린봄비의거리를 거니는것갓고 따스한햇빗치응조리젓든마음을 노근히 펴는듯하야 바라든봄날이 그대로 오는것마갓더니 하룻밤새인 이십구일부터는 어젯날 춘양(春陽)은 흔적도업시사라지고 그대로 으슬으슬 추워저만간다

경성측후소의말을드르면 이는 미들수업는기압배치가 갑작이변한탓으로서 아직도얼마동안 젹은추위가 지나간다음 이래야 참말봄날이온다고한다 가 천후는마치 칠면조(七面鳥)의얼골처럼 변해서 봄을기다리는 마음을 조마조마하게한다

仁川觀測所發表

【仁川】 금년도의 추위는 인천관측소 설치이래 세번째 보는 긔후로 추위는 아즉도 계속된다는데 이번에는 사오일 계속된뒤에나 겨우 봄긔후로 회복되리라한다

天氣豫報

低氣壓은 北海道及 日本海中部 本州南海上에 잇다 七七미리의 高氣壓은 滿洲로부터 朝鮮에 퍼지고 小笠原島의 海上도 氣壓이 좀 놉다 滿洲와 朝鮮은 맑으며 朝鮮海峽은 흐리다 西日本은 降雨가 잇스며 東日本은 日氣가 良好하다 朝鮮半島의 氣溫은 昨朝보다十度內外내렷다

豫報 今夜 京城地方은 西北風이 잇고 맑으며 多少치워진다 京畿道 全南도 가트며 明日도 今夜와 갓다 昨日最高 [illegible] 今朝最低 [illegible]

運動競技

中部朝鮮氷上 五千米全君優勝

第二回中部朝鮮氷上大會는 豫定과가티 二十六日午前十時半부터 鳥致院丁峰貯水池링크에서 開始되엿든바 이날의 레-스로부터 다음과가트며 二百米戰績은 全基動君이 優勝하엿다 五千米에는

▲二百米‖1 山下 二六秒 2 吳泳學 3 吳基鉦
▲五百米‖1 全基動 一分 2 李德昌 3 山下
▲千米‖1 崔雄燦 二分四二秒五 2 徐廷昱 3 徐宅俊 4 朴[illegible]
▲二千米‖1 李惠鎬五分三二秒F 2 崔雄燦 3 金正錫
▲五千米‖1 全基動 一二分四七秒 2 宮田 3 李基德 4 徐宅俊 5 吳泳學
▲背進百米‖1 金正石二〇秒 2 杉浦 3 申天植
▲背進二百米‖1 杉浦四三秒 2 金正石 3 朴勝完
▲二千米릴레‖1 水原농림四分五三秒五 2 淸州商業B組
▲番外二百米‖1 河黃洲 2 鄭然哲 3 金順燮

卓球協會任員改選

朝鮮卓球協會에서는 今年度 協會役員을 다음과가치 改選하엿다한다 ▲會長 高木 ▲副會長 矢野 ▲理事 石井 堀 藤野 田 ▲常任幹事 深堀 金[illegible] 在帳 申 孝 ▲幹事 佐藤 井 德坂 早瀨 朴鍾德 東山 金山 千葉 小山 白井 (以上)

男女卓球大會

京城運動商會主催와 朝鮮卓球協會後援의 第十五回全朝鮮男女卓球大會는 二十二日(午後一時)에女子部와 男子OB、二十三日(午前十時)엔男子一般部戰을 米倉閣에서 行할터이라는데 申請期日은 二月十五日까지라한다

運動界人事

▲朴鍾傑氏(前中東學校庭球部長) 이번春川高普에勤務

高等法院新判例
水組區域안土地에對한義務에
競買로산新地主에게는 前主義務를不承繼

이십구일 고등법원 민사부에서는 수리조합 몽리구역(水利組合蒙利區域) 안에잇든 토지를 경매(競賣)로서 매수한 사람은 그토지의 전주인의 의무를 승계(承繼)할 의무가업고 수리조합에서 그토지의 전주인에게수리조합비 체납되엿슴을 경매로서 매수한 새소유권자로부터 징수한것은 부당리득(不當利得)이라는판결이 나렷다 그리하야 수리조합비 징수문제에 한가지신판례(新判例)를 짓게되엿다

사건은 시내 삼판통(三坂通)이백오십사번지 사는 등본(藤本)「이소」라는 녀자가 충남서천군서천면군사리(舒川郡舒川面郡司里)에잇는 서천수리조합 대표소송이엿는데 원고등본은 소화륙년십이월에 서천수리조합 몽리구역안에 잇는 김영희(金永□)김영태(金英泰) 두사람의 소유토지 네필(筆)을 전주(全州)지방법원 군산지청(群山支廳)에서 경매로서 대금 사천사십오원을 주고 산는데 그뒤 그수리조합에서는 그토지의 전소유자가 수리조합비 이백오십구원팔십구전을 바치지 안흔것이잇스니 그것을바치라고 독촉하엿다 그러나 원고 등본은 바칠의무가 업다고 거절하엿더니 그뒤에는 또 적체된 그수리조합비때문에 그토지를 공매(公賣)하겟다고 통지가 왓다한다 그래서 전긔 금액을 그 수리조합으로 가지고 가서 공탁하겟다하여도그냥강제로 징수하엿다한다 원고는우선 그토지의 공매되는것을 면키위하야 의사에 흘리면서 돈을 내기는 내엿스나 피고수리조합의 처치는 불법행위라하야 전주지방법원에 부당리득금반환의 청구소송을 이르켯든바 원고의 청구를 기각(棄却)판결하엿다 한다

그래서 다시 대구(大邱)복심법원으로 공소하엿든바 그법원에서는 경매로서 산토지인데 전소유자의 의무는 계승할 의무가 업는즉 피고 수리조합이 전소유자의 바치지안흔 수리조합비를 새소유자에게 청구하여바든것은 부당하다고 인증하면서 그러나 이미 공공단체에서 납부고지서(納付告知書)를 발행하야 임의로 바친것이므로 원고의 공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네리웟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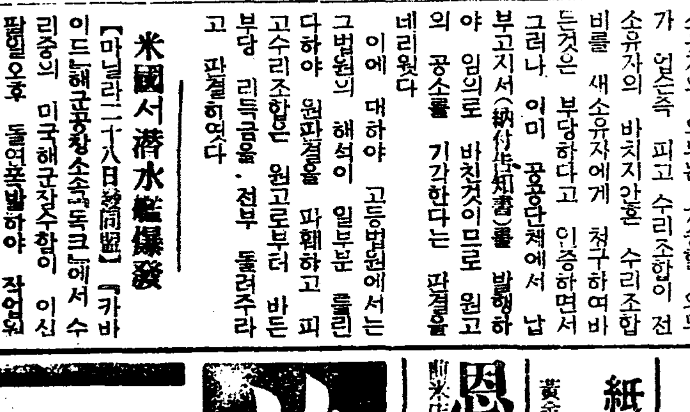
이에 대하야 고등법원에서는 그법원의 해석이 일부분 틀린다하야 원판결을 파훼하고 피고수리조합은 원고로부터 바든 부당 리득금을 전부 돌려주라고 판결하엿다

橫領릴레이競技
終點은留置場

길바닥에서 주어가지고 횡령한 물건을 다시횡령당한 도적끼리의 횡령극한막—지난 이십팔일오후세시쯤되여 한강통(漢江通)십일번지 청료리집 아락원(雅樂園)압해서 중국산동성(山東省) 태생으로 시외 영등포(永登浦)에사는 리성길(李星吉)(二○)이가 전신위체(電信爲替) 이십륙원짜리 한장과 인감도장이 드러잇는 지갑한개를 주서가지고 자긔의 친구 필검증(畢儉增)을시켜서 차저다가 반식난호아 갓자고 보냇드니 이자는 갑작히 혼저서 차저가지고 다욕심이 생겨서 차저가지고 다러나려하다가 바로 룡산서(龍山署)원에게 붓잡히고 말엇다。그물건의 임자는 한강통륙번지의 삼십사호 아비류삼조(阿比留三助)로 압서젓은 곳에서 일허바린것으로 그서에 계출해두엇든것이엿다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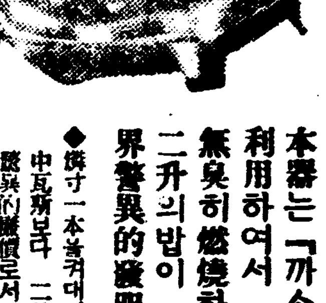
米國서潛水艦爆發

【마닐라二十八日發同盟】「카바이드」해군공창소속「독크」에서 수리중의 미국해군잠수함이 이십팔일오후 돌연폭발하야 작업원사십여명은 중경상을 당하엿스며 폭발은 함내전긔실에서 일어난듯하나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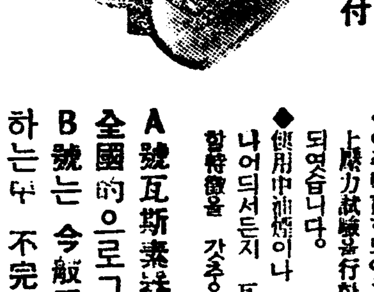


瓦斯나電氣보다便利하고 薪炭보다經濟되는燃料界의一大革命品
專賣特許 瓦斯の素器出現!!

日の丸號瓦斯發生器 A號 定價十八圓 付屬品一式付



日の丸號一九三六年型 B號 定價十六圓 付屬品一式付



本器는「까소링」을 燃料로하야 그特性을利用하여서 自動的으로 瓦斯化하야 無煙無臭히燃燒하야 一時間燃料代僅三錢이며 二升의밥이 八分間이면充分이될수잇는斬新界驚異的發明品이다。

◆寸法 一本燐寸에이고 고동만 틀면 即時瓦斯를發生하여市中瓦斯보다 二倍나 强한열과같瓦斯를이생김니다燃燒는 無臭的無煙으로서 고동하나로 火力의 大·中·小·消火自由로됩니다

◆아주堅實히되엿고 カソリン이드러잇는タンク는七十ポンド以上壓力試驗을行한鐵板으로 酸素溶接하여永年使用할수잇게되엿습니다

◆使用中油煙이나 臭氣업고 掃除不要하여 都會이나農村이나어되서든지 瓦斯器具가필요한곳에 絶對的必需品이 追加로又特徵을 갓추엇습니다。

A號瓦斯素器는 旣爲市場에 多年販賣되여 全國的으로그일홈을날니고잇스며 B號는 今般所長自身이 多年此業에 從事하는中 不完全으로 認定하는諸點을 改良하며 完全無缺하게 맨드러 近間特許를어든器械임니다

四大特長

經濟第一 무엇보다 經濟되는 カソリン을 合理的인 方法으로 完全히 瓦斯化하여 燃燒함으로 燃料界一切를 리-드하고잇습니다。

堅牢至便 優秀材料를 가지고 至極入念히 製作하고 作用微妙하지만 極히簡單한裝置인故로 破損、故障의念慮는 絶對로업습니다

使用簡易 瓦斯同樣燐寸一本으로 點火가되고 고동으로불의 大中小가自由로됩니다。

火力强大 カソリン을 完全히 燃燒식히는故로 無煙無臭는 當然이고 騷音도업습니다。

商工省燃料硏究部發表의此比較表는무엇을證明하나?

燃料比較表

器ノ種別	燃料ノ種別	米二升の飯が出來る時間	同上費用
瓦斯器	瓦斯	三十五分	二錢七厘六毛
電氣コンロ	電氣	四十五分	五錢六厘五毛
木炭用器	木炭	四十分	四錢五厘
本器	カソリン	二十三分	九厘七毛

朝鮮滿洲 各地區域割獨占的專賣特約店設置

絶對로安全하고 燃料界를 리-드할此器를 取扱販賣함은 安全有利한業이오니 同好者는 速速申込하시라 型錄進呈 特約店設置志望할者는 通信次 營業案內를 送呈하며 要求에依해서는 出張員實物을가지고 出張케함

製造發賣元 大阪 日の丸工業所京城營業所 京城古市町 三番地 電話本局(2)一八一六番 振替京城二三八六八番

代理店 合資會社千代田商行

朝報案內

林野放賣勿爲見欺 本人等의 先祖인 楊州郡榆泉面榆村里 林野七一山七二山을 宗中이 守護中인바 近者任○宰가 典執或放賣云하니 京鄕諸彦은 勿爲見欺하시압 任稼宰外二十名

紙箱外交員募集 (給料優遇委細面談) 黃金町三丁目二○三 岡淸之助

恩給 立替低利整理又借換 京城光化門通一四七(光化門郵便局前米店後) 朴商會

[illegible] 男女適任 不問有經驗未經驗 [illegible]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性器强大靈藥

滿洲國安東縣 安東郵局私書函第六號 振替口座京城一三〇三八番 滿蒙特産物商會

せきに コデテン

【適應症】 感冒、小兒喘息、氣管支炎、結核性咳痰及一般咳嗽喀痰

甘味로服飮키쉬운シロップ劑로好評!!

特徵
一、サポニン、コデイン、ブローム의綜合的藥理는 鎭咳祛痰의効果奏効
一、咳嗽에併하야解熱作用을併備、더구나副作用이업서安全
一、芳香甘味のシロップ劑로서服用이便利、作用溫和、効果迅速함

各地有名藥店·百貨店藥品部에잇슴 三十錢·五十錢 一円·二円 三円

發賣元 大木合名會社 東京市芝田村町 大阪市東區道修町

黑風 【239】

韓龍雲 作
王熊超 畫

참사랑(廿三)

『그러면 짜른 시간에 혁명을 하고 긴 시간에 사랑을 하자는 말슴이가요?』

『그럿슴니다』

『그러지말고 짜른시간에 사랑을하고 긴 시간에 혁명을하얏스면 더욱 조치 아니할까요』

『그게야 더욱 조치오』

『그러면 청춘은 짜르고 백발은 긴것입니다 짜른 청춘을 사랑으로 보내고 백발이 되거든혁명운동을 하겟슴니다』

…하야금질겁지 못하게 하… 왕한이가 말을 주저하는 일 제가 업섯다면 어찌할 하셧서요?』

창순은 하랴든 말을 잇든듯이 …하야 말하얏다

『창순씨가 아니더면 무론 혁명운동을 하겟지오 나는실로 혁명운동을 나의 생명보다 더 조아하는 사내입니다 그러나 창순씨를 사랑하는것은 그 이상인데야…… 그러나 저러나 이 다음부터는 우리 그런말은 고만둡시다 쓸대업는 말로 심사만 어지럽게 하는것이 무슨 소용이 잇나요』

『그러면 청춘과 백발을 합한대도 인생의 백년은 얼마되지안는 짜른 시간입니다 일생의 짜른시간을혁명에 종사하고 그다음의 영원한 미래를 사랑의 시간으로 하는것이 더욱 조치 아니할까요?』

하는 창순은 얼굴빗이 고처지면서 창연한 빗을 띄엇다그 말은 의미는 과도하고 어조는 날카롭고 기색은 초연하야서 왕한은 조금 불쾌한듯 하얏다

『그럼 이다음부터는 그런말좀 하지안치오』

하는 창순은 노아보낸 새장을 떼어서 치어노코 뜰에 나려가서 바람에 나부끼는 코스모쓰를 만지면서 녀일은 사람처럼 무엇을 생각하얏다

가을달이 서편으로 기우려지고 바람소리가 놉호면서 나무입새를 되는대로 떠러트리는 어느 날 밤이엇다 창순은 예업시 술을 사다가 왕한에게 권하얏다 창순은 아모리 자기의 기색을 감추랴고 주의를 하얏지마는 감추어도 다 감출수는 업는것이 잇다

…의 마음을 도리킬수가 업스리라고 생각하얏다 그새이의 모든 방법은 물거품이 되야바리고 미래에도 또한 그러하리라고 단정하얏다 그러하면 최후의 한 방법은 자기가 죽어서 왕한으로 하야금 혁명에 종사하게 하는 한길박게 업다고 생각하얏다 왕한이는 자기만 아니면 밧듯이 혁명운동을 할것이고 혁명운동을 하며는 밧듯이 성공하리라고 밋는까닭이엇다 마일 왕한이와 가치 사랑의생활만을 계속하야서 초모괴가치 썩어버린다면 왕한에게도 불행한 일이오 자기도 한낫 아녀자로서 아모 하염이 업시 남편의 품속에서만 늙어버린다는 것이 본의가 아니엇다 자기가 왕한이를 사랑하게 된것도 다만 이성으로서만 사랑한것이 아니라 그가 장차 천하대사를 경영할만한 사람으로 국가를 위하야 일을 하는때에는 자기의 정성과 피땀을 짬〃서라도 그를 도아주겟다는 남모르는 희망을 가젓섯는대 그와 반대로 자기로 말미암어서 순전한 딴길로 가게 되는바에는 차라리 자기의 몸을 죽여서라도 국가를 리롭게하고 남편을 명예스럽게하는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 하얏다

죽기로 결심한 창순은 왕한이가 보지안는 틈〃이 양복에 솔질도하고 구두를 닥거 노으며 다른 행장을정돈 하야서 왕한이가 나갈때에 편리하도록 만사를 주도하게 준비하얏다 그리하고 취후로 왕한에게 주는 유서를 쓰게되얏다 아모리 철저한 애국자요 철석가튼 심장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창순이지마는 유서를 쓰는때에는 쓰다가 몃번이나 찌저버리고 눈물을 얼마나 흘녓는지는 알수가 업지마는 또한 짐작할직도 한 일이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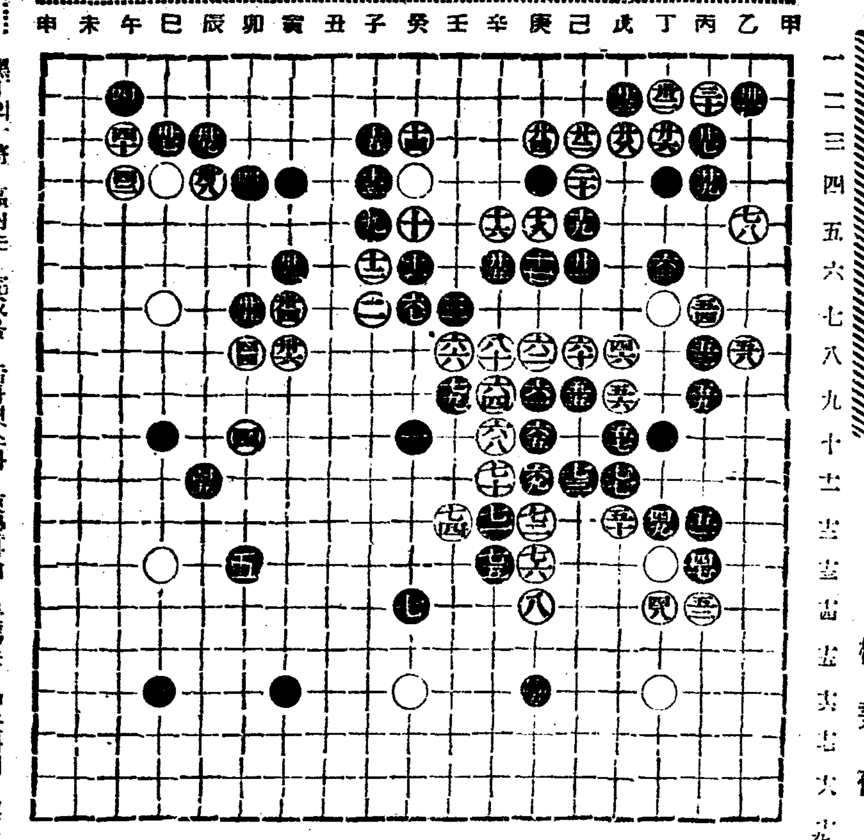
曆

一月三十日(木)
正月建庚寅大(初七日)
辛亥 金 非 開
●祭祀에宜합
●立春五日(舊十三日)
●雨水二十日(舊廿八日)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5＝

白 丁奎春
黑 權秉郁

●庚의十 ○壬의八 ●癸의八 ○辛의十 ●庚의一 ○辛의一 ●庚의二 ○辛의二 ●己의二 ○壬의二 ●辛의三 ○庚의三 ●戊의一 ○乙의五 ●壬의九 ○辛의八



◆棄權文談

黑丁의十將 區內는 完成을 告하엿스나 東邊巳角 長馬는 中央까지 連結하엿스되 願愛는 快技치못하엿다 白은 乙의五로 着치말고 癸의七로 斷하야 黑巳角을 放生하고 中央機關을 總括함이 元素일가 하노라 黑 邊危險이 尙此際存하니 展開如何를 逐次 一覽할지어다

一月二十九日より二月四日まで 上映時間表 ひるの部 夜の部
松竹ニュース [illegible]
音樂映畫 カルメン [illegible]
箱根八里 [illegible]
人生のお荷物 [illegible]
松竹漫畫ニュース [illegible]
▲眼と耳の新聞
音響映畫 ▲カルメン 伯林國立オペラハウス、オーケストラ エバーハルト、フログイン指揮
▲箱根八里
▲人生のお荷物 五所平之助監督 田中絹代、齋藤達雄 吉川滿子、葉山正雄 蒲田オールトーキー 東京映畫コンクール出品作品 市川右太衛門、佐久間妙子、
結婚適齡期の御子樣をお持ちのお父樣お母樣に是非見て戴きたいのがこの映畫。又結婚適齡期の方方にも少くとも『人生』を目にする方方には見落せぬ作品

浪花館 日活映畫 一月廿九日부터 特別大奉仕 每日三回 正午後一時半六時半 ○西班牙코럼비아超特作映畵
怪傑데아부로 필난드·모·펜레스監督 라모빼레다、루피타깨란드 主演 風雲의新大陸에正義의칼을잡고舊邦한데아부로의聖戰!出演의珍獻 氣品과藝術의香氣에싸인西班牙映畵의精華! ○코럼비아超特作映畵 크로뎃、콜베르主演
社長은大人을조와한다고 名編『어느날밤에생긴일』을좀더 재미잇게、스마트하게、愉快하게 꾸며본다면?꼭그맛이카!痛快맛과 맛찬가짐것입니다 ○日活提供映畵
極東の嵐 一次週特別公開一 結婚十分前、多彩한女性

團成社 電光 二九 全鮮第一映畵殿堂
(夕期待아리랑第三篇、桃源境、暗黑街의집、만레地獄篇스캔달卅五年目體의女王、海國의名聲、들窓、흥상한동무、쿠카라자、惡夢、노라난公主、리리옴、男子의魂
○一月二十七日낫부터(舊正月初四日)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낫一時밤七時十五分始映! 萬人待望의三大特選名畵大會 新春새해의銀幕을자랑하는映畵 ○에기지비다ー스映畵社超特作品 西部大冒險 肉彈挺身隊 前後十二卷
主演…켄메나드氏 不義를打倒하는힘이雷霆처럼가스다亂暴한惡黨을물니치고前陣의우는사람을爲하고사랑을爲하야高調……正義를絶叫!快力亂麻를斬捕하는 이映畵果然? R·K·O·라듸오超特作 全發聲日本版! 探偵大活劇 流血怪賊團 全七卷 監督…죠ー지·아잔보氏 主演 비부다니엘스孃 벤·라이온氏 日本敎育映畵社督及會作品 人情喜劇 和製차푸링의 活動狂時代 全五卷 主演……柳妻藏三郎氏

桃花劇場 麻浦桃花洞 電龍二三番 全發聲 漫 諧 全一卷 在來記錄粉碎!續映!又續映 一月二十七日브터特別大公開! 코럼비아超特作全發聲西部大猛鬪篇 람바ー드히리아氏監督 單騎猛進 快漢박크죤스氏大熱演 리나바스켓드孃助演 萬丈의紅塵이捲起하며亂鬪의狂風裡에突然疑問의殺人事件!骨鳴肉躍!亢鬪!追擊!逆襲의大活劇과冒險은展開한다 파社超特作全發聲百萬弗의太陽篇 十字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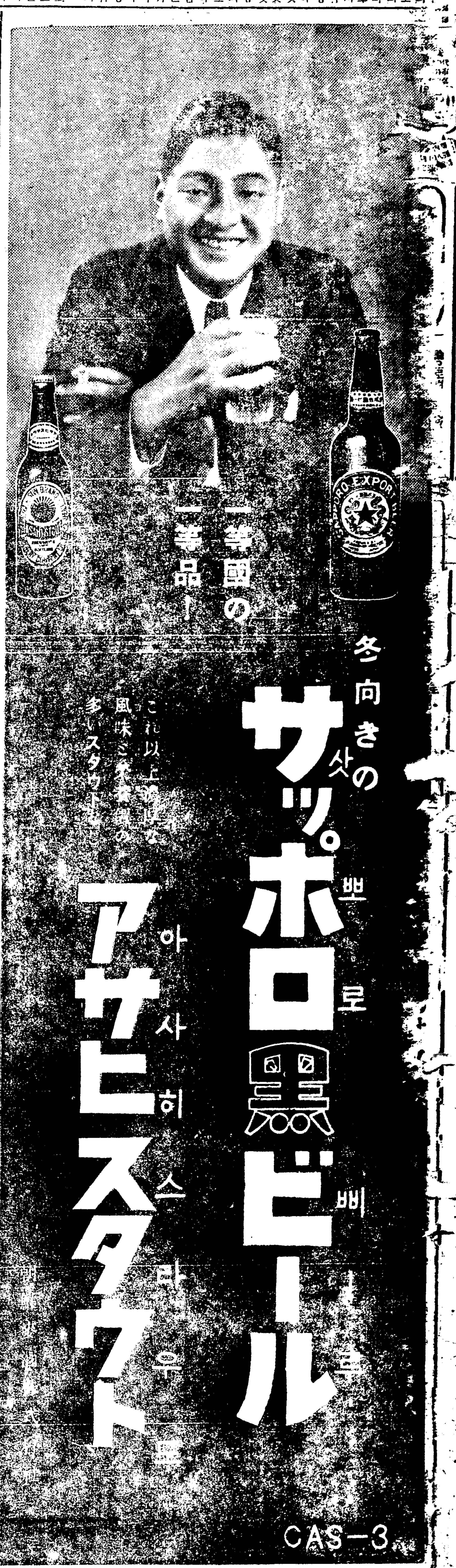
巨匠세실B대밀氏大作 로렛다양그孃主演 헨리윌콕손氏主演 屍體의山과피의바다를일루며鐵肉强食의貪慾時代를歷歷히描寫한西曆十二世紀의延延二百年十字軍의歷史篇!滿都팬諸賢의熱熱한渴望으로續映!續映 大ško特輯全發聲全卷 國際뉴ース 大豫告 一月三十一日브터萬人待望의人戰爭篇類猿人다ー산復讐를凌駕할다ー산의新冒險 乞期待! 貫鐵洞 電光三九五 優美館

當る廿八日より同時封切 京城映畫界未曾有の壯擧!時代劇覇王三大巨頭の對立阪妻·千惠藏·寬壽郎の大顏合せ中央館御正第二陣特別大衆名畫競映大會 階下席 廿錢均一 新興キネマ提供 寬プロ超弩級時代劇 原作 佐佐木味津三 脚色 梶原金四郎 監督 並木鏡太郎 右門捕物帖の內 二百十日 嵐寬壽郎大熱演 助演 川島千惠子、嵐德三郎、松本田三郎 新興キネマ提供 阪妻谷津プロ超弩級時代劇 雜誌 日の出連載 原作 上師淸二 脚色 多陀慶三平

監督 山口哲平 女 禁 制 阪東妻三郎 森靜子 主演 助演 堀川浪之助、橘花子、岡田喜久也 新興キネマ提供配給 日本映畫配給會社提供 千惠プロ超弩級時代劇 原作 山上伊太郎 撮影 靑島順一郎 監督 村田實 オールトーキー 情熱の不知火 片岡千惠藏 主演 助演 志賀曉子、瀨川路三郎、田村邦男 永樂町 電本二三五二 中央館

(舊正月二日)부터 靑春座第二回公演 (晝間午後一時 夜間午後七時 부터) 新唱劇 春香傳 全二幕八場 崔獨鵑脚色 다만豪華한舞臺面으로만여러분을 끌여는卑俗한演劇을피하노라、이번劇本에는나단春香의 貞을 맺치인純潔한사랑이、과道사히여금內容으로부러잇슬것보다는이러한의氏脚色의妙技를感映치안케하는수업슬것입니다。
|配役| 春香…黃 激 夢龍…沈 影 房子…朴 齊行 月梅…徐月影 香丹…金鮮英 …장님 ……
悲劇 李雲芳作 命은다어머니 全二幕 노름군의妻로가진苦難을겪다가、내하나인、귀여운永信이를위하야 한평생을、서울、우리고、사내에게니되안 호고、딸을가려진김봉은무엇보다도 안는다。떳지안는것
|配役| 惠順…南宮仙 永信…金鮮英 萬洙…徐月影 德龍…卜元圭 興吉…朴齊行
喜劇 九月山人作 七八歲에도戀愛하나 全一幕 演出…洪海星 舞臺構成…鄭泰星 李雲芳
竹添町一ノ 電光三二四 東洋劇場

一月廿七日낫부터(舊正月第二週特別興行)
每日三回興行午前十一時午後三時同七時始映
大衆料金 階上席卅錢 階下十錢均一
新興키네마社超特作品을싸운三版
野村胡堂原作 伊藤大輔五郎監督 時代劇 江戶の坩堝
大谷日出夫 鈴木澄子 主演
野村胡堂先生의原作!卍字와가리大江戶를背景으로人間情과와忠義의一敵의大劍을들고神出鬼沒의大日田大와澄子龍演傑作時代代劇!
佛國옷소ー社超特作全發聲版 스드리쥬스키監督 戰爭活劇 모록코의가을 (無名戰士)
燦爛한軍人精神의精華!大曠野에激戰!敵陣潛入!砲聲!金色의充滿한非常時代股肱武傑!사랑!許情香氣로운땅에無名戰士斷腸悲哀의感涙篇!를버린 올스타ー후이쥬아ー社特作無聲版 울니암공쿠링氏監督 새벽의銃聲
도ー마스바ー그氏主演 次週豫告 朝鮮映畵洪吉童傳 新興やどり木
여러분의 鍾路四丁目 電光一二五五 第一劇場



11.1.30 CCCLIBRARY

間島紹介版

四千年前、肅愼舊居 歷代英雄의發祥地

過去의因緣도매우기거니와 未來의期待가더욱크다

由緒기픈 間島沿革

間島는 距今四千年前肅愼族이 狩獵生活을하고잇엇스며二千六百年前까지는 肅愼의後裔挹婁族이 原始農業會社를建設하고잇다가 漢以後扶餘에 臣屬되엇다

紀元前一世紀頃 極東一國에 强大한 高句麗帝國이 建設되매부터 五百年間 間島는 同帝國의一部엿스며 帝國이 瓦解된後에는 肅愼의後裔靺鞨族이 割據하고잇섯다 그後에高句麗遺民大祚榮이 唐軍을擊破하고 滿洲一帶露領沿海州 朝鮮北半에 連는 渤海帝國을 建設하엿슬때는間島는 五京의一인 南京南海府 或은東京龍海府엿섯다하며 日本과新羅渤海三國交通의 要路여서 相當한文化가 開花되고잇섯다 渤海國은 千年前 蒙古族의一派 契丹의遼에게 滅亡되고 渤海人은 大部分高麗에 歸化하엿다 當時의間島는 女眞族의 割據地帶엿스며 高麗文宗王(一〇八〇年代)때에 여기에 十五州를 두엇섯다 高麗十六代睿宗(一一〇七年)때에 東女眞이 反逆을 이르킴스므로 高麗名將尹瓘이 十七萬大軍으로 擊破한 史實까지 잇다 女眞은渤海의遺民으로서 遼의政治的壓迫에 不平을 품고 再起를 圖하고 잇슬때에 新羅의遺民 完顔氏(왕의意)가 間島地方에 와서 布爾哈通河岸에 살고 잇섯다 그의後裔阿骨打라는英雄이 女眞族을 거느리고 一一一四年 遼를 擊破하고 先祖의姓(新羅王金氏)을 國號로하야 金國을 建設하야 北京에 首都를 定하고 支那本部六省 滿洲蒙古에 이르는 大帝國을 建設하엿다

新羅王族의 後裔들은 燦然하던 新羅文化를 極東大陸에 再建하고 産業開發에 努力하엿스니 哈爾賓東方의 女眞族이 完顔氏移住後에 처음으로 殺作樹藝築室棟宇의 制가 잇섯다는史實은 그를 立證하여주는것이며 그들은 故國을 그리워 祖國의册名인 雞林을 地名으로 하엿스니 오늘의 吉林이 곳 그것이다

×

이가티 朝鮮民族이 江南에 國의 微微한 存在를 남겻슴에 反으로 西細亞大陸에 强大한 帝國을 建設하고 잇슬 當時의間島는 十四總管府의一인 海蘭路總管府의治下에 잇섯다 平岡平野에 疑問의 存在를 가지고 잇는 東古城子 西古城子는 總管府開府의 遺跡이다 龍井總領事館에 잇는 石虎 石羊은 東古城子에서 가저오든當時의遺物이며 지금 兩城趾에서 發掘되는 鋼田瓦片은 燦然하던 先人의 偉業을 回想케하는것이다

金帝國이 衰退하여가던때 一二一三年 怪傑滿鮮萬奴가 遼東에서 反旗를들어 間島地方에東眞國을 建設하고 高麗와 接境하고잇다가 二十年만에 元에게滅亡되엇다 그런데 同國의 首都南京城은 局子街의 東方 城子山城說과 龍井東興村의 古城趾說의 二說이잇다

李朝의發祥地

一二〇五年蒙古族 成吉思汗이亞細亞大陸에 大元帝國을 建設한지 二十九年만에 金國이 滅亡되엇으며 그때의 間島는 開元路의 所屬이엿다 元은 南京開元二萬府를 두어서 女眞을統治하엿는데 오늘의 城子山 龍井의 河西城趾가 金末元初의 南京城趾라고한다 李太祖의 五代穆祖가 南京五千戶 所達魯花赤(斷事官)이엿으며 社稷繼承의桓祖의 次子가 李太祖이다 女眞統治에 功名을놓인 李成桂가倭寇討伐에 武勇을 떨칠때에 豆蘭이란 사람의 功勳이만핫슴으로 姓李를 주엇다 이같이 間島는 李朝五百年의 發祥地이다

一三六八年明建國以後 豆滿江流域에는李朝明朝의 衝突이不絶하엿스며 間島는亦是 女眞族의居住地엿다 明末間島의 行政區域은 延吉의建州衛와 布爾哈通衛 汪淸의阿布達哩衛 和龍의育金河衛琿春의琿春衛와密札衛엿다

淸朝의發祥地

淸朝始祖 奴兒哈赤은 渤海의後裔 建州女眞의一族으로 間島에들어와잇다가 다시 會寧谷地에들어간 韓朶里族의後裔이다 그런데 淸朝의先祖愛親覺羅氏의 愛親은中國으로金이요 覺羅는 朝鮮語 『겨레』의變音 則金族이라는말이다 그러다면 淸朝의始祖는 新羅의王族 高麗의亡民으로 間島에서 興起한完顔(金國의王朝)의後裔가아닐가생각되는것이다

×

明末淸初의間島에는 野人女眞(三女眞의一)의 蟠居地엿는데 淸太祖가 여기를占領하고 女眞全部를 거느리고 西으로간後에 豆滿江北은 無人의曠野로 化하엿다 이가티淸初의間島는 南荒圍場이라는 一狩獵地엿는데 朝鮮의侵入을 두려워하는 淸太宗은兩國國境에 空間地帶를 設定하고封禁嚴守를 相約하고 全部族을 引率하고 關內로들어갓섯다

淸境界는 不分明하엿으나 間島는 無人地境으로化하야廢墟엿던 歷代의文化의 廢墟우 野獸의우름소리만 들니는 帶로 化하기始作하엿다 不分明한 國境을 確定 淸國政府는 一七一二年 境界査定에 着手하야 白頭山 池에서 東南十支里平地點에 定界碑를 建立하기는하엿으나大淸國의 專橫的國境設定은 不滿의絶頂이여서 눈물을 먹음고默認하가운데에서 施行되엇다定界碑의 設立後 百六七十年間即距今五六十年前까지는 間島一帶는 密林이鬱蒼한 無人의空地엿스며 狩獵業者採取人 以外에는人影이업섯다 萬若國境을 넘는다면 朝鮮政府에서는 저有名한越江禁令에 依하야 死刑의 嚴罰까지하엿다

×

그러다가 一八六九年即 己巳年 北朝鮮一帶에는 未曾有의大凶年이들어 翌年庚午年에는 餓死者가 不知其數엿고 人肉相食의 慘狀을 이루엇다 그들로죽기는 一般이라 죽엄을覺悟하고越江禁令을 突破하고 豆滿江을넘어들어 荒蕪地開拓에 着手하얏으며 後에는 地券交付까지지政府에서 어더가지고 開墾에努力하엿다 淸國政府에서는 移住同胞를 新附民으로 取扱하고易俗依風을 强要하는 同時에 光緖八年(一八八五年)韓國政府에覺書를 보내어 移住民의 淸國府에의隸屬과 越江禁令의 實行을主張하자 韓國政府에서는 移住民送還을 要求하엿다 그러나移住民은 歸還을 不肯할뿐아니나定界碑에 『東爲土門』이라하엿스니 土門以東은 朝鮮이며 十門一 豆滿江이아니라 松花江에흐르는것이니 豆滿江北은 韓國領土인것을 上訴하엿다 韓國政府에서는 實地調査後에 十門以南은 韓國領土이니 韓民送還의不必要를 主張하엿다 이리하야間島所屬問題로 二十六年間 紛爭을 繼續하엿다 그러는동안 移住民은 逐年增加하엿스나 淸國官憲의 無理橫暴은 날로激甚하여젓다

×

其後 兩國政府는 勘界使를派遣하야 前後二回에이르러 實地立會調査를 行하엿스나 山水形勢와 定界碑所在地의 地勢等이韓國側에 有利하게되자 淸國側은 大國의權威로써 無理抑壓하면서도 自己主張의 無理함을 깨닷고 邊界勘査하려오것이지 國境決定하려온것이 아니라는辯明을하게되고 韓國勘界使李重夏는『나의목을비여도 우리國土는 주리지안켓다』고하야 決死的抗爭을하엿다 交涉의失敗後 日淸戰爭이 이러나고 一九〇〇年 北淸事變이 發生하야 淸國의國力이窮弱하여지자 一九〇三年 韓國政府는 有名한李範允을 派遣하야 實地調査를 命하엿다 調査한結果 移住民이數十萬人에달하며 淸國의壓迫이 酷甚하기짝이업스므로 李範允은 北邊間島管理使가되어 (忠義隊의勢力을 背景으로하고 私砲隊를 組織하고租稅를徵收하야 淸國에 納稅義務가업음을 聲明하엿다

그러나 日露戰爭의 뒤를이어一九〇五年 日韓協約이 締結되고 韓國의外交權을 日本政府에서 옮겨간後 一九〇五年八月統監府派出所가 龍井에開設되엇다 淸國政府에서는 先祖發祥地인만큼 日本에 讓步하지안코잇다가 一九〇九年九月 北平에서 安奉線改築問題와 間島問題로 間島協約이 締結되어 間島는淸國領土로 決定되고 統監府派出所가 廢止되고 龍井에는 日本帝國總領事館이 新設되엇다

×

一九一一年淸朝가 倒壞되고中華民國이 建設되엇으나 間島의政治機構에는 何等의變化도 업섯슬뿐아니라 無理한 中國官憲의 橫暴와 中人地主輩의 苛酷한搾取는 더욱激甚할뿐이엿다또 一九一五年日中兩國間 滿蒙條約이 締結되어 在住日本人은商租權을 엇엇스나 間島在朝鮮人들은 間島協約에 依하야處理할것이라는 中國의主張으로移住同胞의 살길은 더욱漠然하엿다 이땅의 開拓者는 越江禁令을 突破한後 豆滿江을 넘은무그들이엇마는 生活權利를 일흔무리가되고 말엇스니 神은自助者를 도우고야 말엇겟다

一九一九年三一事件當時의 民族運動과 其後의共産運動에 對하여서 約하여둔다

中華民國當時에는 間島四縣外四縣우에 道尹을 두엇섯는데一九三一年事變後 여러가지로 變하야三四年十二月一日 十四省의一로되엇다 以下略

朝鮮人을本位로한 理想的行政機構

李參事官功績이크다

和龍縣은 朝鮮人中心의 和龍縣인만큼 縣行政機構도 朝鮮人本位로되어잇다 縣全體가 一種의自治制로 되어잇으며 縣의最高指導者인 參事官이 李東爽氏로 朝鮮人參事官으로는 全滿洲國에서 오즉 한사람뿐이며 氏外 全行政機關官吏의 大部分이朝鮮人으로 構成되어잇다 다른縣에 比하야 이가티 朝鮮人官吏가 만흔것은 朝鮮人發展을爲하야 甚히慶賀할바이다 特히李參事官은 在滿朝鮮人問題에 깁흔研究와 犧牲的活動을하고 잇으며 同縣內의移住同胞에 對하야는 熱狂的歡迎을밧고잇으므로現住民은 勿論 將來十萬移住民에잇어서도 全幅的 援助가잇을것으로 期待된다

그런데 縣組織槪要는 다음과갓다

縣長 ― 參事官
- 總務科―各股(科)
- 內務局―社五―甲(各)
- 警務局―警察署五―分駐所二―派出所五
- 財務局

이組織中에 社는 朝鮮內地의面事務所와恰似한것이며 甲은村落本位로되어잇다

그런데 縣組織機構가 全體로一大協同組合形態를가진 自治制度로되어잇서서 行政 警察 敎育等一切事務를 自治處行하고잇다 따러서 官公吏의俸給도 縣長參事官 日系官吏以外에는 모도다縣費로支拂한다

特히 李參事官은 滿洲國의模範的行政官으로 一般住民의 福利를 爲하야 獻身的活動을 하고잇스므로 一般住民은 特別한惠澤에 浴하고잇는바 其中一二例를들면 滿洲에서 民衆의最大支出을 차지하고잇는 稅納을 輕減시키기爲하야 氏는 昨年三月에 保甲連座法(國法)을第一먼저實施하야 社長이保長을 兼任케하야 官吏俸給의減少에依한 人民負擔의 輕減을 斷行하엿스며在來分離되어잇서 發展上支障이만튼 行政機關과 警察機關을合致시켜 그의合理化를 圖謀하엿고 또한 特記할것은 滿洲國은食鹽이 滿洲國專賣制로 되어잇서 質이極히 粗惡한官鹽一斤에十三錢이란 殺人的高價를 이루어 一般住民은 極히不利한立場에處하여잇는바 氏는 多少라도이것을 住民에게 有利하도록 便宜를圖하고저 研究努力한結果在來 一般商人의 中間利得을 排除하고 住民에게 廉價로 이것을 供給하기爲하야 縣當局에서官鹽一手販賣를 各社에 實施한以來 一斤十三錢을 十錢으로減下供給하게되어 和龍縣內一年間住民의 利益이 實로六萬圓을超過하엿다한다

今年度 全間島大豆 共同販賣에 잇어서도 他縣에는 成績이不良하고 一般의非難이 만헛지마는 和龍縣만은 成績이良好하야 一般의歡迎을밧고잇다하며이가티 保甲連座法에잇어서 全滿의 模範을 끈고 其他各般의 善政을 實施하고잇으므로 現住民은勿論이오 將來移住民에게도 特히 有功할것을밋는다

移住同胞狀況

住民은九割五分 所有地는八割强

總面積一千六百八十方里(朝鮮의約十分一强) 全住民一萬九千戶十一萬人으로 其中朝鮮人戶數一萬八千戶十萬五千人滿人一千三百戶五千人日本內地人九十二戶二百三十八人이다

以上의 人口統計만 보더라도 和龍縣은 朝鮮人의 和龍縣임을 넉넉히알수잇다 住民의 生活手段을 一瞥하면 滿人은 大部分 小都市에서 商業에從事하며 農業에 힘쓰는사람이적고 大槪는 地主들이여서 實際農民은 적은便이다 그러나 移住同胞는 거이 全部가 農民이여서 富源의 開拓에努力하고잇다

그들의 耕地面積을 보면 田賦地(民有地) 所有地)에잇서서 全人員一萬三千人其中에朝鮮人一萬二千五百人이며 全面積四萬九千晌(一晌=一千八百坪)인데 朝鮮人의 所有가 四萬一千晌即八割四分나되다 또한 學田地(縣所有地)인것은 農民에게縣에서 貸附하는 土地로서 人員二千九百 面積八千二百晌인데 其中朝鮮人의 現況은 人員二千六百面積七千晌即八割六分이다

所有地의一人當所有面積은 朝鮮人은三晌平에인데反하야 滿人은十二晌平均이다 그러나學用地에잇서는 그러케差가甚하지안타

文盲은不過半數

敎育도朝鮮人本位

間島는 一般으로 敎育이 習及된곳이다 銃劍에 시달니고流浪의 身勢를 지으면서 子弟敎育에 잇서서는 世界에서 그類가 업슬만큼 全力을 다한다 特히 和龍縣은 民族運動과 共産運動이 熾烈하던 地帶엿으므로 文化普及은 相當히 發達된곳이다 一時에는 어린아해면글을 모르는 아해가 업슬만큼先驅者의 活動은 컷엇다

在住朝鮮人 十萬六千人中에 文字解得者가 三萬八千百餘人이며外國語解納者가 一萬一千二百餘人으로 在住民의 約半數가되다完全한 調査를한다면 全移民의六割以上이 文字解得者일것이다文字解得者가 全移民의 二割에不過하는 朝鮮內地에 比하야엇마나 發展된 그것이랴! 現在縣當局에서도 朝鮮人敎育問題를積極的으로 努力하고 잇는까닭에 學校數 九十六個所에 達하며 學齡兒童 一萬七千名中에그의 約半數인 八千六百名이就學하고잇다 이것을細別하면 다음과갓다

縣立學校一二校 高級生二四二人 初級生 二、三三四人 私立學校一七校 高級生三三六人 初級生一、三七七人 補助書堂(總督府經營)二二校 高級生二九四人 初級生二、二七三人 私塾(民間有志經營)四三個所 朝鮮兒童八二四八滿人兒童一二〇人 民衆學校(昭和講習所로 大槪六個月間)二一校 四八二人 以上高級生七七八人 初級生七、八〇一人이다

그리고 敎員은 大部分이 朝鮮人으로 一例를들면 滿鮮兒童이 共學하고잇는 縣立學校長十二人中 朝鮮人校長이 九人이며敎員五十七人中 滿人敎員이 不過十三人이며 또한其他學校及書堂所는 全部가 朝鮮人이다

完備된警備陣

治安은間島第一

間島는 共産黨을 이야기하지안코는 間島事情을 말할수업슬만큼 共産黨의存在는 컷섯다 世上을놀내게한 五三〇事件과 間共事件은 아즉도 世人의記憶에새롭다 나날이 各新聞紙上에 大書特筆로 揭載되든 共匪云云은그의 活動相一面의反證이 아니고무엇이랴? 그들은 昨年까지 所謂소베트自治區域을 堅守하고잇다가連次의 大討伐에依하야 重要根據地를 빼앗기고 大部分密林地帶로 後退하얏다고한다

和龍縣은 地理的으로 軍事活動에有利한 大密林地帶와 平原幽谷이 만흐며 朝鮮과 隣接하고잇는關係로 朝鮮人의 移住史上 가장因緣이깁흐다 따러서過去의 民族運動과 共産運動 乃至反滿抗日軍의 活躍도 全間島에서도 가장 猛烈하엿섯다 저有名한 庚申年青山里大戰도 和龍縣의 西方老嶺山脈의 險谷에서 發生한 事件이엇스며 和龍縣서 가장完全하고 第一人口가만히 살고잇는 靑波湖 平原中央에 잇는 三道溝市도 昭和七年五月 反滿軍 六百餘名이 當地 滿洲國 軍警과 合勢 猛襲하엿스나 全市의 大部分은一時에 灰燼되고 數만흔 人命은銃劍의 밥이 되고만 일이잇스며 連하야 翌年 大襲擊을 當하야 日本軍警 十五名의 戰死者를 내일이잇다 所謂 都市에서 이가튼 事變이 連發되는만큼 和龍縣의 西方은 共軍과匪賊의 活據地엿스며 隣接된安圖縣은 그의本營이라고 할만큼그의勢力은 컷다고 한다

그러나 昭和九年以後의 日滿軍警의 大大的討伐工作과 滿滿國의 警備陣의 整齊에 依하야現在에는 間島에서 第一騷亂하던 地帶가 間島에서 第一먼저治安이 整理되엇다고한다 이가티 治安工作에 全力을 다한 和龍縣內警備機關은 行政警察 森林警察 自衛團의 三種으로되어잇다

和龍縣 行政警察의 現在狀況은 官署總計三十七 警察官數四百七人인데 그中에 朝鮮人이絶對多數인 三百二十八人이다

그리고 森林警察隊員은 警佐(警部)以下 八十人으로 그것은全部가 朝鮮人으로 되어잇는데그것은 未開墾地를 調査하야 開拓을 援助하며 森林採伐에 警備의 任務를 實行하는外에 鑛脈의探査 又는 採鑛에努力하는間島固有의 特別部隊이다

또한 自衛團의現況은 全縣內六十三個所 人員數昨年十二月現在數가 約五千人에 達한다 이自衛團은 共軍兵匪의 襲擊防備를最大任務로하고 主로農村靑年으로서 組織한 武裝軍이다 그들은 日常武的訓練을 밧으면서要所要所에 關塞을 堅固히하여두고 監視하다가 一段襲擊을밧을때에는 決死的으로 抗戰 한다이가은 完備된 警備陣을 치고잇다

十倍가未墾沃地

地價無償同樣

現耕地의 十倍가 아즉 未墾地로 잇는것을 모르는 移住民들은흔히 豆滿江下流地方만보고 이곳에는 未開拓地가 업는줄만안고그저北으로北으로 가는수가不少하다그러나 이곳의 學田地即縣所有地 現在耕地面積이 八千晌으로 아즉도 그의十倍인約八萬晌의 肥沃한美地가 남어잇다이學田地는農民에게 永代小作權을주어서 耕作케 하는것인데地價는 大槪肥沃하야 一晌當年收穫이 平均五石(時價五〇圓)으로 縣에納入하는 稅納이 全收穫의一割平均이며 自作農은 國稅 地方稅 社賦加稅 都合一晌當二圓假量된다 이것만 보아도苛歛誅求를 일삼는 民國時代보다 얼마나 有利한가는 可히알수잇는것이다

破局的低廉한地價! 이것은和龍縣地方의 特徵이다 奧地로가면 갈사록 廉價로살수잇다 이곳事情을 모르는 사람들은 危險地代의 荒地로만 曲解할는지도모른다 그러나 絶對安全을가진 治安狀態와 豊富한 地味를가진 沃土를 본다면 그의不可思議的別有天地에 놀내지안수업슬것이다 이와反對로豆滿江下流地方은 朝鮮內地와 別差異가업슬만큼高價인것을 附言하여둔다 그런데 沃地開墾에 잇어서至大한便宜를 目下當局에서圖하고잇스니 그것은 適當한 開墾希望者에限하야는 沃地를特히目下所有地인 學田地를 無償讓渡하여주는것이다 開拓者여! 和龍縣으로! 의스로! 갓는縣當局의當面標語의 하나로되어잇다

山明水麗한處女地

十萬移民을부른다

豆滿江北의 處女地! 無盡藏의 沃野! 여기가 和龍縣이다 峯山長白山脈은 和龍縣과 安圖縣의 境界에서 東으로 뻐처서黑山嶺山脈을 이루고 北으로갈너저 千古未踏의 老嶺山脈이되엇스며兩大山脈은 또다시 枝脈을벌니고 密林속에서 흘러나리는淸江玉流는 흐르는곳마다 肥田沃土를 만들어잇다 和龍縣의山水야말로 廣漠한原野 無窮의胡地와 달너서 三千里錦繡江土와恰似하며 山谷으로 深入할사록廣闊한沃土가 一大盆地를形成하고잇슬뿐아니라 山谷이險峻하지안하므로 大槪는 二十度乃至三十度의 傾斜이여서 耕作하기에 容易한 天惠의富庫이다 鬱蒼한美林도 朝鮮의그것과 가터서 쓸쓸한 北國만을 聯想하는移住同胞에게 잇서서는 可驚할만한 未來의 安住地이다

氣候조차 農作에有利하야 玉土美地는 大槪 山間溪地에잇는關係로 早霜도적고 風災 水害도 稀少하며 아즉도 大部分이處女地그대로 남어잇서 八萬晌(一晌=一千八百坪)의 沃土는十萬의移住民을 기다리고잇다

自然的 要素도 이가티 豊富하거니와 社會的條件도 移住에最適한 地帶이다 一例를 들면間島라하면 匪賊과共軍의 活舞臺로 瞬時도 安心할수업는것가티 생각하지마는 이것만은 그것은 벌서 지내간 이야기로移住民에게 잇서서는 絶對安全한곳이다 또한 行政組織도 압날民國時代와는 懸隔한 差가잇서그야말로 一大組合體의理想的組織으로 되어잇스며 官吏의 大部分이 朝鮮人으로 他縣에 比하야 移住民을 爲하야는 千載一遇의 好機로되어잇다

잇을 뿐아니라 治安도 間島에서 首位이라 移住民에게는 엇기어려운 好機라고하겟다

鑛物은無盡藏이나 採掘은搖籃時代

砂金、石炭이首位

砂金과石炭은 全間島에서 和龍縣이 首位이다 그러나 아즉發見되지 못한것이 無數히 잇으며 採掘은 搖籃時期에잇다 和龍縣의 한복판을 차지한黑山嶺山脈과 西北으로 뻐친老嶺山脈의 內包한 無盡藏의 鑛脈이 發見採掘되는때는 이곳肥田沃土에서 나오는 農産物보담도優秀한一大富源이될것이다 그間島一帶에 鑛山調査를 始作한지는 日露戰爭 以後의 일이다 그것은 오래동안 人影이업는荒蕪地로되어 잇든것과 其後移住民이 來往하엿다 하여도 人煙이 稀少하엿슬뿐 아니라 主로 農耕에 從事하엿던 關係이다 또한가지理由는 長白山脈은淸朝發祥地인 聖山이라하야 淸國政府에서는 所謂 四禁制를嚴守하고 鑛山採掘 藥草採取 森林採伐을 嚴禁하엿기때문이다그러나 大勢는 淸朝의沒落과 中國革命의成功 滿洲國의建設等을보게되어 至今은 이富源의開發을 기달리고잇스니 現在發見된것만 參考紹介하기로한다 和龍縣內의 鑛物種類는砂金、石炭、銀及鉛等인데 그中에 砂金鑛炭鑛이 全間島의 首位를 차지하고잇다 即全間島 砂金鑛數十五個所中 和龍縣이 九個所이며炭鑛二十個所中 九個所가和龍縣이다

洋洋한牧畜業

農業에잇서만 前記와如히 有利할뿐아니라 牧畜業도 甚히 有利하다 現在狀況만으로도牛一萬一千頭 滿洲馬一千頭 豚二萬六千頭 其他合計 三萬九千頭로特히 牛馬는 이곳農耕 交通 運輸에는 不可缺의 生産道具이며豚은 農家副業의 首位를차지하고잇는것이다

無限한草原과 生産率의高騰은이곳家畜發展을 促進하는條件이되어잇서 그의時速한 發展이待期된다 家禽도 鷄 家鴨等四萬七千을 算하며 年生産高 十五萬으로 이곳農家副業의 重要部門을 차지하고잇다

間島地方唯一의 間島無盡會社

無盡의三善主義를 모토-로하고再昨年三月臨門에 間島처음으로創立된 間島無盡株式會社는 爾來發展에 發展을거듭하야 昨年六月龍井支店을 設置하야 資本金七萬圓 契約高가六十萬圓에達하는 間島無盡金融界의 王座를차지하고잇다 現在參加人員은斯界의 鑛業諸氏로부터 一般市民에亘하야 四百六十餘人(日本內地人一九二人 朝鮮人一九三人 滿洲人七五人)의 可驚할 數字를보이고잇다

移住同胞에게는 土地와賦稅免減

和龍縣參事官 李東爽氏 談

間島는 距今一千三百餘年前부터 朝鮮民族이 移住하야 宿緣이거듭되고 血汗이凝結된 故墟이다 그中에 本縣은 間島省의中南部에 位置하야 豆滿江을 一葦에두고 朝鮮과 隣接하여잇서滿洲에進出하는 唯一의咽喉이며關門이다

回顧하건대 爾今 沃野千里의良田玉畓이 모도다 누구의勞苦한結晶이던가? 그는 말할것도 업시 先人의惠澤이요 血汗인것이다

本縣은 全住民의 九十六%가朝鮮同胞로서 間島省中에 그의優位를 占領하고잇스며 千辛萬苦를 거듭하고 이地方을 開拓한 歷史的主人公도 또한朝鮮人이다 朝鮮人의 血汗과 苦勞의結晶體인 和龍開拓地의 八十四%가 朝鮮人의所有이다 人口와土地에 잇서서 이러할뿐아니라 朝鮮人移住의陽矢도 亦是和龍縣이엿스므로 全間島敎育의發祥地도 또한本縣이엿다 一八九七年 本縣光霽峪에 朝鮮人의敎育機關이 처음으로 設立되엇스며 發達하던 間島文化史上의新紀元을 지엇든은 當當하던 明東學校의 자최가 그를證明하여주는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先人의遺蹟인根本的土臺를 鞏固케하며 更進一步하야 經濟와 思想을 統一的模型으로 形成할만한곳도和龍縣이 아닌가 생각된다

滿洲建國當時의 施政綱領부터우리和龍縣으로 『一、人民의負擔輕減二、治安의確立三、思想의善導』의三大標語를 高唱한結果 産業은 興振되고 治安은 確立되고敎育은向上되고 再來의朝滿兩國民間의 民族的感情도 融和되어그야말로 理想的平和鄕의 建設途上에 서게되엇다

外로 朝鮮의 現況을 一瞥하건대 農民은 土地에주리고 增加되는人口는 活路를 찻고잇는感이업지안타 때마츰 新興滿洲國에서는 富源開發과治安整理에 注力하고잇는此際이라 살길을찻는朝鮮民族은 歷史的으로 因緣이깁고 地理的으로 隣接하고잇는滿洲에進出할 千載一遇의 好機를 當하엿다고생각된다 그런데移住를希望하는 同胞에게는 資源이 豊富한地域에 集團的移住가必要하며 爲政當局의 保護와指導가 잇서야할것이다 多幸히 本縣에는 天賦의沃野四十九萬四千餘町의 未開墾地帶와 三十年을伐採하고도남을 良質美林과 또한 間島第一의 無盡으로 埋藏되어잇는 鑛物等 天惠의富庫가오즉 朝鮮同胞의 熱烈한 鋤斧와 鐵鍬한鍛錬을 苦待하고잇다本縣當局에서는 本縣의 朝鮮人에依한 開發을 積極的으로 歡迎하며 援助하기 爲하야 土着民과 富豪의 無理抑制를 積極防止하는 一方 善良勤勉한 移住民에게는 特히 地價와 賦稅를 免減하야 富源의 開發과生活安定을 最後까지 指導하려하는바이다

祝辭

間島省民政廳長 金秉泰氏

貴社의壯擧인 間島地方紹介版發行에對하야 滿鮮의感謝를 올니는同時에 特히在滿朝鮮人의福利를 爲하야 全的努力이 잇서주시기를希望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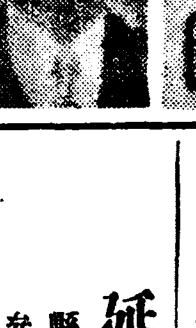
間島省總務廳長 松下芳三郞氏

東洋의平和와王道樂土를 理想으로하는 新興滿洲帝國의 一般發展에 貴社의 朝鮮言論界最初大擧事인 間島地方紹介版發行에對하야 謝意를 表하는同時에 貴社의發展을 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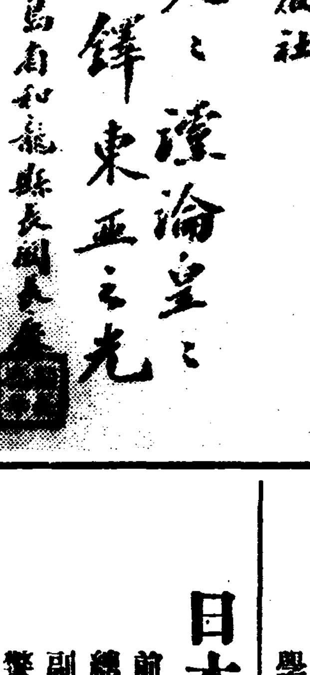
在間島總領事 川村博氏

朝鮮人의發展上至大한 關係를가지고잇는 間島地方을 爲하야이가티努力하여주신데 對하야 感謝를 올니는 同時에 貴社의發展을祝하나이다

和龍縣長 關長慶氏



和龍縣參事官 李東爽氏



間島省公署
省長 蔡運升
總務廳長 松下芳三郞
民政廳長 金秉泰
警務廳長 吉村秀藏
總務科長 馬込信一
經理科長 加藤尹
行政科長 池田良吉
實業科長 劉鴻洵
警務科長 田中要次
特務科長 荻原八十盛
學務科長 尹泰東

日本帝國總領事館
前總領事 永井清
總領事 川村博
副領事 小坂部澁
警察部長 小川要之助

延吉縣公署
縣長 李樹海
參事官 笠原喜代佐武
副參事官 盧起燕

汪淸縣公署

琿春縣公署
宗參司官
筒井經理官

八道溝朝鮮人民會
百草溝朝鮮人民會
太拉子朝鮮人民會
琿春朝鮮人民會
二道溝朝鮮人民會長
三道溝朝鮮人民會長
延吉朝鮮人民會
朝陽川朝鮮人民會
南陽坪朝鮮人民會

八道溝警察署長 阿部與三郞

在間島總領事館百草溝分館

龍井市 咸北道立龍井醫院

毛織物直輸入都散賣 龍井市 三星商店 主 李淳華

圖佳線大荒溝驛前 朝鮮人旅館組合
韓城旅館 福信旅館 海東旅館 滿鮮旅館 雄基旅館 鮮一旅館 圖佳旅館 忠北旅館 鏡城旅館

明月溝市 朝鮮料理 三南樓 電話四七番

八道溝市 崔石馬

明月溝市 朝鮮料理 延春館

南陽坪 穀物貿易 朴仁壽商店

頭道溝 朱漢明

頭道溝延吉市四區公所

頭道溝公利社 韓志堅

和龍縣公署
縣長 關長慶
參事官 李東爽
副參事官 小川正一
總務股長 閻翊衡
經理官 朱德龍
會計股長 錢鏡波
行政股長 安鶴張
實業股長 李發英
敎育股長 徐慶榮
警務股長 盧琨泰
理財股長 張理存
財務局長 張鴻翔
庶務局長 金昌善
文書股長 李映廷
第一區警察署長 周玉崑
第二區警察署長 張志麟
第三區警察署長 陳百魁
警務指導官 山根信太郞
第四區警察署長 朴承璧
第五區警察署長 彭述謙
和龍縣森林警察隊長 池若濼
首席警務指導官 坂律次
警務指導官 柿谷五一
智新社長 韓奭基
德新社長 蔡禹錫
三合社長 具會謙
光開社長 朴桂鶴
月晴社長 朴舜澧
明新社長 金精
勇化社長 丁泰和
德化社長 金尙弘
崇善社長 朴昌喜
內務局長 劉彭壽
警務局長 武漢昌
首席警務指導官 小池義郞
警務指導官 川口壽美男

間島重要人物들

教育界의明星인

東興中學校長 林啓學氏

間島教育界를 論하려면 東興中學을 말하게되고 東興中學을 말하려면 林啓學先生을 云謂하게되는만큼 氏야말로 間島教育界의 模範的存在이다 氏의 過去에 남긴 赫赫하던 政治的社會的 業績은 그만두고라도 二十餘星霜을 間島教育界를 爲하야 千辛萬苦를 거듭하야가면서 끝까지 그대로의 犧牲的努力을 앗기지안코 未來의 主人公들을 培養하여온 氏의 功勞야말로 永久不朽의 그것이다。

文明의 敗者요 激浪속에 헤매던 間島教育界엿스므로 教員의 不足을 當하는때 한두번이 아닌것이 重要條件이 되어 氏는 可驚할 博學多識으로 體操와 唱歌以外에는 中等程度教科書는 못가르키는것이 업다한다 滿溢된 東興文庫는 氏의 熱誠하지안흔것이 업다하니 氏의 硏究力과 實力을 可知할수잇스며 氏의 堅忍不拔의 活動力과 百折不屈의 精神은 압흐로 偉大한 功績을 나흘것으로 確信된다。

龍井社會의重鎭

文友堂 李泰俊氏

宗教, 教育, 實業三界에 共通한 重鎭을 차즈면 昨春火災後 新築된 龍井第一의 印刷所 文友堂과 耶蘇教書院을 兼營하고잇는 牧師 李泰俊氏를 말하게되다 二十三年前 平壤神學校를 卒業하고 入間하야 宗教宣傳에 獻身하면서 己未年以後의 向學熱에 中學設立의 必要를 切感하고 耶蘇教書院 二層에 二十八人의 學生으로 教授를 하엿으니 그것이 오늘의 恩眞中學의 嚆矢엿다 宗教撲滅運動의 激浪속에서 布教와 教育에 全力을 다하다가 東京에서 二年間 研究를 거듭한後 在勤三年만에 教職을 辭하고 實業界에 投身하야 오늘에 이르럿다 氏를 除外하고는 龍井社會의 重鎭을 말할수업슬만큼 氏의 存在는 크다 ◇寫眞은 李泰俊氏

鑛業界의大王

申蘭休氏

旅順工大를 八年前에 卒業하고 朝鮮鑛業界에서 엇은經驗을 土臺삼아 滿洲全國探鑛事業에全力을다하야 全國內出願鑛區四百餘個所에 達하며 間島一帶에만 八十餘個所이며 現在 和龍縣西方蛤蟆溝에서 砂金採掘에 從事하고잇는바 成績이 甚히 良好하다하며 炭鑛도數十個所出願한것이잇서 滿洲鑛業界의 慧星的地位를 占領하고잇다 氏는 또한 朝鮮人의 鑛業開發을 爲한 機關設立에 猛活動을하고잇다한다 ◇寫眞은 申蘭休氏

醫療界의巨星

同春醫院 崔寬實氏

어머님이 産思으로 別世한것이 重大한 契機가되어서 患者의 救濟를 決心한氏는 世專在學時부터 産婦人科에 專力하엿스며 只今이라도 産婦人患者이면 百難을 排除하고 深夜外診을自請한다하며 元來內科專門이나 다시 上京하야 母校에서 一年間 外科婦人科研究를 거듭한結果 氏의 妙技는 그의創劇를擴大한만큼 多方面의 患者는 氏의 惠澤을 입고잇다한다 ◇寫眞은 崔寬實氏

大興鑛業社의

金伯鍊氏

搖籃期의間島金融界 特히治安上困難을 늣기고잇는此際에 六萬餘圓巨額을 探鑛費에 投資하고 百餘鑛區出願을完了하고 探鑛에 着手한 明月溝大興鑛業會社 金伯鍊氏는 探金株式會社에서 지난 七月探鑛許可를 어더 二百餘名의鑛夫와 三十名의專傭職工을 方今 探鑛中인데 成績이그러케 良好하지는 안흐나 압흐로 적 有望하다는바 將次 五十萬圓株式會社를 創立하야 間島富源開拓에 全的活動을 하리라고한다

青年實業家

李昌洙氏

氏는 黃海道出生으로 朝鮮人本位의 局子街貿易株式會社의 參謀格인 支配人의 椅子를 차지하고 朝鮮人經濟界를爲하야 極力努力하고잇는 當年三十二歲의 青年實業家이며 同地에잇서서의 氏의名聲은 날노 놉허가고잇다

書籍商의霸王

博文館主 金明學氏

教育이 普及된間島에서 中等初等學校의教科書參考書文房具月刊出版物 一般民衆本位의書籍等을 完備하여두고 어떤窮鄉僻村에 까지 注文이오더라도 迅速히 供給하여주는 間島第一의 書籍商은 龍井大通路한복판에 位置를 잡은博文館書店이다 主人金明學氏는 咸北鏡城出生으로 일직이 東興中學을 卒業하고 現業經營 十年동안 不撤畫夜努力한結果 不過數千圓의 小資本으로 開業한것이 只今엔 一萬五千圓의資本金이잇슬뿐아니라 內外取引處의 信用도 날로놉하가는 青年活動家이다◇寫眞은 金明學氏

金融界의麒麟兒

殖産株式會社 林、蔡兩氏

農商界에融資를 主要目標로하고昨年九月에 創立된 金融業의 麒麟兒間島殖産株式會社의 社長林憲氏와 支配人蔡東權氏는 間島經濟界에 屈指의重鎭들인바社長林氏는 間島精米所를 私營하고잇는一方 金融界에 進出한青年實業家이며 支配人蔡東權氏는 五六年間 商業에 從事하다가 東京에건너가서 早大商科를卒業하고 再次 入間하야 龍井貯金契理事로在勤하다가 同會社創立時부터 支配人으로 就任하야 間島金融界의 當當한 重役으로 氏의 特技와 精力을 發揮하고잇는 活動的青年實業家이다 (◇寫眞은 蔡東權氏)

漢藥貿易王

龍湖局李在雲氏

漢藥貿易商 龍湖局大藥舖主李在雲氏는 間島斯界의 重鎭으로 老頭溝等地에 支店을두고 大活躍中인 東滿藥業界의 覇王이며 氏의 成功은 必至의것으로보인다

間島社會慧星

鄭士斌氏

己未事變以後 間島一帶는 騷然의 極에達하야 無罪한 良民이 鐵銅의 洗禮를 맛고잇슬때 氏는 萬難을 排除하고 人命救濟를 目標로한 會館團體를 創立한것이 光明會의 起原이다會長 日高丙子郎氏의 參謀格인氏는 光明會를 中心으로化시킨後 不休不眠努力한結果 오늘間島教育界의 獨立的存在를가진 光明學園의 中樞要人으로서 同學園理事 同學園內三校校長等 六個要職을 一身에 獨占하고 間島教育을爲하야 專力을다하는一方 間島社會諸方面에도 無所不至라고 할만한 中堅이며 實로 斯界의 代表的重鎭이다

商業界의巨璧

金時烈氏

龍井銀行通과 大通路十字街上二層花崗石建物이 옷득솟아잇고 레코-드音律이 울려나오고 和洋雜貨가 보기조케陳列되어잇는 龍井거리의 異彩的모-던商店이 氏直營의 間島洋品店으로 昨年新築의 레코-드特約店이다 氏

寫眞學院主

朴根泰氏

本學院創立以後 前後三十四回 二百餘名의 卒業生을 내엇스며 入學職業紹介 技師採用等特典이잇서 北朝鮮各地에서까지 來學하는者 日加하야 斯界에 功獻이 不少하다

는오래동안 [illegible]에 在勤하고 職을辭하고 商業界에 進出하야 每日數만흔 顧客이 殺到하는大盛況을 이루고잇는 商界의 巨星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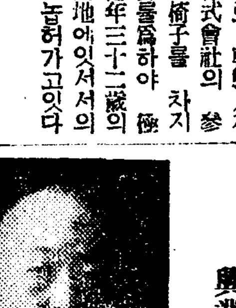
小成에滿足안는

間島興業社 王載道氏

赤手로 越江二十年에 林月溝宿泊業을 經營하다가 二十萬餘의 致富도 現業도 氏의 滿足한바아니라 所有地三百萬坪開墾과 鑛業界進出着手하야 和龍縣十餘個所外 延吉○ 汪淸等地 二十餘個所의 鑛區出願을 完了하고 鑛業派遣探鑛中인데 不遠五十餘個所에 達하리라하며 採鑛에는 氏의 全財産과 京釜等地財閥과 合力하야 間島富源開拓에 投身하리라고한다 (◇寫眞은 王載道氏)

經濟界의大王

興業株式會社長 姜載厚氏



間島朝鮮人經濟界에 王座를 獨占하고잇는 姜載厚氏는 當年四十五才의 壯年實業家로서 龍井貿易 東滿農事 荷主運輸 圖們殖産諸株式會社社長을兼任하고잇으며 間島經濟機關에 直接間接의 指導的役割을하고잇는 在滿朝鮮人經濟界의 代表的人物이다 氏의 오늘의 成功의裏面에는 環境이 環境이니만큼 눈물겨운場面도 만엇거니와 氏의 明晳한 頭腦와 敏活한經濟的手腕이 決定的要因이 되엇던것이다 氏의 武步는 그의終止點을 모르고 一路發進途上에잇스니만치 將來朝鮮人經濟界에 莫大한 功獻이 잇슬것으로確信된다 ◇寫眞은姜載厚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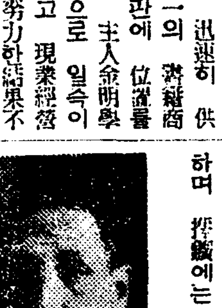
東亞百貨店主

金東勳氏

頭道溝 二層洋屋에 資本金十萬圓의 모-던百貨店이 月餘前出現하야 每日 顧客이 殺到하는 大盛況을 이루어 綿布雜貨 食料 各種고무靴各部의 店員十五人이 눈코뜰새가 업다하며 專務取締金東勳氏는 東京法大商科出身인 青年實業家로서將次 群小商業家의 一致團結에依한 데빠-트를 龍井까지에도設立하야 消費者의 利益을 圖하려는計劃을 세우고 着着進行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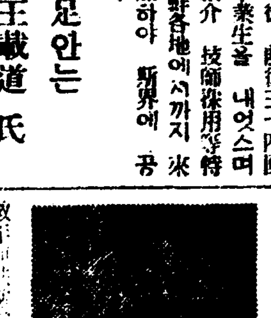
朝鮮醫界巨星

青山醫院長 青秉振氏



頭道溝 朝鮮人醫界의 巨星인 氏는 同醫院創立以後 貧民을爲하야 始終이 一貫한 活動을하고 잇는까닭으로 地方民의 尊敬의 對像이 되여잇스며 압흐로도 唯一한 民衆의 醫療機關으로서 活動을 하리라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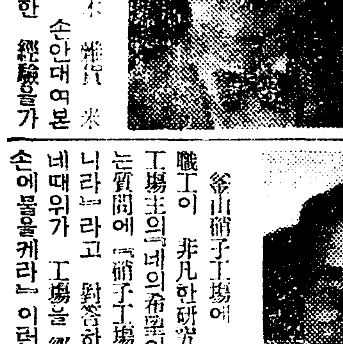
張相河氏



明月溝를 말하려면 張相河氏를 말하게되는만큼 氏는 明月溝開拓에 唯一의 功勞者인것은 自他共認하는바 當地에잇서서의 氏의 教育實業諸方面의 活動은 三十年동안 始終이如一하엿스니 數年前共産黨의 暴力에 쌀 베르-트가 流布되고 富農官僚에게 死刑宣告의 脅迫狀이 雪飛하엿스되 氏에게는 何等의 一言半辭가업는것과 培英學校가 共産主義宣傳云云으로中國官廳의 閉鎖命令을 當할때에 끗까지 對抗한것 等은 氏의 德望과 志操의 一面을 立證하여주는것이다 ◇寫眞은張相河氏

鑛業에成功한

大興社 李容根氏



龍井大通路邊 新築卒家에 每日數七名이 出入하고 不景氣소리가 連發되는 龍井거리에 누구든지 歡迎하는 小切手가 往來하고잇스니 그는 大興社李容根이라는 當年三十五歲의 青年人氣男의 存在이다 氏야말노 流浪生活十五年間 布木 雜貨 米穀等商業이란商業은 손안대여본것이업슬만큼 豊富한 經驗을가젓스나 모조리 失敗하고 二十八歲時부터 鑛業界에 方向轉換하고 오늘은 過去의 눈물겨운 쓰라린 經驗도 한때의 이야기거리로되고잇스며 龍井經濟界의 異彩를 띄고잇스며 貧者에對한 理解가 만흔것은 氏의將來成功에 一助가될것이다 ◇寫眞은 李容根氏

經濟界의重鎭

全昌根氏

全間島에 綿布中心의 商品을 供給하고잇는 朝鮮人의 代表的貿易商인 龍井貿易株式會社를 차즈면 專務 全昌根氏라는 巨人이 同社를 總指揮하고잇다 氏는 當年四十二才의 壯年實業家로서 社長 姜載厚氏 關係會社에는 반듯이 重役의 地位를獨占하고잇는 斯界의 重鎭이다。氏의 沈着한 性質과 機敏한 手腕은 今日 成功의 主因이 되엇스며 現在 京城第一高普 在學中인 氏의令息은 氏唯一의希望이 되어잇스니 間島經濟界를 爲하야 一步一步 前進할것을 믈림업슬것이다 ◇寫眞은 全昌根氏

間島元老의

崔允周氏

中樞院參議요 局子街貿易會社長인 崔允周氏는 入間二十年間 間島政界의 第一人者로 猛烈한 活動을하야 延吉市街地建設、間島朝鮮人民會聯合會組織 在間島朝鮮人 [illegible] 獨立運動 間島省新設 [illegible] 方面에 功績을남기 [illegible]는 政界에서引退하야 [illegible]方面을 主로 餘年을 보내고잇는 間島社會의 太陽的巨人이다 氏는 方今京城自宅에서 滯留中이라하며 氏의今後의 活動을 一般은 企待하고 잇다한다

工業界의一人者

三光硝子工場主 李揆豐氏

釜山硝子工場에 十四歲의少年職工이 非凡한研究를하고잇슬때 工場主의『네의希望이무어이냐』하는質問에『硝子工場을經營하게습니다』라고 對答하니『朝鮮人인 네때위가 工場을 經營한다면 내손에불을케라』 이런말을들은 어린少年은 默默하가운대서 鐵石가튼意志를 가지고 福岡京城等地에서 前後十五年間 硝子職工生活을하면서 硝子와 硝子附品製造秘術을 完全習得한結果 오늘 全東滿唯一의 硝子工場經營主가되엇스며 現今盛用되는 유리단초 유리비녀는 氏의發明品으로 氏의술은 發明力을 發揮하는一方 一般職工과는 家族가티親密한가운대서 不足되는資本金으로 牧丹江支店까지 擴張하야 莫大한 業績을 나타내고잇는當年三十八歲의青年實業家이다 ◇(寫眞은李揆豐氏)

刀圭界의巨璧

醫學博士 梁珍鴻氏

圖們新市街에 洋屋이잇스니 이것이 間島의 자랑 刀圭界의 巨璧 獨逸醫學博士 梁珍鴻氏 直營의醫療機關이다 氏는 일즉이 京城醫專과 東京帝大 産婦人科를 優秀한 成績으로 卒業後 利原郡公醫 新北靑鐵道病院長을 歷任하다가 다시 獨逸 프라이브르그大學에서 多年 研究의 結果 榮譽의 學位를 獲得하고 錦衣還鄉한 斯界의 權威이다 外科手術에는 神秘한 妙技를 가젓스며 內外兼備한 代表的機關인지라 날로 滿地에서 患者가 殺到하야 寸隙의 餘暇도 업다하는 名醫이다 ◇寫眞은 梁珍鴻氏

頭道溝重鎭

許相舜氏

氏는 일즉이 某土官學校를 卒業하고 社會를爲하야 勇敢히 活動하다가 官界의몸이되어 多年 人民의福利를圖하엿스며 現在에는 東拓의 支店一員으로 農民의利益을爲하야 萬全을 다하고잇는青年實業家이며 斯界의重鎭이다

商業의覇者

共信商會主 金荷鏞氏

和洋金物 建築材料의 一切을 完備하고 新建設中의 牧丹江에 支店을 設置하고 圖們商界의 霸權을 쥐고잇는 共信商會金荷鏞氏는 龍井商界에서 二十餘年經驗이 잇는만큼 大大的活動을하고 잇는 青年實業家이다

官界의元老

李庚在氏

氏는 二十九年前 韓國官吏로서 統監府派出所官吏와함께 入間하야 總巡(警部)으로 在勤타가 其後領事館奉職十三年 民會長十年의 經驗을 가진 官界의 [illegible]다 氏는 當年五十六歲의 [illegible]이면서 活動을 繼續하고잇스며 實業界에까지 投身하야 入滿 [illegible] 金融도 成績이 良好하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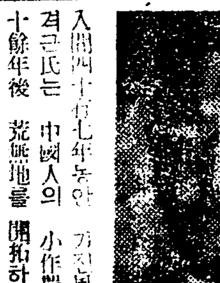
教育界의恩人

民校成長 黃淵琦氏

氏는 頭道溝朝鮮人民會長으로서 管內住民을 爲하야 만흔活動을 繼續하고잇는바 特히 朝鮮人教育을爲하야 民間直營의 民成學校를設立하고 三百餘名의 無産兒童을 收容하고잇는 活動的人物이다

和龍縣巨富

金載範氏



入間四十有七年동안 가진風霜을겻근氏는 中國人의 小作農生活十餘年後 荒蕪地를 開拓하야 今엔五百餘晌의 所有地가잇는 和龍縣巨富이며 育英事業의 功勞者이다 當年六十一歲의 高齡이면서도 元氣壯盛하야 압흐로만흔 活動이잇슬것으로 待期된다 ◇寫眞은 金載範氏

實業家인

金進國氏

氏는 咸北城津出生으로 二十五年前入間 數年동안 主로 實業方面에 活動하다가 때마츰 滿洲事變이 發生하야 積極的活動을 開始하야 만흔 功勳을 남기어 信賴를 밧게되며 現在諸方面의 要職을 占領하고잇다 氏는 間島在住朝鮮人及 新來移民을 爲하야 開拓事業에 專力하리라는바 第一着으로 汪淸縣大嶼鄕五千餘町步의 大沃野를 開拓하리라하며 間島秘密境安圖縣富源開拓에도 出馬하려라하는 間島社會의 重鎭 (◇寫眞은金進國氏)

機械業의覇者

張景寶氏

發動機를 돌려서 汲水作畓한곳이 五六個所나 되어 原始的農具를 使用하는 間島農業界에 一大센세이슌을 이르키고 全滿農業의 機械化를 計劃하고 方今 吉林 敦化 北滿各地로 出張活動中인 間島 機械商會 中央精米所 主人 張景寶氏는 北靑出生으로 일즉이 機械에對한 研究를 하고저 十年동안 大阪山岡發動機製作所에서 妙理를 習得한것을 土臺로삼고 現業에 從事하면서 遠大한 希望을 가지고 努力에 努力을 加하고 잇는中이라는바 日滿軍部側에서도 氏의 事業에 後援援助를 앗기지 안는다고한다 ◇寫眞은 張景寶氏

多角的活動家

金東赫氏

氏는 일즉이 東京早稻田大學 政經科를 卒業하고 現在 大拉子民會長으로 잇는분으로서 將次 朝鮮人의 福利를 爲하야 多角的活動이 잇슬것으로 一般의 期待를 一身에 集中하고잇다。 ◇寫眞은 金東赫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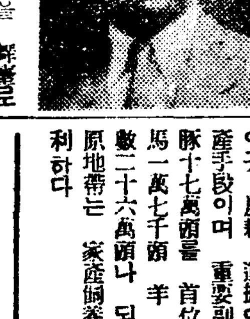
間島의先驅者

日高丙子郎翁

日韓合倂의 極東風雲을 압두고 玄海灘을건너 豆滿江을 떠어 極東의 빨간間島에 들어와서 多年辛苦를 거듭하든끄테 大正十年一、人道의 暗黑을 깨치고 二、東洋의 燈火를 들어三、教育、産業、道德、信仰의 充實한 極東의 丁抹、東方의 西瑞를白山黑水間에 建設하야 東亞의泰平을 守護한다는 目的을가진光明會를 組織하야 爾來、教育을 中心으로 活動한結果、氏의 理想은 豫想대로 進行의 코-쓰를밟어 昨年에는 財團法人光明學園의 光明이 照明하엿스며 氏는 老驅를 不顧하고 方今獻身的活動을 繼續하고잇스니 間島社會에特히 教育界를 爲하야 一大巨星的 存在라고하겟다

貿易界一人者

李浩然氏



한때는 亞細亞大陸을 雄飛하던氏는 二十年前뜻을 품고 넘든豆滿江을 다시넘어 經濟界에 投身하야 第一먼저 着手한것이 牛皮貿易商으로 間島牛皮는 大部分 氏의손을通하야 內外市場으로 販賣되며將次로 土地에 投資하야 間島富源開拓에 活動하리라하며 圖們은勿論 全間島를 通하야 氏의名望은 날로 노파가고잇다 ◇寫眞은 李浩然氏

興産社의重役

明春興産株式會社 明月溝支店 韓源根氏

支配人 韓源根氏는 明月溝興産株式會社創立以來 八年以上의 經驗이 잇는 明月溝가튼 經濟的核心地인 곳에서 五萬餘圓의 貸付를하고도 回收成績이 良好하다는것으로보아 適任者로 本社의 信用을 一身에 集中시키고잇는 重役의 一人者이다

金融界의重鎭

李觀燮氏

頭道溝金融界의 支配權을 掌握하고잇는 頭道溝殖産株式會社 支配人 李觀燮氏는 金融界의 重鎭으로 이곳 金融業者의 大部分은 氏에依한 金融界의 統制를目標로하고 方今 大活動을 하고잇는 斯界의 重要人物이다

運輸業의泰斗

張浩文氏

韓滿國境이 越江禁令을 嚴守하고 間島一帶는 烏賊獸跡의 密林地帶엿던 時節부터 南北滿洲와 露領沿海州方面을 横行타가 間島開拓에 努力하야 結局老年을 龍井에서 보게되엇는바 氏는 朝鮮人運輸業의 創設者요 現在自營義成商會와 荷主運輸株式會社社長으로 餘日을 보내고잇는 間島經濟界의 巨璧이다 ◇寫眞은張浩文氏

綿布商의總帥

李永植氏

龍井商界의 重鎭을차즈면 綿布商專門의 李永植氏를 말하게 되는만큼 氏는 商權의霸權을掌握하고잇다 十五年前멀리 安州로부터 入間하야 無資本으로現業에 着手하엿스므로 無名의 小商人에 不過하던것이 不休不眠의努力과 微妙한 戰術은 奏效되어 資本金二十萬圓의 大商業家로躍進하야 大阪名古屋等地의 取引處는 勿論이오 一般都散賣顧客의 信用은 날로놉하간다고 한다

天惠의穀倉은

十六萬戶移住可能

農業은 間島資源의 大宗이다 總面積二百五十萬町步(朝鮮의 約七分一)中 既耕地三十二萬町步 重要穀物年生産高 六百萬石을넘으며 朝鮮內地飢饉輸出高 百萬石에 達한다。 尙今도 可耕地五十一萬町步가 그의開墾을 기달니고잇으며 八十三萬(現在五十八萬)이 더살수잇다 또한 地味는 肥沃하야 肥料의 必要가업시莫大한收穫을 낼수잇으며 寒暑의 差가 甚하야 成熟期가 짜르고 冬期에地下가피 凍結하므로 土壤에空隙이생기어 空中의 肥料分을 多量으로 吸收하는一方 自然의힘으로 深耕役割을하는等 自然的要素가 豊富하다

農産物의 種類는 凡五十種에達하는바 大豆가年産百萬石으로그의王座를 차지하고잇어 年七十萬石을 輸出하며 粟(百斤石)은 이곳 重要食料品으로 大豆와共히 二大農産物의 一이다 水稻는 大豆粟과共히 主로 朝鮮移住民의 耕作物로 年産五十萬石을 算하며 玉蜀黍(四十萬石) 大麥(三十萬石) 小麥(十五萬石)은 上記三種과合하야 이곳六大農産物에 屬한다

이것들外에도 감자 煙草等 特別産物이 만커니와 特히 家畜은 이곳 農耕 運搬에 不可缺의生産手段이며 重要副業으로서 家豚十七萬頭를 首位로 牛五萬頭 馬一萬七千頭 羊 驢 騾等 總數二十六萬頭나 되며 廣濶한 草原地帶는 家産飼養이 極히 有利하다

大陸의神秘境"樹海" 無涯美林의大資源

봇지(森林의大洋)라일흠은 先住民族通古斯族이 불은 間島一帶의別名이오 清朝乾隆帝는 東北滿洲의『樹海』라고 하엿스니 이것은 間島의實相을 說破하고도 남는 適語으로서 間島라고하면 廣漠한 荒野만을 聯想하는 사람에게는 一大疑問일지도 몰흔다

六百萬石의 穀物을 産出하는 穀倉인지라 肥沃한平野가 업는것은아니나 西北方의 大山脈長白山脈 老爺嶺山脈 黑山嶺山脈老爺嶺山脈 哈爾巴嶺山脈들과 그의 支脈은 千古의秘密을 가진그대로의 大陸의神秘境을 이루고잇스며 肥田沃野를 貫流하는 海蘭江 布爾哈通河 嘎呀河等諸河川의上流水源地는 文字그대로의樹海를이루고잇는 鬱蒼한 大森林地帶로서 그의面積은 全面積의約二分一即一百四十六萬餘町步나되며 그의蓄積推定量은 七億萬石을超過하고 只今까지의 探伐量이 七百萬石內外이니 압으로幾百年을 伐採하고도 남을것이라한다

그의分布狀態는 北朝鮮과相似하며 樹種은 溫寒帶植物二百餘種인바 其中에針葉樹(朝鮮松 朝鮮樅 朝鮮唐檜落葉松) 闊葉樹(唐白松 滿洲楓 胡桃 青楡)等有用樹種이 主要한것이며 地方別狀況을보면 圖們江流域은 朝鮮과 隣接하여잇고 移民의歷史가 長久한지라 伐採도 相作되여 山骨이露出될곳이만코 大部分稚樹林으로 純林이적으며 海蘭江流域도 頭道溝 龍井이 가까운까닭에 僻地까지 探伐되고 西邊高地에 林相地가 若干남어잇슬뿐이나 天寶山西方 老嶺山脈一帶에 十萬餘町步의 有望한森林이尙存하고잇다 布爾哈通河流域은西는老嶺 北은 老爺嶺 南은馬鞍嶺에 東은 牧丹嶺 吉淸嶺 小盤嶺에 亘하는 山岳地帶이나 同河流域에 人口가 稠密하야만큼 亂伐된 곳이만타 그러나 天寶山西方 合水洞一帶는 日光을 볼수업슬만큼 森林이 鬱蒼하야 一望遠近老幼混在하야 最大한것은 二百五十年胸高直徑四尺以上 樹高一百尺以上에 達하는것이만타 特히屯田營及牡丹嶺附近에 이르면 鉅斧未入의 千古美林이 本以上軍立하고잇서 終日도록日光을 보지못하는 神秘境그대로이며 紅松及唐檜類直徑二尺以上高十三四間을 넘는 良材가 點綴하고잇는 稀有의 美林이 西으로는 太平溝의 流域 東으로는 嘎呀河流域에 達하야 그의面積이 十五萬町步에 達한다 또한嘎呀河流域은西으로牡丹嶺 吉淸嶺山脈 東北으로 老爺嶺山脈으로包圍된地域으로 森林面積二十五萬町步에 達하는 間島第一의森林地帶이다 그中가장優秀한美林은 小三岔口上流地方으로 奧地로들어갈사록 密林을形成하야 直徑五六尺에됨는巨木이만코 老木中에는 林心洞穴內에 無數한猛獸가 살고잇스며 密林의王者 共軍의根據地로되어잇는 危險地帶一種의別乾坤이다 끄트로綏芬河流域은 老爺嶺分水界以東으로 驛子溝附近의成林地는 面積廿萬町步에達하는 白檜地帶이다

以上樹種中 重要한것의用途를 略記하면 朝鮮松은間島針葉樹中 首位의것으로서 建築材器具用材에使用하며 種子는妙藥松實이다 朝鮮樅은松과가튼用途外에製紙人絹用파르푸原料에 使用하며 蝦夷松은 各種家具 擔寸軸木 파르푸原料等에 輪木은 車體 車藩 車軸 橫子 建築 枯木 車輛 製紙用粘結劑樹脂한用途를가지고잇스며 胡桃는 果實外에 各種器具 建築材에 使用되는等實로 그의範圍가 多方面에이른다

上述한바와가티 多方面으로有用한 森林의探伐事業은 每年九月頃부터 翌年二月頃까지의 積雪期이면 運材는 每年三月頃까지로 橇又는 牛力으로 江畔까지 運搬하엿다가 解氷期를 기달려서 水力으로 流出하는것이 普通이다 그러나 近來各河川水量의不足으로 困難을 늣기든바 京圖線 圖寧線의開通으로 搬出이容易하게되여 明月溝 大荒溝等木材産地가 出現하엿스며 將次 富源開發에따라 森林鐵道의 敷設도 在滿하엿다고 보인다。 現在日本에서 年一千萬石의 木材不足을 늣기고잇스며 嘗達한 바와가티 製紙人絹用파르푸其他木材化學工業의 原料가되는間島森林은 鑛業과함께 그의開發은 前途洋洋한것으로 豫想되나 그러나 事變以後 密林地帶를 唯一의根據로하고 活躍하는 共軍의 出沒로 各地木材業者들은 共軍運絡危險을반어 軍當局으로부터 伐採搬出禁止를 當하야 一大恐慌을 이르고잇다 木材로發達한 明月溝等地는 年産百萬圓의 景氣에 昨春禁止令以來 農作物까지 凶作을當하야 現在에는六割以上의 總戶住民이 生死의岐路에서 彷徨하고 잇다한다

龍井

醬油味噌釀造元 鮮一商會 主 許相 電二三五

酒類食料都散賣 滿香商會 主 千星海 電九番

圖書文房具化粧品商 文化社

吉田洋服店 主 趙仁洙

黃洋服店 主 黃鍾律

福田洋服店 主 金斗喜

松竹洋行

和洋百貨商 松原商店 電二一

ゴム靴紙物 吉松商店

カフェー銀河 電二三三

穀物株式會社

㊂荷主運輸株式會社

綿布雜貨 共信社

洋品店 松野商店

洋品店 山本商店

龍井日本人民會 會長 下條幸三郎

中央寫眞館

二道溝 雜貨布木商 申泰浩商店

二道溝 雜穀貿易 德盛泰

二道溝 東源泰 申甲濟

三道溝市 雜穀貿易 三和泰

延吉市 中央印刷所 主 尹東哲

圖佳線大荒溝驛 大陸運送部

圖們市北區 雜貨商 金永九商店 電話四七八

滿洲採金株式會社 延吉出張所

京圖線明月溝市 京城旅館 電七四番

000185

入道溝市 金鑛消費組合

百草溝市 金河淸

汪淸縣春融鄉長事務所

龍井市 協信社

龍井市 金時勳

龍井市 東洋書院 主 宋鎭基

龍井市 龍源居

龍井市 楊嗣聰

圖們市 ナショナル電器專門商 金昌起

延春興産株式會社 圖們支店

延吉市 東亞商會 崔學洙

延吉天主教堂 具傑根

延吉市 京城旅館 電三〇二

延吉市 人蔘不老酒製造元 三山酒造場

南陽坪 開興商店 林光希

南陽坪 布木商 雙吉號

開山屯市民會 角本德一

開山屯 羅河鍊

頭道溝 金融部 大野傳次郎

頭道溝尋常小學校 杉原

頭道溝普通學校 倉澤藤三郎

頭道溝電灯公司

頭道溝 大林津行 林重虎

頭道溝 徐秉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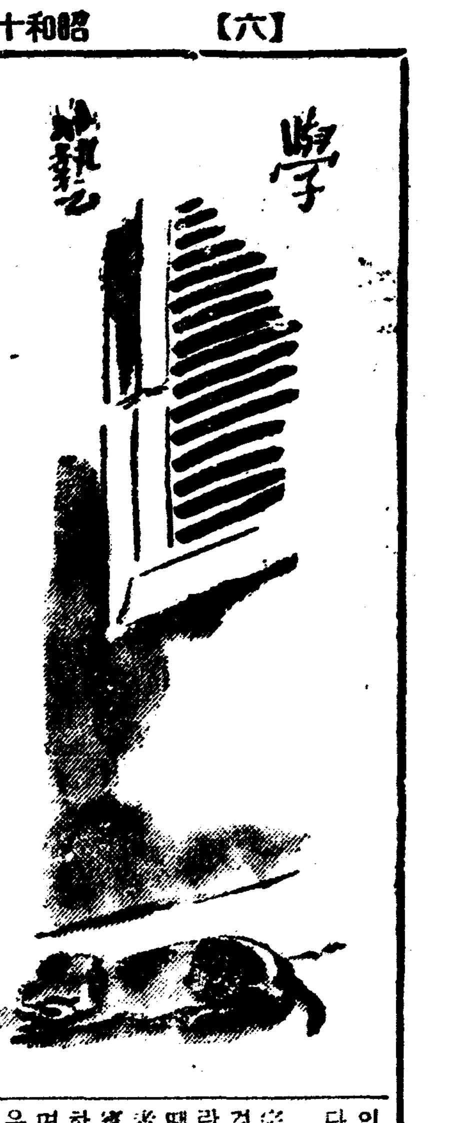
二道溝 茂松號 劉化泳 金斗七

三道溝 朝日旅館 主 金在順

延吉市 中央旅館

延吉市 春海寫眞館

11.1.30 CCC LIBRARY



正音字整理의새提唱

그具體案에對한私見을述함

② 洪起文

正音字가 생긴 以後 大槪로 세 時代의 變遷을 거치어 왓다。첫재는 世宗大王이 그製作을 끗내고 뒤니어 發表한 訓民正音이요 둘재는 崔世珍이訓蒙字會속에 附記해 노흔 字母요 셋재는 最近까지

閭 巷間에 流布되야 잇든 反切이다。勿論 이것은 이미 通俗的으로 알리어 진事實이다。여기서 區區히 그 相互의 間異를 比較列擧할 必要조차 느끼지 안는다。그런데 그 세가지 形式中에서 果然 어느 것이 낫고 어느것이 못하나? 하거를 더 들어가서는 어느것의 어느點은 낫고 어느點은 못하냐? 文字 乃至 綴字의 問題로서 全朝鮮語의 問題로 삼어서 曰可曰否를 되푸리하는 우리 朝鮮語學界에 잇서서도 일쪽이 거긔 對한 批判은 一言半句를 듯지못한다 그 萬一 그들의 넓지못한 視野를 말미암지 안는다면 적어도 그들의 깁지못한 研究를 인연함에 不外할것이다。그러나 視野가 좁고

態 度가 깁지 못하기로니 그 態度에 이르리라고는 넘어나 酷毒한 推測이 아닐까? 좀더 好意를 가저서 딴 原因을 發見하도록 참읏수는업슬까? 우리朝鮮語學의 研究家는 十中八九 訓民正音을 위하고 떠밧들어 方今 自己네의 是非도 다각각 訓民正音의 引證으로써 正當化를 도모하고 잇다。勿論 訓民正音은 正音字를 製作한 그이의 本意를 가장잘 表現하고 잇는 文獻인만큼 또 正音研究에 잇서 가장 貴重한 文獻임에 틀림이 업다。何如튼지 그들은 이미 세가지形式中에서 訓民正音을 가장 優秀한 것이라고 批判함에 一致된 폭으로써 오즉 그 具體的批判을

發 表하지 안하얏슬뿐이다 그批判의 發表가 忘却되든 것을 贊揚하는 것은 모르되 全혀 無批判으로 攻擊하은 穩當치 못하다고 생각된다。그러나 暫間만 기다리라。訓民正音은 果然 完全無缺 盡善盡美의 물건이냐? 나로 보아서는 적어도 세가지의 缺陷이 잇다고 보인다。첫재 그것은 四五百年前 그當時의 朝鮮語를 標準하야 맨든것이요 決코 四五百年後 오늘의 朝鮮語를 標準하야 맨든것이 아니니 『ㆍ、ㆆ』等의 無用字를 가지고 잇는것이 그 조흔 例요 둘재는 朝鮮語를 標準하야 맨든것보담도 漢字音을 標準하야 맨든것이니 모든音에다가 四聲의符標를 加한것과 ㅈㅅ의 두가랭이를 길고짜르게 하야 正齒

齒 頭의區別한것等이 그조흔 例요 셋재는 그역시 未完成品으로 發表된것 가트니 ㅁㅂ等아래 ㅇ을 連書해가지고 脣輕音을 맨드는것은 正音字 制字上의 特例일뿐더러 또 그脣輕音이 二十八字以外로 排除되것으로 보아서도 追後의追作이 아닐까한다。그이외에도 또 한가지 더 무르리라고들은 지금 곳 訓民正音 그대로를 復古하려고 하는가? 나는 그러타고 首肯하지 못 한다。첫저도 그 조흔 例요 둘재 ㅇ、ㆁ의 區別을 세우지 안는것도 그 조흔 例요 셋재 硬音符니 激音符니 새로운글짜를맨드든 것도 그 조흔例다。要컨댄 그들은 다각각

正 音字의 整理를 도모하는데 不拘하고 訓民正音에 對한 忠誠을 虛張키爲하야 짐짓 숨기고 잇는것이다。整理의事實을 숨기는것은 오히려 無妨하다만은 그러한整理가 흔히 無批判한 彌縫에 떨어지지 안흘까 扶하다。나의 對者들은 맨처음 正音字의 整理란 題目을 보고 大驚小怪하야 나를 주제넘게 알앗슬지 모르되 오즉 나는남과가티 標準工作을 行할줄모르기때문으로 내自身을 그대로 나타냄에 不過할뿐이다。나의 이르어노는 그 結果는 意外에도 平平凡凡할는지 모른다만은 나의 態度만은 어대까지 正當함을 自信하다。

高麗陶磁器小考

(四) 朴秉來

四、三島品 三島라는것은 陶器表面에 잇는 細小한 文樣이 잇는것이니 日本內地에서 예전의 三島曆에 近似하다하야 三島品이라 稱한다기도 하고 或은 陶器最初輸出港이 三島이엇다하야 三島品이라고 稱한다고도한다 左右間 이種類는 李朝陶磁에 屬할것이나 高麗象嵌의 末期로부터 始作되것인故로 알기 쉬웁게 高麗磁器部에서 說明코저한다 三島品에는 往往文樣의間에 白象嵌 또는 鐵로써 密陽、晉州、梁山、慶山、慶州、長興庫、慶州長興庫、昌原長興庫、長安庫長興、密陽長興庫、內贍、內資、禮賓、內資寺、仁壽府、德寧府등 文字가 記入된것이잇다 이와가티 官廳名 或은 宮名、或은 地名 또는 倉庫名을 區別하야 各編한것도 잇고 甲乙을區別한것도 잇다 이와가티 文字를 記入한理由는 官物과 私藏盜用의弊를 防止하고저 한것이라고 太宗實錄에 記入되여잇다。

故로文字記入된 三島品은 太宗十七年以前 產出된것이 안인것을 立證할수잇다 그中禮賓이란文字가 記入된것은 來賓이올때 使用하던食器라고 說明하는사람이잇스나 그런것이안이라 禮賓寺用의器物일것이다(禮賓寺라하는것은 現今外務省과가튼것이며 至今京畿道廳後側쯤되다)或은 器皿底部에 製作者의姓名을記入한것도잇스나 이런것은 稀少하다

(가) 普通으로 三島品이라하는것은 前述한바와가티 高麗象嵌靑磁의 末期로부터 李朝中年까지 계속된것이며 形狀이粗惡하고 色澤도一定치안코나 趣致은 雅味로茶道人의珍重愛好物이라할만치 되야잇다

(나) 刷毛三島 靑磁와가티象嵌을하고 그우에 化粧音刷毛로바른것 或은몇번이업시 化粧만刷毛로바른것이잇다

(다) 化粧音하고 또黑褐具를 附加한것도잇다

刷毛化粧은 現代人으로는 그 趣味가 多分하다하나 當時陶工이 刷毛化粧을 하게된가 어더하야

漢詩募集

題 春雪

押 風

限 一月末日

薄謝進呈

슬가 한번생각할必要가잇다。漫然히 刷毛化粧을하야 現代 우리로서 그刷毛目의强力을顯示하고저한것이 안일것이고 다만化粧彌藥을 經濟하고저하는 意思에서 나오것가다생각된다。그리나 窯安刷毛目用土品을보면 化粧彌藥이 多分히施工하야잇다 이것은 窯安用土品은 大槪土味가粗한것이만흐니 이런째으로 보면 彌藥을厚分히하야 器皿의耐久力을補强으로 補充하고저한생각에서 發端되출로믿는다。

五、天目釉 이것은 鐵砂釉或은 黑褐色釉藥을바른것이며 土質은厚分하고 灰白色或은白土이며 細工도精密하나 宋、元의建窯의影響을바든것이며 出土品中에는 그當時輸入되것으로생각되는것이만타。天目釉에는 日本에서銀彩輪을加한것도잇고變態窯이만타 따라서 耀天目 禾天目 鳥天目 花天目 油滴天目 斑天目盞 用大目 建盞 波皮盞等의 種別을하게되다

六、雜釉、練上手 雜釉에는 共條油 柿油等이잇고 練上上手라하는것은 白土와 黑土를 綜合하야되器物 이니 共文樣에 鍋羽과 相似하게 이것은 木理와가튼 斑文을巧妙하게낸것이다 此亦宋窯의 影響으로되것이다

七、素窯 新羅時代로 계속된것이며 地質은 灰黑色이나堅硬精密한것도잇고 粗細粗鬆한것도잇다 素文或은打文을 바른것도잇스나 此製物은 畢竟當代의 下等品일거시다

附加 高麗陶磁器에 共通으로特異한點이잇스니 高臺를 窯中에놓을때 砂上 貝殼、石、鐵利한器具에 노코서 燒成하난關係로現在이런方法으로된것을、砂高台貝高台、石高台及功高台等別名이엿다

以上말한 高麗陶器에對하야 簡單히알기쉬웁게 時代別로 區別할으로써 高麗陶磁의精華를상고저한다

一、仁宗ー毅宗(西紀一一四一ー一一六五) 高麗翡色時代

二、毅宗ー忠烈王(西紀一一六五ー一二七三) 高麗象嵌時代

三、忠烈王ー忠肅王(西紀一二七三ー一三五〇) 支那南北諸[illegible]高麗時代

四、忠肅王ー李朝中期(西紀一三五〇ー一四七〇) 雜窯時代 卽三島粉安時代

東瀛文庫雜記

石谿學人 洪淳赫

때는 바야흐로 舊臘末。校務에 바쁜 시끌 學徒에게 學藝部編輯子로 嚴命이 잇서 이와 余의 藏書에 對하야 그 內容을 指定하야 送稿를 催促하여 오니 이를 바 光榮이요 또한 慙愧하기 짝업는 일이다。쓰자니 보잘것업는 貧弱을 드러내어야겟고 또한 謙虛의 德을 損할터이며 그만 두자니 驕慢도 보이기 쉽겟는中 實로 告하면 朝鮮日報 學藝面은 筆者로서 感謝한 생각을 가지게 하는 宿緣이 기니 지금으로 부터 十年前 處女作 拙稿를 半月에 넘게 실어 斯學에 나아가는 길을 열어 주엇섯고 또한 不少한 稿料를 보내어 苦學生으로 어느 客窓에의 宿代를 물게 되엇슴이랴。」

筆者 朝鮮史學에 뜻 두게됨은 恩師 佐翁 尹致昊 先生의 敎導와 白堂 玄采 先生의 感化를 因함이오 若干 書籍蒐集에 趣味케됨은 家傳하는 古籍 예發과 渡美한 某氏로 讓與밧은 光文會刊 朝鮮叢書가 入手한 때부터이다。그後 東京에 留學하야 特히 東洋文庫와 그 東에 敬意와 興味를 가저 晋學하는 몸임에 不顧하고 朝鮮史에 關한 古文獻、內外國人의 硏究著述을 모사모아 한文庫를 만들고저 하니 誇大나 謙讓이 아니시 그저 朝鮮學人들의 얻을만한 書冊쯤은 具備하다고 할까? 東京留學 三年間에 한번도 못본것이 劇場과 遊園地와 自己 다니는 大學總長의 얼굴일새 神田、本鄕을 비롯하야 古本屋 消毒 봇흔 집을 거저 지내본적은 업는듯、사든 못사든 敬意만은 表하엿섯고 古書展覽會에 새벽 일쪽이 남보다 몬저 가본듯이 惟一의 趣味이엇섯다。돌아와 敎職生活 九個年에 사는집 한채 산것 以外에는 貯金 한分 업스니 우흐로 雙甲이 거의 되신 兩親이 俱存하고 아래로 여러 同生과 子息이 잇스되 아직도 雜念 못한것이 購書癖이다。平生의 꿈이 朝鮮學을 中心으로 하고 萬卷書冊을 모도아 스스로 硏究하고 또한 남에게 즐기어 빌리고저함에 잇나니 아직도 그 數를 헤어 보지 안흐은 萬이 못되기 까마득함이오 또한 萬을 만들기 어려움은 收入은 反比例로 주는데 冊・살곳은 남지 안으니 窮究念할것은 書價의 騰貴이다。

書架巡禮 (三)

스스로 目錄冊 꿋혀誠 書冊부 치어갈 오대一 余의死 後에書 冊과 若干 書畵와 陶磁器、本丁篇을 全部 ××圖書館에 寄贈하되 余의 書籍만은 갑고 가저가게하라는 고 써워잇다。三間房을 書庫로 하고 秩序整然하게 冊裝에 세워 두엇스나 좁아서 마루까지 侵犯하야 아이들 놀곳이 업게 되엇고 甚至於 웃房과 마루바닥에 그대로 싸허 둔것도 잇서 어떤 冊은 珍寶濫속 一等室에 호강을 하고 어떤 것은 문지와 다니는 사람의 발길에 天賦를 밧고 잇다。이어야 하나니 모두 珍本 本 稀本보다 더 貴하야 보저가진 冊이란 남가진 珍이요 稀本이다。한번 업서지면 첫재로 돈이 업서 다시 못사겟고 둘재로 落心되어 다시 못사겟스니 어찌 珍本이 아니며 稀本이 아니랴。이름하야 東瀛文庫라하니 家兄의 命名이요 堂齋의 額子를 바다 곱게 꾸미어 書案에 걸으니 樂亦在其中이라。스스로 妄言하야 一冊을 찾고 모르는데 寸才、寸能이 잇다 밋노니 어느 篤學篤志家 財團法人 朝鮮文庫를 만들고 筆者를 文庫직이로 雇傭치 안켓는가? 즐기어 모든 가진것을 寄進하고 忠實하게 집지켜 드리려 하노라。이러한 뜻이 잇으매 나의 藏書에는 印을 안찍는것이 近來의 習慣이다。編輯子는 이만으로써 雅恕하시라。

一九三六年一月二十三日 午前二時

책력이야기

음력이 양력만 못한리유

(三) 朴鍾先

어쨋든 우리가 서오든 음력은 양력만 못한것이 사실입니다。그러니까 그음력을 업새버리고 양력을 쓰자는 것입니다 아니지금우리는 음력과 양력의 두가지를 뒤범벅으로 쓰고 잇는데 두가지의 책력을 쓰는것으로 인하야 여러가지의 폐해가 생기는것이 사실입니다。그러니까 그중에서 좀더 편리하고 합당한것을 뽑아서 양력만 쓰고 음력은 업새자는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천여년전 서양서도 음력과 양력의 두가지를 석거서 사용한일이잇섯더랍니다 그때의 폐해도 지금 우리가당하는 그것이나 조금도 다름이 업섯더랍니다。

그래서 시사란사람이 집정관이 되얏슬때 단연 음력을 업새 버리엇습니다。우리도 어떠케든지 시사의용긔를 본바다서 음력을 단연 업새버리지안하면 안됩니다。

어떠분은 말하기를 농사를짓는데는 아모래도 음력을 써야한다고 합니다。그것은 스물네절후가 잇는까닭에 지나지안습니다。그러나 스물네절후란 본래 양력을 표준한것이 아닙니까? 그아니 웃으운소리겟습니다。또 어떠분은 말하기를 생일이나제사날에는 아모래도음력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그것은 오즉 습관을 직히려는 완고스러운 소견에 지나지 안습니다。그러나 일주년 이주년되는 그날짜로 말하면 음력보담 양력이 비교적 더정확하지 안습니까? 정확한 날짜로 고치어 지내는 것이 어떠습니까? 하여튼 음력을 고집할하등의 이유가 업습니다。

그저 나는 이만큼 어리석소하는 자긔고백에 지나지 못합니다。

물론 양력 그것도 아조완전한것은 아닙니다。거긔도 고처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첫재 한달크고 한달 적어가다가 왜 칠월팔월은 연거퍼 큽니까? 둘재 이월은 왜스무여드레가 됩니까? 본래 한달크고 한달 적고 꼭 차서대로 되는동시 오즉 이월만은 스무아흐레로 하로가 적어더랍니다 그런것을 시사의 조카되는 오거스터 황제가 자긔가 난달인 팔월을 적게 할수 업다고 이월서 하로를 더 빼앗서다가 팔월을 크게 맨들엇답니다。그것이 될말입니까? 지금와서야 그런 난폭한 행동의결과를 교정시켜야 안합니까? 그뿐이아니라 그이외에도 달을 크고적게 할것업시 매월 평균하게고치면 어떠냐는등 또 스무여드레의 이월을 윤년이라고 하야 하로를 늘리지말고 따방법으로 고치면 어떠냐는등 여러가지말이 잇습니다。그래서 모든것을 새로이 해가는 사베트、러시아에서는 물론이요 국제련맹에서도 그 문제를 연구하기에 이르른 모양입니다。아프로는 그것도 당연히 고치어 질 것입니다。사람이 쓰는 책력쯤 사람이 못 고칠리는 업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러코 우리는 위선 그 양력으로나마도 고처야 하지 안습니까? 양력이 아조불완전하다고 그보담도 더못한 음력을 쓸 맛이야 잇습니까? 더구나 날짜를 보아가면서 길흉화복을 가린다는 것은 말할것도 업습니다。

그것은 호랭이 담배먹을때 잇고 잇든 미신이올씨다 (끗)

今春 各學校試驗細規

(詳細는當校로直接問議하시오)

中央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一百五十名
◆申請期限 三月十五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六日至三月十八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須彼亞女學校

◆募集人員 五十名
◆申請期限 三月二十五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二十六日 至二十七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公州高等普通學校

◆募集人員 約百名
◆申請期限 二月十五日까지
◆試驗日字 自三月十二日 至十四日
◆試驗場所 同校
◆試驗科目 國語、算術

물깜을뽑어서 문의잇게 염색하는법

家庭染色技藝

물뽑끼염색법은 마치 가는 모래를 뿌려노흔것과가튼 고흡고 연한모형수예품이외다 다 이염색법도 역시 수건 방석 경대씨우개 쿳숀등에 리용하면 자미잇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구ー(用具)ー

이염색법에쓰는 기구는 가는 철사로 만든체와 헐귀알、압정 헌겁미테까는 널판자모조지ー(模造紙)、가위、참칼、대림、신문지、세수수건、접시그외에나무입 풋솜、실밥ー대개 이러한것들을 준비합니다

재료ー(材料)

헌겁은 털이몹시나지안흔모직물외에 무명 인조견 모시 비단 등의 연한색이나 흰것이면 다ー될수잇습니다

염료ー(染料)

무명이나 인조견 모시에는직접염료도 무관하고요 비단에는 산성염료를 사용하십시요

헌겁을 널판자에매는법

염색하려면 먼저 헌겁을 널판에 페울니다 헌겁에 구김살업도록 쪽펴 노흔뒤에 널판자위ー네귀에 압정을 꼽아놋습니다

염료푸는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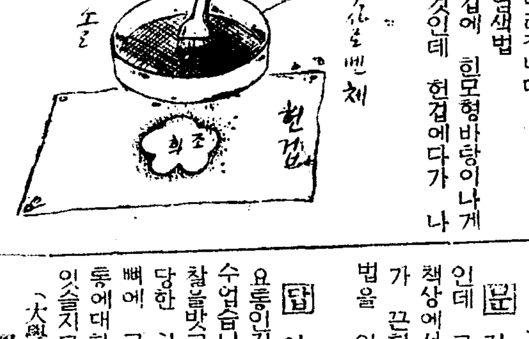
염료는 접시에담고 뜨거운물로 잘풀려서 먼저 다른헌겁에 묻처보고 마음에 드는상시프드래도 좀더 진하게 풀어야합니다

물뽑는법

그림에보시는바와가티 철사체를 헌겁우에 가차히 될대고바른손으로는 귀알에 물ㅅ감을조곰식 무처가지고 가만가만 문질느면 안개와가티 헌겁에 물깜이 떠러집니다。귀알을 할부로 놀니면 얼눅이가 저서 흉합니다 귀알은 될수잇스면 단단한것이 조흐나 너무 뭉깜을 만히 뭇치면 쇠체가 구녕이막혀서 거품이되고 물방울이되여 헌겁에 떠러집니다

긔본염색법

一、헌겁에 흰모형바탕이나게 염색하는것인데 헌겁에다가 나무입이든지 풋솜이나실밥 흥은 모형뜬조히등을 올려노코 물감을뿜으면 됩니다



二、헌겁에 물감을뿜어서 맨드는 모형은 모조지등의양지에 연필로 모양을 그리고 그것을 잘드는칼로 도려낸후 그조히를 헌겁우에너코 압정으로 누른다음 먼저처럼 물을뿌립니다

이러한순서대로 하는방법만알것가트면 몃가지색으로던지 물드릴수잇고 여러가지의 문의도 마음대로 맨들수잇는것입니다

물드린뒤에손질하는법

물드린것이 다ー마르면 이것을 뜨거운김을 쏘이든지 혹은 축축하게한든지해서 대림이로대립니다 대리는데는 신문지사이에 너코 대립니다

우리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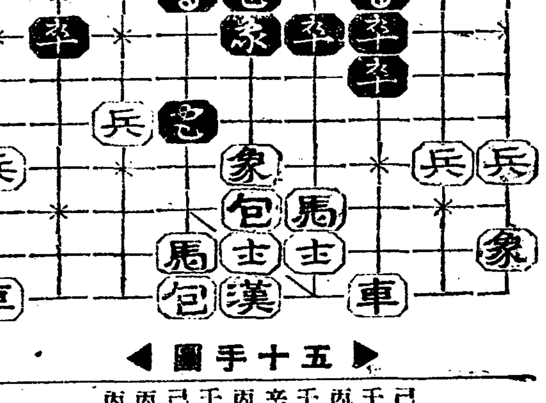
아침 학교갈 시간에
어서 가지안코 홍얼
거리고 서잇는 애는
어머니 한테 돈한푼
달라는 학생입니다。
돈을 주면 뭘하나요
사탕을 사먹거나 딱
총약을 사겟지요。
안됩니다 안돼요。그
런 학생 한테는 애가
코스등에 부른 밥풀
올떼어 먹여야지요。

(글사람 윤안수)

本社主催 將棋名手對手局譜 (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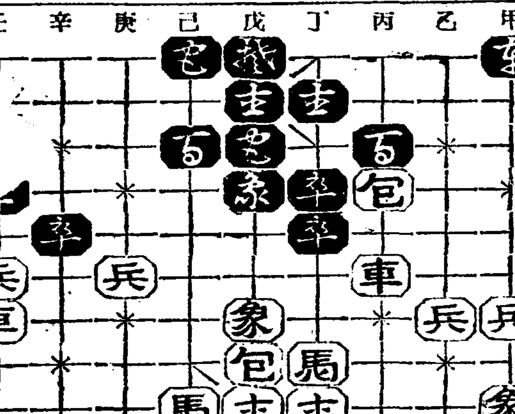
先手楚 李一象 李在鳳 漢 李英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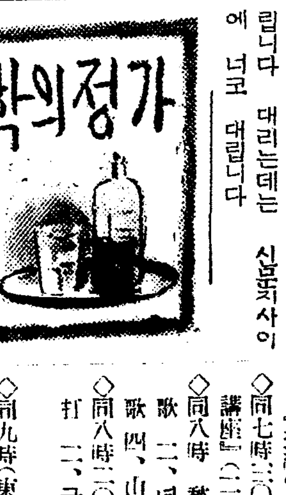
◀圖手十四▶



◀圖手十五▶

己六●ー己二
壬七兵ー壬六
丙五●ー丁五
壬七車ー壬七
辛四●ー辛五
丙七車ー丙六
壬三●ー壬四
己十包ー丙十
丙一●ー甲一
丙十包ー丙四打卒





요통(腰痛)

문 저는 금년십삼세의 소년인데 그런데 운동이나 장시간 책상에서 공부하든지하면 허리가 끈허질뜻하니 간단히 치료법을 알여주시요 (淸州 一讀者W生)

답 어떠한 원인으로 발생한 요통인지 진찰을아니하고는 알수업습니다。전문의에 자세히 진찰을밧고 그원인에 따라서 적당한 치료를 하여야 합니다。뼈에 고장이 업는것이면 신경통에대한 주사를 하면 효과가 잇슬지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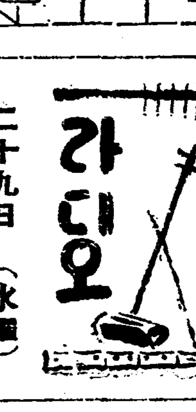
(大學病院 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분류(粉瘤)

문 나는이십일세인데 외편눈두등우에 밤알만한 혹이매치여잇스니 약도퍽사용하엿고 엇던의사는 해부하면 병신이된다고 하엿습니다 미안하지만 속히효력품을가르켜주시요(우ㄴ독자)

답 눈두덩우에나는분류(粉瘤)나 피양랑종(皮樣囊腫)입듯합니다 주의하야 수술하면 병신이 되는일이업사오니 안심하고 치료를 밧으십시오 약으로는 낫지아니할것입니다

(大學病院 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二十九日(水曜)

◇午後六時 童話『호랑이와맛음성』 金泰午
◇同六時二五分 經典解說『바이블의原文研究』 尹乙洙
◇同七時三〇分 講演(一)『朝鮮文化講座』 崔南善
◇同八時 제비가外 一、개성난봉가 二、방아타령 三、양산도 四、제비가 五、노래가락 六、창부타령 金一朶紅 [illegible]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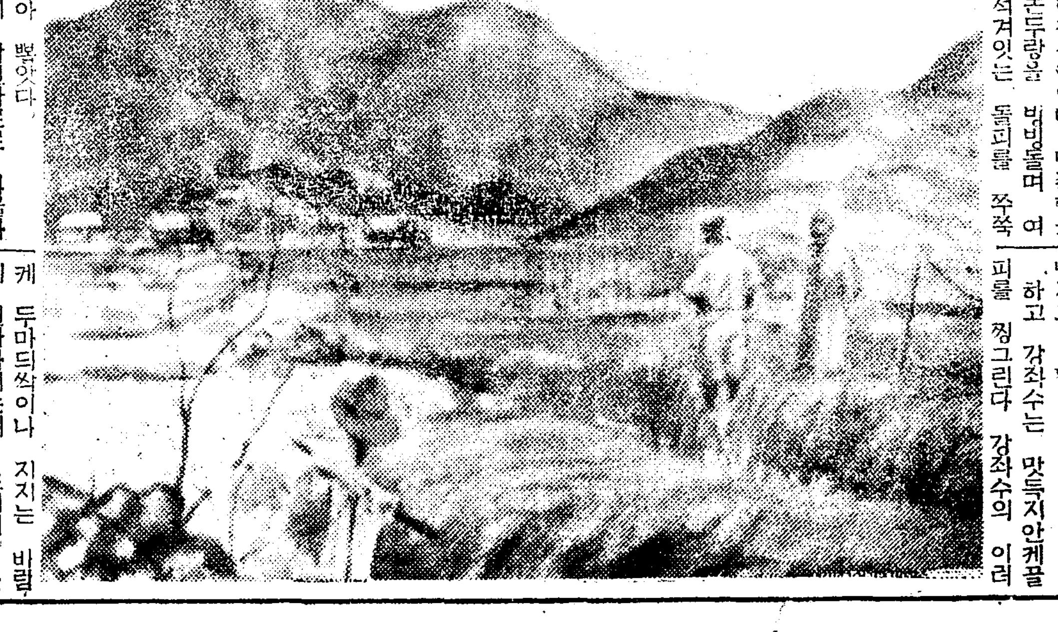
◇午前一〇時三〇分(大) 婦人講座
◇午後二、〇〇分 家庭講座
◇同六、〇〇分(京)傳說物語
◇同六、二五分(東)英語講座
◇同七時三〇分(東)講演
◇同八、〇〇分 琵琶
◇同八、二五(東)小唄
◇同八二五分(東) 管絃樂(合唱付)ー日比谷公會堂으로부터中繼ー 鎭魂曲 C短調 ーケ르비니作曲ー 武藏野音樂學校生徒 新交響樂團 指揮 아우구스트・윤겔
◇同九時 漫談野談(二) 申鼎言
◇同九時三〇分(東)

三十日(木曜)

◇午後〇時五分(東) 기타ー와獨唱、기타ー合奏及獨奏 一、合奏 樂興時介 버ー트作曲 二、獨奏
合奏 保坂女子 길후삼를
獨奏 保坂 裔子
(가) 알함부라의追憶…타레르가作曲 (나) 도ー롤……빠하作曲…세고비아編曲
三、獨唱 피아노伴奏 淺野 富二 今井 治郞
◇三時一五分 講演 趣味와奢侈 [illegible]
◇同六時 하모니카獨奏 崔英植
◇同六時二五分 趣味講演『指紋이야기』 朱鍾勳
◇同七時三〇分 講演『朝鮮文化講座』(二) 崔南善
◇同八時 愁心歌外 一、平愁心歌 二、[illegible]愁心歌 三、孔明歌 四、山念佛 李眞鳳 金玉葉
◇同八時二〇分 吹打外 一、吹打 二、굿거리 三、방아타령 三唱吹樂團
◇同九時(東) 獨唱과빠이오린獨奏 (가)獨唱『로엥그린』中빠ー그너作曲 一、『멜자의꿈』『리골렛토』中빠르디作曲 二、반가운性卿 三、나의太陽이여…카푸아作曲 四、가는봄…山田耕作作曲 五、芭蕉…小松耕輔作曲 (나)獨奏 一、印度의노래…림스카・콜사코프作曲 三、베바리아…슈ー버르作曲
(歌劇)獨唱菊 빠이올린 (歌劇)伴奏 菊池 綾子 大岡 運英 高折 宮次
◇同八時四〇分 歌曲 一、弄 二、編 三、羽樂 四、編 金蕉紅 崔明珠 楊琴・金相淳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三十一日(金曜)

◇午後〇時五分(東)토ー키ー中繼ー大阪빨七階파라마운트試寫室로부터「一九三六年의大放送」
◇同三時一五分 講演『女性과虛榮』 黃信德
◇同六時 唱歌劇『올빼미의眼鏡』一景ー金泰哲改作ー
【配役】 올빼미…尹完淳 참새一…金貞玉 참새二…金明姬 참새三…申泰順 가마귀一…李來瓊 가마귀二…崔於眞 가마귀三…李貞順 ー其他ー 京城童友會
◇同六時二五分 講演 처음호의短篇
◇同七時三〇分 講演 朝鮮文化講座(三) 崔南善
◇同八時 雅樂ー李王職雅樂部演奏所로부터中繼ー 一、管樂瑞日和之曲 二、細樂堯天舜日之曲 三、合樂靖東方之曲 指揮 樂師長 咸和鎭 李王職 雅樂部員
◇同八時三〇分 古談『忍其爲德』 張志浩
◇同九時 伽倻琴 散調와 竝唱 一、散調 (가)진양조 (나)중노리 (다)자진모리 二、竝唱 (가)短歌 白鷗야 (나)唱劇調 興夫歌 申桂仙 鼓手 韓相律



新春懸賞當選小說 轉落 (六)

車自鳴 作 金熊超 畫

칠룡이는 잠간안섯다 일어나서 자긔네논으로 휘적휘적 가보앗다 아츰에는 방버서 밋처못가보앗든것이다 다른벼들도 다잘되엿지만 칠룡이네는 더욱잘되엿것갓다 논배마다 누ー런벼이삭이 땅이 뵈지안케 척척 휘여들어지고 그것이 잇다금 불어오는 미풍에 곰실곰실 춤추는듯 물결치는것이 쩌안고싶게 마음에 흡족하엿다。

올에는 강좌수네가 특별히 논두마지기를 더주어서 도합 닷말지기를 붓첫다。

한말지기에 섬섬씩만나도 열닷섬ー도지를 저해노아도 칠팔섬은 넉넉히 내해가될것이다。그러면 그것만가지고도 전년 올진빗을 전부 당감할수잇슬것이다。

칠룡이는 제를직하긴 하면서도 강좌수의 논더준것이 한업시 고맙게생각되엿다。

그는 한참동안이나 만족한표정으로 논두렁을 비빙돌며 여긔저긔 섞겨잇는 돌피를 쭉쭉 쭉쭉 잡아 뽑앗다。

미력거리 압신작로로 화물차 두대가 지나간다。아마 읍내로 들어가는 차인가보다。이 신작로는 북쪽으로 빼더 국경연변에 들어다헛다。내후년이면 이 압흐로 대철이 노히다고한다。그때 철로공사만 시작되면 좀 벌어먹기가 풍성하겟다고 이고장 사람들은 벌서부터 헛춤을 삼키고들잇다。

유유히 흘으는 낭강에는 고기잡이하는 매생이한채가 한가히 올으내린다。

뱃소에서 나룻배를 물으는소리가 아렴풋이 들려온다 눈역여보니 두사람인데 한사람은이 끌안으로 처음 찾어오는 나그네갓고 또한사람은 등긔편지나 잇서야 꿈에 떠맛보듯 찾저오는 체전부갓다 오늘도 뭇지안어도 이끌작이에 깃분소식이잇거나 슬픈소식이잇거나 둘중에 하나는 분명히 잇을듯십다 원체 불행한 운명의 소유자들이라 무슨 깃뿐소식이 잇슬리업다 립도차압(立稻差押)등지서나 지불명령(支拂命令)가튼것이나아니면 전행일거다

사공이 만만이 안나오는지그들의 언성은 점점높하간다。저 사람들이 나루를 건너가면 이끌작이에는 우름소리가 어김업시 터저나올것갓다

×

「자ー이전 그만쉬고 점심까지 한참 갑시다ー」

녀자측에서 암장을선다 남자들도금이당배 한대씩을 더 붓처 뻑금뻑금 떼옷음더 빨고는 담배때를 집신바닥에 탁탁털어 뒷곡대이에도 찔으고 허리춤에도찔으며 어줄덩어줄덩나선다

주ー그서고 살펴보니 양전이는 노대하고 자리를 바구어섯다 이번 쉴참에 쑥더대느니바구어서기로 약조를햇든모양이다

칠룡이는 엇전지 마음 한편구석이 허전한것갓더다

「강좌수영감이 웬 일일까?」

「글세 일상 되식전부터 나오든양반이!」

이런대화가 잇슨후에도 한참만에야 강좌수는 겨우 거동을 나타내엿다

「으레히 나오십니다、」

한사람 두사람 인사하기를시작하는데

「머 쉬사안해도 괜찬호니 어서 벼들이나 베이게ー공연히일 밋지고……」

하고 강좌수는 맛득지안케끌피를 징그리다 강좌수의 이러케 두마듸씩이나 지지는 비럼에 인사차리는게 도리어」 반편상스러워서 어물어물하다가 한는사람은하고 못하는사람은 그대로 몰으는체 벼만 뭇적뭇적 베엿다

오늘은 자긔네일을하닛가 한모이라도 임밋집 생각을해서 그러치 만약 당은때에 인사를안차렷단『발복안 놈!』이라고마 조세원노고 추상가리 위엄을 피윗술것이다강좌수는 마면희색(滿面喜色)으로 논을 한바휘 휘ー돌고 내일 베일논까지 둘와본후에 다시 어기적어기적 올나왓다

「큰능지쪽으로 웬 괴상한 구름장이 떠도노?」

「암만해도 재미업는 증조가른 걸!」

모다 들으라는듯이 한차 두어마듸 중얼거리므로 벼베든사람들은 걱들이 더럭나서 고깨들을들어 큰능지쪽을 흘금흘끔 살펴보앗다

큰능지쪽우으로 난데업는 회황색구름한점이 동동 떠돈다

「호통!줄이처잡고도 닷새는 더 견듸여주어야겟는데……」

「이러케、할모형감이、대구를하들 베라구」

「말참견 할거업시 어서 빨리 제카 말려두는내논코 고사이 입밋지는게 엿갑든지 거더치운다

慶北道內의 細窮民
勿驚! 六十四萬突破
昨年末現在의 道當局集計로
流離乞食者도 八千餘

【大邱】 작년말의 경상북도에서 조사한 도내세궁민(細窮民)의총계수자를보면 십사만이천구백륙십상호에 인구가 륙십사만이천백이십팔인이란 큰수자를 내엿다는데 그중에 세민(細民)은팔만구천구백사십일호의 사십일만이백륙십이인이며 궁민(窮民)은오만삼천삼십이호에 이십삼만팔백륙십인이라한다 류리걸식하고잇는자도 팔천구백구십인에 달한다는데 륙십사만여명의 세궁민도 멀지안흔 장래에 걸식군으로 전락할운명이라하야 불안중에잇는 실로한심한 현상이라한다

溺水生徒救出한 奇特少年表彰

【安東】 경북선안동역과 량동강제방과의사이에는 재작년의대수재로인하야 일정가량이 나되는못(池)이되여잇는바 작년팔월이십팔일오후한시경에 안동읍신세동(新世洞)에사는 박귀수(朴貴秀)(一三)군이 전씨의장남태원(泰元)(七)군이 그못가에산보하든중 어린이들오륙명이 황급히떠들고잇슴으로뛰여가며살펴보즉 어떤아해가 물에휩싸여들어가 떠올랏다 전긔 박군은 모든위험을 무릅쓰고 길고도협의한물결에 뛰여드러가서 일시는두소년의생명이 모다위태하엿스나 마침내 죽을힘을다하야 물가까지끄을고나와서 그아이의생명을구해내엿다 이러케도 신긔하게구조를바든소년은 당시안동공립보통학교 사학년생황보진(黃甫振)(一三)이란 아이인데 이사실을 알게된 안동경찰서에서는 즉시경북도청에 보고하엿던바 수일전에야 모든수속을거처 도지사의명의로 인명구조의 표창장과 금일봉을 보내어왓스며 경안양조주식회사(慶安釀造株式會社)에서는 동군의장래를 위하야 동군을급사로채용되엿다한다

배하엿다한다

三百名極貧民에게 租一斗밥한끼式 池錫範氏盛擧

【牙山】 충남아산군 인주면내(仁州面內)세농민 이백여명은 해마다 한재(旱災)로인하야 초근목 [illegible] 의 곤란함을 [illegible] 지경까지 일으게되엿던바 동면금성리(金城里)에사는 지석범(池錫範)씨가 빈민 이백칠십명에게 조조(租)일두식을 분배하고 구정월일일에 점심한끼식을 접대하엿슴으로 일반은 씨의자선심에 대하여 칭송이자자하다한다

舊正初二浦에 火災

【兼二浦】 지난이십팔일오후세시 삼십오분경 황해도 황주군겸이포읍 곡정륙십사번지(谷町六十四番地)김사준(金士俊)의집에서 [illegible] 에서 발화하야 [illegible] 십오분경 겨우진화 되엿다는데 일시는 맹렬히 부는찬바람에야 옷집으로 연소될것이 념녀되엿스나 다행이 전긔김사준의집만 전소되고 마럿다는데 손해액은 약삼백원가량으로 동리김모(金某)는 불길이 이러나자 동집옹에 올나가 진화작업중 추락되여 다리와 허리등에 타박상의 중상을 당하엿다는데발화원인은 구정초라 술을 마시려고 부억에서 술안주를 끄리든 풍로의 불이 나무단에 연소된것이라한다

慶州에서 發生한 赤行囊襲擊犯人
東京에서 嫌疑者一名押來
慶州某郵便所員鄭某

【大邱】 작년십이월십사일 경주우편국(慶州郵便局)에서 발송한 적행랑(赤行囊)(현금이백오십원외 위체권재중)을 체부가 아화역(阿火驛)의 우편화차로 발송하고저 체송도중 돌연이 괴한이 낫타나서 단도로써 협박하고 전긔 적행랑을 랄취하야 가지고 흔적을 감추엇스므로 경주경찰서에서는 비상소집하야 경계선을 거미줄가티 늘려노코 필사적으로 범인을 수사하엿스나 별반의 증거를 내지못하야 경주경찰서에서는 도경찰부와협력하야 더욱 범인을 체포하고저 전력을다하든바 최근에 일으러 확실한단서를 어든듯한지 경주경찰서사법주임은 동경으로출장하야 지난이십칠일에 피의자를 체포하야 압송하엿다는데 경주군모우편소(慶州郡某郵便所)에 근무하는 정일성(鄭一成)(假名)이라한다

薪炭價暴騰으로 細窮民二重困境
當局의 伐木制限이 原因

【長淵】 고래로 장연지방은 신탄이 흔족한곳으로써 재작년까지는 실로 그가격이 저렴하려니 일반세궁민까지 신탄에대한 생활상곤난이란 알지못하엿섯는데 당국에서 신목(薪木)대상벌(帶狀伐)허가제를 실시한이래 자연 나무가 적어짐에 따아 나무갑도 점차고등하여지더니 지금에와서는 실로 대폭등을 보이고잇서 종래에 나무한차에 이원오십전이면 최상품을 사섯는데 지금에는 오원사십전으로 폭등하엿는데 나무를 대신할겨갑도 지난가을에는 한섬에 전밧게안하든것이 지금에는 오륙십전식이란 대폭등을 보이는 현상인바 일반 세궁민중에서는 불조차 따스하게 대이고 살수업는 곤경을 면치못하게되어생활상막대한위협을늣기고잇다한다

本報讀者慰安映畵
간곳마다 大好評
平澤서도 空前盛況

【平澤】 지난 이십칠일밤 평택공회당에서 본보독자 영화회를 개최하엿는데 본보조(趙)지국장의 간단한 개회사와 본사주내식(周鼐植)씨의 신문사 소개가 잇슨다음 아동교육에관한 영화와 여러가지자미잇는 영화가상영되자 륙백의관객들의 박수갈채소리가 끈일사이업시 대성황으로 종막되엿다

本社宣川支局主催
講演의 밤을 開催
演士는 京城李鍾麟氏

【宣川】 본보 선천지국 주최로 오는 삼십일일 오후일곱시에 선천읍 천도교회당(天道敎會堂)에서 리종린(李鍾麟)선생을 마저 『봄과가티새로워보자』라는 연제하에 강연의밤을 열게되엿다는바 독자제위는 물론하고 일반유지제씨는 다수히 참석하여 주심을 바란다고한다

站長報酬問題로
良民에게 暴行까지
洞民二十名道에 陳情

【新義州】 초산군도원면동창동백막점(楚山郡桃源面東倉洞栢幕站)에서는 참장(站長)의 보수지불에 대하야 팟(小豆)한말식이나 반말식이나의 문제로 협의가원만한 해결을 짓지못하고 면장은 이를 주재소에 조정을의뢰하엿든바 동소 순사 리모(李某)는 동민수명을 구타까지 하여 결국 한말의 결정을 지엇는데 전기 면장도 면사무소에서 전기 순사와가튼 폭행을하엿다고 이에분개한 적민(站民)현준범(玄俊凡)씨외 이십명은 도당국에 지청서(陳情書)를 제출하여 왓슴으로 도에서는 이를 군수에게 처리를 명하엿다한다

咸南、安東을連絡 多量의阿片密輸
一團十六名中十一名을逮捕
新義州署서近日送局

【新義州】 신의주경찰서에서는지난십일경부터 아편대밀수단 검거에 착수하엿든바 이십륙일에 이르러 일단십륙명중에 열한명을 검거하여 목하엄중취조중인데 전긔일단은 작년팔월부터 검거되기까지에 약칠십오관을함남(咸南)방면으로부터 구입하여안동현으로 밀수출한것이라는데씨명은다음과갓다

▲安東縣八番通 李東雨 金夏植 李康國 尹杜鳳 裵學順 ▲長甸 李雲益 ▲義州 金福中 崔東遠 安世文 崔柱鳳 ▲新義洲 崔明遵

舊新正劈頭에
人妻鐵道自殺

【汶山】 구신년벽두 미모의 부녀자살사건이 발생되엿다 그주인공은 파주군 임진면 사목리(坡州郡臨津面沙木里)삼백팔십칠번지 황원주(黃元周)의이남 의순(義淳)(一七)의처안씨(安氏)(?)로 소화구년시월에 전긔남자와 결혼하야 그날그날을 자미잇게 사려오든바 이십칠일아침여섯시경에 시가에서떠나 동일구시경에 장단(長湍)발 경성(京城)방면행(二一〇호)렬차가 문산역에 륙기로쫌압두고 진행중 돌연기차에 뛰여드러가 무참이도 죽엇다는데 자살원인은 알수업다한다

奇特한區長

【仁川】 지난 이십이일 옥천면 금귀리 김구장은 동리거주민 극빈자 십호 가족사십여명이 구세말을 당하엿스나 하등과세책이 업슴을보고 시내 유지를 발문하고 동정금을 모집하야 동이십삼일가 국비가족에게 약간의 쌀을 분배하엿다한다

一棟半燒
損害額二千圓
新義州府內火災

【新義州】 지난 이십팔일 오후 한시경 부내 초음정(初音町)영창(永昌)고무공장 신의주출장소에서 불이 이러나 일동을반소(半燒)시기고 두시경 진화되엿는데손해는 약 이천원가량인데 원인은 목하조사중이라한다

地方人事

◇李應高氏(廣信齒科醫院長)開業人事次本報長淵支局來訪

冬旱에 寒波繼續 上水道에 大異常
一日間故障二百餘件突破로
元山府修理에 忙殺

【元山】 동한(冬旱)계속으로 상수도의수량이 감소되는데 엇친데 덥치는 격으로 한파까지계속되여 륙마부민의 생명수를제공하는 원산부수도관까지 파렬되여 원산은 맛치물긔근지옥을 일봉지경이라고한다 죽 요지음 원산부 수도고장건수는 매일 이백건이상에 달하는터로 땅속의 동결이 심하야 부설관(敷設管)의 파렬혹은 『만호』루가온데 잇는 메독기(米量器)까지 파손되는 십년래 처음보는 현상이라는데 이로말미암아 부수도계에서는 고장수지정수와 수선에 안비막개의 지경이라한다

◇…京都中央保育園 同情音樂會場光景

異次頓의死 【84】
李光洙 作 / 金奎澤 畵

이차돈이 일어나는것을 보고 달님과 별님은 좌우로 갈라서서 이차돈이 지나갈 길을 비킨다。이차돈은 한참하야 두 여자에게 허리를 굽히고 걸어간다。

그 순간에 달님은 두 손을들며 놀라는 소리를 지른다。그것은 이차돈의 목덜미에 잇는 붉은 점을 본것이다。달님은 것잡을새 업시、

『이차돈 서방님!』

하고 소리를 질르며 이차돈에게로 달려가서 그 소매를 잡앗다。

별님도 달려가서 이차돈의 다른 쪽 소매를 잡앗다。

달님은 이차돈의 소매를 잡고 한 무릎을 땅에 꿀코 이차돈의 낯을 우럴어보앗다。

『분명히 이차돈서방님。아까부터 의심도 하엿건마는 머리를 깍으시고 오랜동안 고행에 떠도 수척하시고 또 눈찌와 얼굴에 속된 긔운이 하나도 업스시고、또 아모리 중이 되셧기로 이차돈 서방님이 설마 이러한 누더기를 입으시고 나물을 씻으시고 버케서 동자를하시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여서、기인가 미인가、게다가 노시님께오서 이차돈 서방님이 삼년전에 한개 어름구녕에 빠저돌아가섯다 하시길래 더욱이나설마 그러랴 하면서도。그러치마는 인제는 서방님 목에 붉은점을 보앗스니 분명 이차돈서방님 아아 관세음보살님 더분에』

하다가 달님은 말을 끈코 이차돈을 또 한번 이윽히 보다가、

『이차돈서방님! 그러라고 하시오。그러키로 한개에 빠저돌아가신 이차돈서방님이시면 이몸이 이러케 단단히 소매를 붓들고 얼굴을 우럴어볼수가 잇나? 이차돈서방님!』

하고 이차돈의 소매를 잡아 흔든다。

이차돈은 가만히 눈을 감고 섯다。

『이차돈서방님! 이몸이 죽어서 혼이 되어서 이차돈서방님을 한번이나 뵈어지라고 관세음보살님께 발괄하사왓더니 그원이 일러저서 이몸이 혼이 되어서 이차돈서방님의 혼을 뵈오는것인가。아까 분명 여긔서— 바로 이 자리에서 백봉노시님께서 이차돈 서방님은 삼년전에 돌아가섯느니라 하시는 말슴을 듯잡고 분명 이 자리에서 이몸이 긔색하야 슬어젓거든 그때에 이차돈서방님의 팔과 가티 힘잇는 팔이 이몸을 안아서 어듸로 쥬겨갓거든、그러면 이몸은 죽어서 그 애즐하던몸、서방님을 찻노라고 산으로 들로 헤매며 얼기도 만이 하고 땀도 만이 흘리던몸을 버서버리고 혼이 빠저나온 것인가? 분명 암자도 예와갓고 별님도 여긔 잇고、그러키로—아니 분명 이차돈서방님이시다。안그러나 별님아。너도이몸의 백갑절이나 천갑절이나사모하엿다는 이차돈서방님이아니 만하느냐。웨 소매에 매달려 울기시냐。이몸도 이 소매에 눈을 부비고 울어야 올흔가。삼년ㅅ동안을 그러케 쉬일새업시 솟아지고도 아직도 눈물이 남앗나? 서방님!』

하고 달님은 마치내 이차돈소매에 낯을 대고 몸을 떨리며 울기를 시작한다。

이윽히 눈을 감고 잇던 이차돈은 눈을 뜨고 두 손으로 두 여자의 머리를 만지며、

『달님、별님』

하고 불럿다。

달님과 별님은 울던고개를들어서 이차돈을 바라보앗다。그 눈은 부처님의 눈과가티 자비가 가득한 눈이엇다。

이차돈은 얼굴을여러、

『인생은 꿈과갓고 물ㅅ거품과 갓소。나는듯 늙고 병들고 죽고 못밋을 알이엽을 생각하고는 근심하고 뜻갓지아니한 뭇ㅅ일을 생각하고는 슬퍼하고 세상이 내마음대로 안된다하야 괴로워하고 내마음속에 일어나는 욕심과 사랑과 미움으로 부대끼고、인생은 괴로움이오、오는 괴로움의 근본이오 그러매로 석가세존께오서는 인생은 괴로움이니라 하시와 고、고집、고멸、고멸도의 네가지 이치를 설하시고、그러매로 인생은 모로미 애욕의 번뇌를 끈코 중생을자비하야 고해화택에서 건지랴는 대원을 세워 보시와 지계와인욕과 정진과 선정과 지혜와의 여섯가지 파라밀을 닥그라 하섯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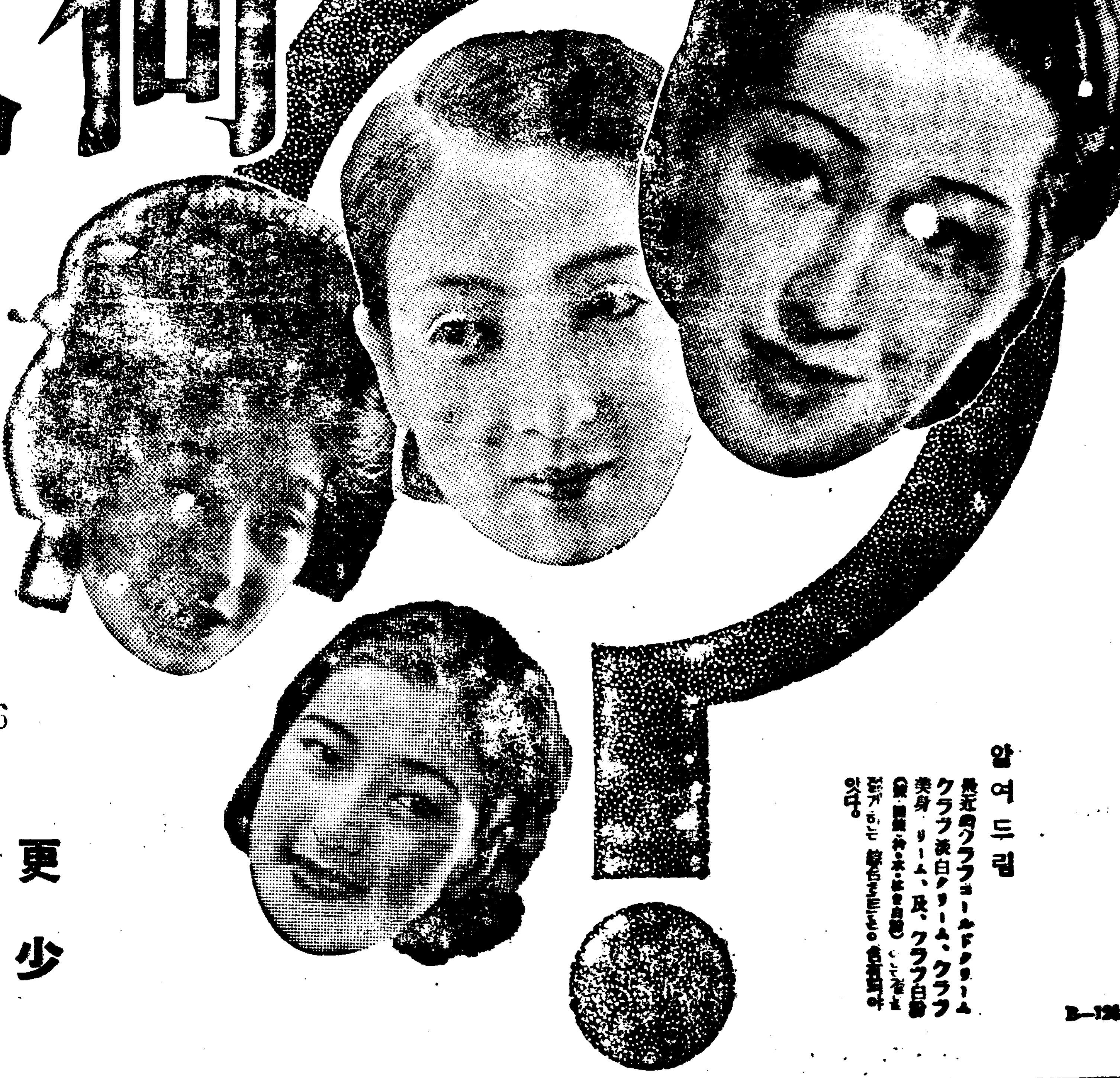
宣川
講演의 밤
▲日時 一月三十一日(金)午後七時
▲場所 天道敎會堂
◇演題『봄과가티새로워보자』
◇主催 朝鮮日報社宣川支局

延安
新春懸賞擲柶大會
▲時日 二月一日(陰正月初九日)午後七時
▲場所 邑內永昇館
◇主催 朝鮮日報社延安支局

鎭南浦
婦人擲柶大會
▲時日 舊正十四日午後七時半
▲場所 果物會社二層
◇主催 鎭南浦女性同友會
◇後援 朝鮮日報社鎭南浦支局

店村
新春擲柶大會
◇時日 二月一日(舊正月九日)午後一時부터
◇場所 市內日月館
▲主催 朝鮮日報店村支局

何故로언제든지 그러케젊어보일가요?



몰나볼만큼젊어지는 호르몬 美容法

最近、호르몬美容法은 언제까지나 靑春을保護하는 새로운 更少美容法으로써 評判이 굉장하게놉흐다。即、美容上致命的인잔주름과거츠름을—化粧品에含有된호르몬으로써防止하야、언제든지젊고어엽부게된다고하는 劃期的인 發明이完成되얏다。即專賣特許의、クラブ綜合호르몬을含有한クラブ乳液クラブ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이다。クラブ綜合 호르몬의特長은、特히專賣特許의 方法인바、內服과注射와 同樣의 效果로써、塗布에依하야皮膚의 表面으로부터 吸收된다。

特히、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의 호르몬은、國際標準品에依하야五、六倍强度로 作用함으로써、속살결노부터젊게하야 잔주름、거츠름防止、젊고젊은彈力잇는 살결을 지여내는比類업는 效果를 나타내고잇다。

クラブ乳液과藥用クラブ美身クリーム는、다시 體溫으로藥理的異常色素、惡脂肪을分解解消식히는專賣特許의〃醗酵素의配合에依하야、숙은깨여드름을防止하며、눈넘만큼히고어엽분살결을지여낸다。十八歲頃부터女性들은꼭使用하시라!

알여드림
最近의クラブコールドクリーム、クラブ洗白クリーム、クラブ美身クリーム、及クラブ白粉 [illegible]

更少化粧水

クラブ乳液 (구라부)

專賣特許 綜合ホルモン 醗酵酵素 含有

000186

經濟解說

"米穀의事情" 大體어떠케볼것인가 ②

申泰翊

오늘에잇서 日本內地 米實收高發表의數字를 가지고 米穀需給의 推算을하면 今年十月末으로부터 新米穀年인 十一月로 넘어갈때 期待數量은 九百萬石을 잡게되지만 이中에 政府持米가 六百萬石을 占하고 그남어지 約四百萬石이 民間에 돌고잇슬것임으로 民間의 米穀需給의圓滑을 期키어렵다고 볼수잇다 더구나 政府持米의 六百萬石은 그대지 만흔數量이 못될뿐만 아니라 이六百萬石中에는 그大部分이 八年産米인만큼 이것으로써 米價調節을 함에잇서서는 그힘이 弱하다고 보며 따러서 이것을 政府의 弱點으로 잡는것이다.

× 그래서 政府는 더욱 新米를 買上치안흘수업는 必要를 늣기게되다。오늘에 政府가 新米를 買上함에는 두길이 노혀잇다 即 첫재로 被米穀年度에잇서 米穀出廻期節上 요새와가티 新米의出廻가 旺盛한때에 米穀統制委員會의議를 거쳐서 必要한 數量의買上을 할수잇다 둘재로는 米穀統制法에 依하야 民間에도 米價가 不足한것을 緩和케할必要로 拂下를 하지만 이만한數量을 新穀出廻期에 다시 사드린다는 條件付로되는 擴張가 잇는바 即 新米穀年末에잇서 約 百萬石의 買換條件付拂下가 잇섯든만큼 지금에잇서 그만한 數量을買上하여야만될다 이와가티政府로서는 新米를 사드릴 두길이 잇다 그러나 政府는 이 米出廻旺盛期에 잇슴을 不拘하고 容易히 買上에 손을대이지 못하고잇다 이것은 달은때문이 아니라 政府가 쌀을 買上한다는것은 米出盛旺으로因한 米價低落을 막으랴는 것이며 그래가지고서 米出廻期가 지내간뒤 米出廻가 적은때문으로 米價高를 나타낼 때에 이것을 막기爲하야 拂下하는데 그目標가 잇다 그러대 오늘에잇서 거의年例가업는 新米出廻期의 米價高를보고잇는이때에 政府로서 容易히 買上치못하는 理由가 이곳에잇다

× 그러나 이미 日本內地米의實收가 增收로 發表되고 또는 今年度의 米穀需給上 相當한 程度의 米價高는 必至할것을 살피고 政府는 公定最高價格을 前年보다 顯著히 노피엿다 그리고 이처럼 머뭇거리다가는 米出廻旺盛期를 놋처버리게될 念慮도 不無하다고 해서 一般은 政府로부터 買上을 不遠에 斷行할것을 豫想하는傾向이 만코 딸아서 米價는 保勢의거름을 떠나지못하엿다 그러나 政府로 부터는 一向何等의 買上消息이 업는다 이때문에 따로는 買上에 對한 失望의 低落을 나타내인다 그럿치만 이것은 한때의 波動에 끄치는 거름에 不過하고 依然 大勢上으로는 需給不圓滑豫想에 基礎를 둔 米價高騰이 優勢하다

× 그렇다고 해서압호로의米穀事情을 高價圈의코ー스대로 만展開될것을 미더야 올흘가

이에對하야 먼저 그와 反對되는見解를 드려보면 이러하다 即 ▲첫재로 新米出廻旺盛期의 오늘에잇서 需給念慮를 너무 밋고나아간다는것은 尙早한感이 잇슴뿐아니라 매우 危險性이잇서보힌다 ▲둘재로는 需給念慮를 말하지만 이것은 今年米作이 또凶作으로 되면 모르되 그럿치안코 米作季節에 드러가서 日氣가 適順케되는境遇에는 그 需給念慮는 相當한緩和를 보게될것이다 ▲셋재로는오늘에잇서買上外에는 쌀값으로하여금 上向케할 强材料가거의 出盡된傾向이 잇다 以上의諸點을 가지고서 압호로의 쌀갑을 무리대이고 노픈갑이잇기를 바라는것은 考慮할바라고 말한다 ―(續)―

預金,貸出高로 본 四普通銀行業績

昨年末決算面數字의比較 商銀이 斷然首位

京城에 本店을둔 四普通銀行의 昨年十二月末日 決算面에 나타난 預金貸出을 比較해보면 資本金大小에도 依치니와 如左히 그差가 顯著한것이잇다。

먼저 貸付金勘定을보면 商銀四千七百七十萬一千圓 漢銀二千九百七十二萬九千圓 東銀一千六百五十六萬八千圓 海銀二百四十五萬一千圓으로서 商銀은 漢銀、東銀、海銀을 合한것보다도 칠신하고며 海銀은 商銀의 二十分一 漢銀의 十三分一 東銀의七分一에 相當한 少額이다。

그다음 預金勘定에잇서도 商銀四千六百五萬九千圓 漢銀二千六百七十二萬七千圓 東銀一千五百九十七萬五千圓 海銀百九十九萬三千圓으로서 亦是商銀의 預金勘定은他三銀行合計分보다칠신만흐며 海銀은 商銀의二十三分의一、漢銀의十三分一、東銀의 七分一에 相當한少額이다 海銀이 以上과가티 預金貸出에잇서 稀少額을 示함은 他銀行에比하야 資本金도적고 支店도적은것에依한 것이라할지라도 銀行統制時代에잇서서 如斯한 少規模의銀行은 特히注目되는터이라한다。(以下單位圓)

	▲商銀	▲漢銀	▲東銀	▲海銀
貸付金勘定	四七、七〇一、九〇四	二九、七二九、九一七	一六、五六八、五五九	二、四五一、二六五
手形貸付	四一、二五五、九三七	二五、四四七、六〇七	一四、〇九九、五〇三	二、一九九、一三三
證書貸付	五、四五〇、八〇〇	三、二四六、〇〇一	二、一二三、四五六	四一、八〇六
當座貸越	一、〇九五、一六六	一、〇一六、一九六	一九五、三二九	一一一、八三六
預金勘定	四六、〇五九、六六〇	二六、七二七、一〇八	一五、九七五、七九七	一、九九三、五五九
公金預金	三、四四〇、七〇九	―	―	―
當座預金	七、六六六、〇〇七	三、三六六、一〇〇	三、一七七、七五五	一八〇、八一〇
特別當座	九、八九九、一六五	五、九九七、六六七	六、二〇三、〇〇〇	二四四、五四二
通知預金	一、二〇〇、八〇四	一、五四〇、八六五	七七六、四〇二	一二、九四八
定期預金	二四、三五七、八六〇	一五、三四八、二三三	六、四四三、〇三〇	一、二五四、二三三
別段預金	一九二、〇二五	四七三、二〇四	三五五、六九八	二四、〇五五

四普通銀行의 資本金을 보면 如左하다。△商銀=資本金九百九十二萬五千圓(未拂込資本金四百九十五萬圓) △漢銀=資本金三百萬圓(未拂込資本金百十二萬五千圓) △東銀=資本金四百萬圓 (未拂込資本金百二十二萬五千圓) △海銀=資本金二百萬圓(未拂込資本金百二十萬圓)

事業部의新設로 金組聯合餘裕金

處理方針을決定

金組聯合會에서는 來四月부터旣報와如히 事業部를 新設하야事業指導에 進用하는同時에 一面金融債券에依한 獨自의 資源開拓上東京에 出張所를 設置하고 預金部低資其他資金吸收에 便利케하야 名實共히 朝鮮內의 協同組合運動中樞機關으로서의 機能을 發揮할터인데 이陣容整備機能强化에 伴하야 金組聯의事業收益(餘裕金)은 累年著增의傾向이고 이處置가 問題視되기에至한바 이問題에 就하야서는 總督府理財課에서도 愼重考慮하고 金聯當局과도 協議한結果如左한根本方針이 決定되엿다。

一、協同組合의 中樞機關인 反面金融機能으로 公正한 餘裕金은 一部를 積立하야 信用資源이되게함

二、그러나 이는一定限度로서足함으로 其他의 餘剩은

가、金融組合에서 資金貸出利率低下

나、金組의 事業擴充費의 金組聯經費支辨

다、償却의 高度化 等에充하리라한다。

此等方針은 從來도不文律的으로 踏襲하야온것이다 新陣容强化와 共히 重要性을加하야 明白케된터이라한다。

外安追加 輸入數量

配給組合이異議

【東京電話通】硫安配給組合에서는 二月一日京橋味乙哩罷에理事會를開하고 本年度協定의 外安十二萬五千키로噸을 六月까지에 全部輸入完了할것을協定할豫定인데 農林商工兩當局은 需要最盛의 供給不足念慮에 伴한市價昂騰을 抑制코저 追加輸入을

朝鮮內鰮粕을 全購聯大量契約

硫安暴騰의關係로

朝鮮産鰮粕의 新需要는 增産에 依한 供給增大와 硫安狂騰에 比하야 低價임으로 盛히 需要範圍를 擴大하고잇는데 今年은 日本內地 全購聯에서 積極的으로 朝鮮産 鰮粕의 大量買付를 行하고 그成約은 이미 三十萬俵에 達하야 本肥料期에는 四十萬俵를 突破할 모양이다。全購聯에서는 從前 朝鮮産鰮粕은 거의 年間 二、三萬枚의購入에 不過하고 九年度도 十五、六萬俵에 不過하얏스나 今年은 大體 年間 四十萬俵의大量購入을 行하고잇다 其他 周知와如히 朝鮮內農會의 特約購入이잇서서 鰮粕은 增産念慮에不拘코 자못 順調賣行이라 한다。

殖産契設置

各道配定決定

殖産契의 設置는 各道와 財務局間에 折衝中이더니 初年度分으로今年度來에 創始할各道配定은 다음과가티 決定되엿다

京畿 一〇 ▲忠北 五 ▲忠南 五 ▲全北 七 ▲全南 九 ▲慶北 一〇 慶南 八 黃海 七 ▲平南 七 ▲平北 六 ▲咸南 五 ▲咸北 六 ▲江原 七

이것은指導組合에 三百圓의國庫補助를주어 組合指導알에設置케할것이라고한다

四트럭會社 朝運支配

通運持株買收로

朝鮮運送會社에서는 朝鮮트럭、朝鮮運輸、湖南트럭會社의 國際通運持株를 買受하라고 過般以來 河合專務가 渡東하야 通運本社와 折衝이더니 通運持株를 二十八萬圓으로써 買受하고 右四社의 事實上實權을 朝運이 掌握케된바 二月一日부터 朝鮮運送支配下에 各各營業을 繼續키로 되엿스며 딸허서 各社는今月三十一日까지 各各 臨時株主總會를열고 그承認及 重役의改選을 할터인데 商鮮運輸(大邱)의社長 坂本俊資氏가 그대로 重任하는外 그밧게 三社에는 同合運輸社長이 社長으로 各各 入社키로 되엇다고한다

鎭南浦의 滯貨激增

一萬噸의程度

鎭南浦港內外의 流氷으로 目下入港中인 第五東盛丸(澤山商會)第二雲洋丸(大阪商船)은 出港되지못하고 또出港途中凍結한 小鵬丸(近郵)도 解氷期까지에 難航하야 以上三船은 總計一萬噸內外의 米穀을 積載코잇스며 이外同港의 滯貨는 이때문에 一萬噸內外로 推算되어 同港을中心으로한 商取引의 杜絶은 意外로 莫大한것이잇다한다

現行商法改正案

그全條文內容 (10)

第百四十四條 社員이 死亡한境遇의其相續人數人이잇슬時는淸算에關하여 社員의權利를 行使할者一人을定함을要함

第百四十五條 第八十條에定한社員의 責任은 本店의所在地에서 解散登記를한後 五年內에請求又는 請求의 豫告를하지안은 會社의債權者에對하여서는 登記後 五年을經過한時에消滅함

前項의 期間經過後라고 하지만은 分配하지안은 殘餘財産이仍存할時는、會社의 債權者는此에 對하여 辨濟를 請求함을得함

第三章 合資會社

第百四十六條 合資會社는 有限責任社員과 無限責任社員으로서 此를 組織함

第百四十七條 合資會社에는 本章에別段의 規定이 잇는境遇를 除外하고는 合名會社에關한 規定을準用함

第百四十八條 合資會社의 定款에는 第六十三條에 揭한事項外에 各社員의 責任의 有限又는 無限이라는것을 記載함을 要함

第百四十九條 合資會社의 設立의 登記에는 第六十四條第一項에 揭한 事項外에 各社員의 責任의 有限又는 無限임을 登記함을 要함

第百五十條 有限責任社員은金錢其他의 財産만으로서 其出資의 目的을 다함을 得함

第百五十一條 各無限責任社員은定款에別段規定이업슬때는會社의業務를執行할權利가잇고 義務를負함

第百五十二條 支配人의 選任及解任은特히業務執行社員을定할때라할지라도 無限責任社員의過半數로써決함

第百五十三條 有限責任社員은營業年度의 終에잇서서 營業時間內에限하야 會社의 財産目錄及貸借對照表의 閱覽을 求하고또會社의 業務及財産狀況을檢査함을得함

重要한 事由가잇슬때는 有限責任社員은 何時던지 裁判所의許可를 得하야 會社의業務及財産狀況을 檢査함을得함

第百五十四條 有限責任社員은 無限責任社員의 承諾이잇는 時는其持分의 全部又는 一部를他人에게讓渡함을 得함 持分의讓渡에伴하야 定款의變更을 生할時라도 亦同함 ―(續)―

貯銀不動産貸

今期부터再開始

貯銀에서는 昨年以來 不動産貸付限度의 飽和로因하야 貸出을中止하든바 昨年末決算에잇서 積

뉴욕聯邦準銀 廿億弗을引出

◇...金準備中에서

【華盛頓二十八日發同盟】뉴욕聯邦準備銀行은 聯邦準備銀行의金準備中 同行分크레디트三十四億一千八百萬弗에서 二十億弗을끄내엿다 그러나 이것은 政府의通貨政策에 關한限 그다지重大한 意味가잇는 行動이아니라 뉴욕聯邦準備銀行으로서는 오즉그 크레디트에 對하야 財務省에잇는 크레디트의 普通預收證券 가지고잇든 그代身에 金證券을 가지라고 希望하야 右引出을한것이라고한다

北朝鮮三港間 特定運賃을改正

◇...鐵路總局發表

【奉天廿九日發國通】哈爾賓方面에서 北朝鮮三港間의 特定運賃은二月一日부터 實施할滿洲鐵道運賃改正에依하야 大連間에 比하면 商業로 改正을 要求하든바 이번特定運賃을 다음과가티 設定하고 二十九日 鐵道總局으로부터發表하엿다 哈爾賓方面發淸津、雄基、羅津의北朝鮮間 輸出特産(穀物種子類) 特定運賃을 一噸十六圓으로改定하고 三月末日까지 暫定的으로 實施한다 그結果 大連向運賃에 比하야 一噸八十錢低率로 될것이라고한다

滿洲農作物被害

三月十日調査發表

【新京電話通】滿洲國實業部滿鐵의 協力調査에依한 農作物의 實收調査는 來二月一日부터 約一個月間에亘하야 行하기로되어 이미 調査員은 目的地에 出發하얏는데 正式發表는 三月十日頃 豫定이오 이結果는各方面에서 注目한다고

米日爲替暴落

【京城廿八日發同盟】廿八日의米日爲替는 前日에 比較하면 二十九弗十八仙으로八仙低 二十九弗十四仙으로八仙低落

▲東京爲替(廿九日) 對米 賣 廿九弗十六分一 買 廿九弗十二分三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卅二分一

▲大阪爲替(廿九日) 對米 賣 廿九弗 買 廿九弗八分一 對英 賣 一志二片 買 一志二片卅二分一

外國郵便爲替

全朝鮮郵便局所에서 取扱한昨年十二月中外國郵便爲替의 振出件數는 七百七十件 그金額六萬三千四十八圓이며 또 拂渡件數는 六千九百五十七件 그金額十四萬一千九百六十一圓으로 差引七萬八千九百十三圓 外國에서 朝鮮에流入한것으로되엇다

商銀米資貸出

廿五日商業銀行의米穀資金貸出은 米穀擔保貸 四百九十萬圓 荷爲替 二百十二萬圓 合計는 七百二萬圓을示하야 昨年末보다 十三萬圓이 減少하엿다고한다

銀行會社總會

▲殖産銀行 二月十五日午前十時부터 定期總會를열고 今年九分配當을附議할터이다

▲京江陸運 京畿、江原의 十三트럭業者의合同인 三十日春川에서 合同會社京江陸運株式會社(資本金五十萬圓全額拂込)의創立總會를開하고 創立에關한 附帶事項을 決定하리라한다

다시꺽긴東新

銀新이 뛰는바람에 三十日低價에서 七圓十錢戾한 百五十五圓九十錢 東京短期東新 百六十二圓 前場際一圓臺로 다시꺽기엇다 이미 低價에서 七圓戾이엇스니 三分一戾는 곳난세음이오 戾買物로 高價를抑壓키가 쉬울모양이다 內外悶情勢는 明朗性을缺하고 政局不安視도 不去하니 買方因果玉의 一掃를 目標삼는 軟派가 가만잇슬理업고 東京短期取組도 다시四十萬株가되어 形勢로 增加되어가는것도 자미업는 事態이다

買煽의前途觀

銀新高는 現經濟展階에잇서特筆할 現象이同時에 今後의投資的方向을 指示하는것이라하야 投資家로서는 更細한株價의 高低를떠나서 注目할價値가 잇는것이오 一面蒙古와 北中國에 着目한鐵新의 積極經營은 今後財界指標이라 하야 前途를樂觀하는모양이나 山一의 鐵新買煽에對하야 期待하는데에서는

當限納會微波

初立會以來 二十日까지의低落으로 高價取組는 整理되고分彈이적지안허 今前場의 阪東當限納會도 不得한다고 樣理이다

後場不變

後場은 大阪長期休會, 短期一時間立會로 當地도 閑散不變

前場下押

今前場은 昨後場急騰된 뒤를 이어 一齊商機 高價買不振으로 一齊下押하야 結局昨引不勢로 東新一圓四十錢低인 百六十一圓五十錢、鐘新三十錢低인 百四十錢、大新七十錢 日産六十錢低인 九十一圓六十錢、日産十錢 各大引되고 朝新三十圓三十錢、日産一圓六十錢이엇다

商況 (廿九日)

高價不變 株式 下押

東新과鐘新同轍

三十七圓五十錢拂込한 東新과 十五圓拂込한 鐘新이 同轍로되엇다 東新은 投資股株로서의 半年을 前하야 山一의 買煽으로 因한이라하나 十二圓五十錢拂込을더한 東新의 同轍는 形勢의 意義로서 買方이 先鞭이엇다

實物株前場取引

▲朝鮮石油 ▲北鮮製紙 ▲日滿이루미 ▲에다파이新 ▲旭石油 ▲片倉製絲 ▲昭和人絹 ▲郡是製絲 (取引高 一八〇枚)

少戾後에 保合

前場下押 前場後 阪地三十錢高 東新二十九圓二十錢에 寄合 ... 後場保合 後場은 二十九圓 二十錢에 四錢高로 始하야 結局 二十九錢에 止하엿다

軟陣엔無將?

馬越老軟化로

過去一年間을 買一貫의 方針을 堅持하여오든 堂島市場의 唯一한硬派將인 馬越一派가 客月末부터 그態度가 曖昧하야 買擊戒를하는觀이 업지아니하든바 其間世人의 耳目을 가리어秘密裡에實際賣買를 하다가 結局그의旗幟가 鮮明하게되엿다 實로目前의仕手關係로보면 堂島의 賣方은約變한 馬越을비롯하야 山崎、田中、貴田의 主力賣方이 威力을보이고잇스며 强派이엇든 海屬、江草等强派는 昨日에 損退하엿슴으로 硬陣中에는 澤政、櫻井兩派뿐으로 이러타 할만한 主力賣方이업다 實로 買方은無將의卒이나 無異하며 從하야買方은 更히 抗戰할 餘力이업는모양

軟派의大勢觀

又復一落難免

今回實收樂觀의 行動을다하지못하고 政府의 買上이잇슬것을豫期하엿든 關係로 低落途中에서 反히 二十餘丁의 昻騰을 告하엿섯다 그러나政府의 買上은一般의豫想과 背馳되어 어느時期에實施할지모르는 狀態일뿐아니라日本內地米實收高의 比較的樂觀을豫하고 買方으로 唯一한猛將이든 馬越一派의 態度가依然軟化함을따라 一段反落을 告하엿다 그러나 償借하는 農家의態度는 政府의 買上이 遲延됨

損退當의 一落을 告하지안흘가 한다 果然上記의 모든大手側이何時에 突變할지는 몰으나 綁聚賣方을 節落하지안코는 旣定方針을 變하지안흘모양이라고云云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賣方 買方 / 中限 / 先限 [illegible]

▲株式側 處分地場正米側 台灣側 ▲中東側馬越東京側 神戶側 ▲買方=朝鮮側利喰 地場利喰

各地正米

京城不味

賣方共히 形勢傍觀으로沈默이나 今朝는期米低를보고氣配十錢引弛인 丸仁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軟化

淸鮮은 氣迷狀態이나마産地動搖의비치 보이지안코 實物을出치안코나 一方賣方은日本內地와맛지안허 買氣不旺이오 各地低를본고 十錢軟化인丸仁三等二十八圓九十錢 四等二十八圓六十錢 一等白米二十二圓

釜山軟調

市場實物一千叺 定期의 不透明으로 買入總傍觀하고 市況은 十錢의 軟調이나마 産地는 意外로 引緊지안코 角ㄱ三等二十九圓二十錢 四等二十八圓九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卅六錢

大邱不振

淸算의 不透明으로 賣方이 消極的方針을 버리지안코 市況極度의 閑散에 陷하야 唱은 十錢低인 角ㄱ三等二十八圓七十錢 四等二十八圓四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錢

群山小弛

依然産地의 賣氣

木浦閑散

定期의 不味와 日本內地의 買氣委縮으로 取引이 極히 不振이오 市況沈靜에 保合인 丸木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二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八十錢

市場六感

株 拂込徵收後의 增資豫想까지를 材料삼어 山一의 鐵新買煽은 어듸까지 發展할지 一般의 ▲受株戰法에 出함으로 逆日步樂進으로 賣方을困難케하나 이러한 無理가얼마나繼續될가? ▲買思惑이란元來成功키 어러운것이 거의定則이라는데 鐵新의 이번買思惑은 果然得勝할가疑問▲昨年末東新에 큰期待를가저 所謂大市勢를 云爲코 取組가大膨脹되엇다가 今春 結局失望投한 前轍을 鐵新도 밟게되지나 안흘가? 念慮 ▲東新도 七圓戾를示키는 하얏다만 戾賣에눌

米 今朝反高는 昨後場의 賣過反動? 反動高를 示하엿스나 結局은 또다시 軟化할傾向이不無▲旗幟가 鮮明하지못하든 馬越의 態度는 이제야 비로오 確實히 軟化된것을 可知▲秘密裡에서 堂島先限 三十一圓六十錢臺의 指定注文이 暴露▲馬越老가 軟化하엿스니 硬陣中에는 可히 注目할만한 仕手가업는걸 ▲强派이든 海堀、江草等兩派는 昨日에 損退하고 潮政一派만이 殘壘를固守하는모양이니 買方은 無將之卒 이라하여도 過言이아닐뭇▲萬一聯業買方이 損退하는날에는 又復數段瓦落을 告할것으로 軟派는 觀測▲그러나 農家의 態度는 政府買上의 遲延에도 不拘하고 依然賣惜하는 光景▲農家의賣惜方針이 繼續되는때는 期正共히 瓦落을 許하지 안흘뜻하나 그러나 農民의策動이란 商人의作戰과 달러서 一朝賣急할지도未知이라云云▲그럼으로 大勢觀으로는 一二個月間 軟弱에陷하지나 안을는지몰라 米國財界는 軍人恩給法案通過로 大인푸레가 期待된다하나 그資金出處가큰 問題 增稅나公債發行이나 米國大인푸레를 日本이 好感하기前에 반드시隨伴할 爲替高를 생각해볼일

今日財界 (廿九日)

◆米 仁川期米 先限 大阪期米 先限 ◆正租(仁川)一等 京城(丸仁三等) ◆市中金融 ◆金銀 ◆株 朝新 東新 日産 大阪株 大阪人絹 大阪棉花 大阪砂糖 ◆公債 [illegible]

金融 廿九日

◆海外經濟◆ ◆東京金利◆ ◆京城手形交換高◆ ◆日本銀行券◆ ◆朝鮮銀行券◆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米 廿九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朝取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大阪市中在米高◆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商品 廿九日

◆京城綿絲布市勢◆ ◆日本麥粉市勢◆ ◆豆粕沖價◆ ◆京城綿布◆ ◆撰擇粕沖價◆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大阪綿絲◆ ◆大阪棉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시카코期麥◆

株式 廿九日

◆東京短期◆ ◆東京短期取組◆ ◆大阪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鮮定代引日步◆ ◆東京現株◆

東 趙俊鎬米豆取引店 仁川海岸町二ノ一 電話長九一六 六九三 二六五

金.銀.白金 滿洲與販換引金代 地方注文 送料先金 京城德力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334 京城府明治町